



5

198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5호

(루계 391)



◇◇◇◇◇◇◇◇◇◇

차 례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	4
그날의 격전장을 걸으며	19
삼지연기슭에서	21
아름다운 풍경	23
새로운 지향	33
진달래	42
멀고도 먼곳	43
사랑의 물결, 보통강이여	46
이런 때가 좋다	47
건설의 새력사가 펼쳐진 땅에서	48
조국의 흙.....	50
무지개 비낀 내 조국.....	51
주인들	52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의 탐구	62

술고개집 딸	65
풍년가을을 앞당기는 마음들	74
빛나는 새세대	76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

(전화에서 계속)

제 5 장

△때: 전장에서 다음날 저녁무렵

△ 곳: 복순이네 집

△무대: 복순이네 집앞으로 길이 놓여있고 가까이 지주네 집과 마을이 보인다.

△ 막이 오르기전부터 황지주네 집에서 굶는 소리가 들려온다.

△ 막이 오르면

황지주가 달구지에 앉아 장부책을 들여다보며 타작을 받느라고 분주하다.

지주: 타작바리들을 제창 저 뒤대문 큰 고간으루 가져가게!

△ 지계에 곡식가마니들을 가득가득 지고 가는 사람들, 머리우에 자루를 인 녀인들, 조그만 달구지에 곡식을 싣고 앞뒤에서 밀고 끌며 가는 사람들...

온 마을 사람들이 지주집으로 곡식을 날라가고있다.

△한 청년이 행렬에서 나와 지주앞에 애걸한다.

청년: 저 주사님, 그래두 가을을 했는데 늙은 아버지한테 죽이래두 몇기 쪼아드리게 줍쌀 한가마니만 남겨놓게 해주시우.

△ 지주는 장부책만 보며 대답도 않는데 녀인 하나가 다시 들어와 삽자루를 내려놓으면서 애걸한다.

녀인 3: 주사님! 우리 령감 병이 더해서 오늘래일 하는데 죽기전에 약이나 한첩 써보게 이 줍쌀 서너말만 좀 남기게 해주시우. 예, 부탁이웨다.

지주: 안돼! 안돼! 이 사정 저 사정 다 보다가야 타작 걷어들일게 있다. 일단 금년회계를 활건다 하구나서 다시 변을 가져다 쓰든지 장리를 가져다 먹든지들 하란말이야.

녀인 3: 주사님!

지주: 아 어서 가지구 가거나 해!

△ 녀인 할수없이 쌀자루를 다시 이고 지주집 뒤

로 사라진다.

△ 지주집에서 굶소리가 다시 높아진다.

△ 지주처가 사발을 들고 담장앞으로 나온다.

지주처: (복순네 집 마당에 들어서며)

복순 에미 있나?

△ 복순네 집은 비어있다.

△ 지주처 돌아나온다.

지주: (낮은 목소리로) 그래 복순이 에미가 상기 두 점을 치러 안왔겠어?

지주처: 그래서 이렇게 서슬을 가지구 왔는데 아까 가을을 하러 나가는것 같더니 아직 안들어왔군요.

지주: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한데 큰무당이 승낙은 했나?

지주처: 승낙할게 뭐요. 그러다간 제가 신령님한테 큰 벌을 받는다구 하면서...

지주: 그게 다 돈을 큼직하게 먹자는 수작이야.

지주처: 하긴 내 이 금가락지가 마음에 있는지 어디서 만들었나, 금이 몇돈중인가 하면서...

지주: 그것 보라구! 그럼 그거래두 탁 맥이란 말이야. 아깝지만 별수 있어?

지주처: 그럼 금가락질 또 해주겠소?

지주: 아 면장만 돼봐, 그따위건 사흘안으루 뽑아내지 않으리. 어떻게 해서든지 큰무당을 삶아서 이것들이 잔치를 안하구 복순이년을 군수령감한테 보내게 해야 해. 그까짓 전도부인인지 한건 오늘두 구장놈하구 밀려다니는데...

지주처: 좋수다, 그럼...

△ 지주부처 나간다.

△ 강냉이를 한광주리 따이고 박씨 들어온다.

만춘이도 지계에 강냉이포대를 지고 따라들어 온다.

박씨: 어서 안에 넣으라구, 그리다 누가 보면...

만춘: 아 도적질을 해오게 그래요. 제땅에서 가을을 해오는데 ...

△ 짐을 내려놓는다.

박씨: 그래두 그러다 지주나 구장이 보구 왜 성

황터밭에서 가을을 했나 하면 어찌겠나.
만춘: 일없어요. 이제 성황터밭때문에 도장들을
받는데 득철이랑 오면 도장을 찍으시라요.
박씨: 도장은 왜?
만춘: 그 밭이 국유지두 황각쟁이네것두 아니구
우리가 부대를 일군거라는걸 군에 진정서를
내기루 했어요.
박씨: 하여커나 임자가 찍으라니 찍지. 인제야 다
임자살림인데
△ 박씨 안에 들어가 《복순아!》 하고 찾는다.
박씨: (혼자소리같이) 한데 복순이가 어디를 갔나
원.
만춘: 조가을 나가지 않았어요?
박씨: 아니 거기두 없어. 아 새벽에 깨어나보니
그때 벌써 없더라니까.
만춘: 그럼 조반두 안먹구요?
박씨: 그러게말이네, 난 그새 들어왔뎌나 했는데
밥그릇두 고대루구만. 애가 어딜 갔을가?
△ 밖에서 복순이가 《어머니!》 하고 부르며 달
려온다.
만춘: 오 저기 오누만요.
박씨: 아이구 뛰긴 왜 뛰나?
△ 복순 지주집 뒤길에서 달려들어온다. 품에는
다래끼를 안았다.
치마는 흙물에 젖고 밧이며 장다리가 모두 흙탕
투성이다.
박씨: 아니 너 어디를 갔뎌니?
복순: 저 절골에 갔뎌어요.
박씨: 절골엔 왜?
복순: 어머니, 이거련꽃열매예요. 거기 늪이 있
다구 하기에 갔더니 참말..
박씨: 아이구, 그럼 련꽃열매를 따러 갔뎌구나.
그 삼십리나 되는델 식전새벽에 쫓쫓
(혀를 찬다.)
복순: 야, 늪에 빠져서 혼났뎌데. 나올려니까 자
꾸 더 빠져들어가는데... 겨우 나왔어요.
박씨: 에이구, 그러다 죽지. 이 옷주제랑 봐라.
배고프겠다. 어서 들어가 밥 먹어라.
복순: 참말 이제야 배두 고픈것 같네.
이거 따올 생각에 배고픈것두 모르겠더니 ...
△ 복순 안으로 들어간다.

만춘: 성황터 강냉이 남은건 내 혼자 마저 저내
릴테니 이젠 들어가 좀 쉬세요.
박씨: 그러다 구장네가 보면 저의 일 안하구 우
리 일 한다구 뭐라지 않겠다.
만춘: 그간놈, 아무렴 이제 그놈 머슴 더 살겠다
구요.
박씨: 하긴 이제야 어서 나와 살아야지.
△ 만춘 나간다.
△ 지주집에서 굿소리 높아진다.
△ 박씨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무당이 무엇인가 녀두리를 하는 소리, 높아지는
장구소리와 작은 무당들의 받는 소리.
△ 박씨 점점 그 소리에 끌려들어간다.
△ 돌쇠 지게에 짐을 해지고 지나다가 벗어선다.
돌쇠: 아니 복순이 어머니 왜 그렇게 우두커니서
계시우?
박씨: 황지주네 굿하는게 오늘 끝난다지?
△ 돌쇠 지게를 세운다.
돌쇠: 오, 그러니 복순이 어머니두 굿을 하구싶은
계군요?
박씨: 굿은 못해두 우리 복순이 신수점이나 한번
쳐봤으면 좋겠는데 돈이 어디 있어야지...
겨우 구십전을 구했는데 저 무당은 복채가
비싸대.
돌쇠: 복순이 어머니, 내 점을 좀 쳐달라우, 공짜
루요?
박씨: 남은 속이 상해서 그러는데 임잔...
돌쇠: 하! 이거 차찰쇠에게 박수무당이 내린걸 모
르시는 모양이다... 그럼 에... 갑자하니 을축
이라(손가락끝을 짚으며 잠시 룩갑을 짚는척
하다가)
거참 이상두 하다! 이 집에 어제부터 해마다 남
자가 하나씩 찾아들겠는데
박씨: 에이구 이사람 또 허튼소리 하려구...
△ 복순이 땀을 씻으며 련꽃열매를 담은 남비를
가지고 나와 화로에 올려놓는다.
돌쇠: 아, 내가 언제 허튼소리 합디까? 아, 당장
금년엔 만춘이가 들어올테니 그건 이 박수무
당이 아니래두 알일이지만(무당흉내를 내며)
오호네야! 명년에 또 판 남자가 찾아들겠으
니

박씨: (성을 낸다) 아니, 여보게, 장난이래두 무슨 소릴 그렇게 하나?...또 딴 남자라니 원!

돌쇠: 옹아! 명년엔 떡메같은 손자가 하나 생기겠수다레!

△ 복순이 부끄러워 급히 안으로 사라진다.

박씨: 참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돌쇠: 아, 참말 안그럴것 같소? 이제 손자란놈이 할머니 할머니 하구 바싹바싹 안겨들땡 복순이 어머니 주름살두 인두루 대린듯 쭉쭉 퍼질거웨다.

박씨: 아닌게아니라 어미딸이 마주앉아 한숨만 짓던 이 집에 이제 만춘이가 들어오구 아기 울음소리까지 들리게 되면...

돌쇠: 아니 왜 울음소리겠소, 웃음소리지. 자 그러니 저 곳소리나 듣구 서있지 말구 어서 잔치차비나 하시우.

△ 복순 다시 나와 약을 달인다.

박씨: 말을 들으니 너무두 신통히 맞힌대서 그러네

돌쇠: 맞히긴 뭘 맞혀요! 나두 다 들었수다.

또 맞힌다면 그래 이제 신수구 궁합이구 나쁘다구 해서 잔치를 안하겠나요? 나 원.

박씨: 거야 그런데...

돌쇠: 무당한테 줄 돈이 있으면 한잎이래두 보태서 구장놈 빚을 물구 만춘일 빼내오잔말입니다. 내 득칠이네랑 몇집 부탁했어요. 가을을 하면 잔치에 부조는 그만두구 만춘의 빚을 물게 돈들이나 좀 꾸어달라구요.

박씨: 임자 참말 고맙네. 어떻게 해서든지 만춘일 빼내와야지.

돌쇠: 그렇지 않구요. 잔치를 하구두 갈라져 살겠나요.

박씨: 그래서 내 잔치때 쓰려구 먹여온 저 돼지를 팔아서 만춘이 빚 갚는데 보태려구 마음 먹었네. 만춘이야 어디 도와줄 친척 하나 있나? 저의 어머니가 구장네 집에서 머슴살다 죽으면서 물려준 빚밖에 없으니...

돌쇠: 야 이거 복순이 어머니 어디 한번 업어 봅시다.

△ 돌쇠 박씨에게 등을 돌려댄다.

박씨: 내가 어린앤가? 또 무슨 실없는 소릴 하려

구 그러나?

돌쇠: 실없는 소리가 아니라 복순이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만 척척하면 만춘이젠 장모지만 난 양어머니루 모시구 돌아가실 때까지 업구 다니겠어요.

박씨: 임자 그저...

돌쇠: 아, 잔치야 맹물을 떠놓구 하면 뭐래우? 만춘이가 여기 와서 복순이하구 깨가 쏟아지게 살면 되지.

박씨: 그래두 임자랑 동네에서 욕을 할가봐...

돌쇠: 원 별국정 다 합니다. 그보다두요 아까운 돈 새기면서 무당한테나 찾아가지 말라요.

박씨: 그래 임자들이 다 그러는데 나쁘면 얼마나 더 나쁘겠다구.

돌쇠: 아 이거참! 오늘은 복순이 어머니가 진짜 정이 폭폭 들게만 굶니다.

△ 복순이도 기뻐한다.

박씨: 참말 나두 임자 우스개소릴 듣군하면 가슴이 좀 시원해지군하네.

돌쇠: (지계를 지며) 아이구 이놈의 벼가마니 무거워서 못지구 가겠구나.

박씨: 요샌 타작 걸어들이기 수고하겠네.

돌쇠: 집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윤식이네가 이 벼 한가마니 남은것마저 빼앗기면서 온 가족이 나와 눈물이 그렇게 서있던것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세상에 못할 노릇이 지주놈네 머슴 살이지...

△ 돌쇠 흥얼거리며 나간다.

《아서라 말어라 한탄을 말어라...》

박씨: 저 돌쇠두 불쌍한게...그래두 그런 티 하나 안내니 별사람이야.

△ 박씨 돌쇠가 가는것을 바라본다.

박씨: 말일망정 이자 돌쇠 말대루 뻘으면 얼마나 좋겠니...

복순: 어머니 요새 걱정때문에 막 못쓰게 뻘어요. 땅이구 잔치구 어머니가 앓지 말아야지... 이제 이걸 달여잡숫구 어머니병이 참말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씨: 이제 너희들 잔치만 하구나면 내 병은 제절루 나올것 같다.

△ 지주처가 다시 사발을 들고 온다.

지주처: 오 왔구만, 자 이거 서슬!

박씨: 아이구, 이거 내가 가지러 가야 할걸, 고맙습니다.

지주처: 고마울게 있나. 어서 두부두 앓구 잔치를 잘하라우, 나두 오겠네.

△ 복순 피하듯 부엌으로 들어간다.

박씨: 아이구 마나님이 어떻게...

지주처: 아 다른 집엔 안가두 임자네 잔치때야...

박씨: 고맙습니다.

지주처: 한데 임자 궁합이랑 보겠다더니 안보겠나?

박씨: 글썄 그런데...

지주처: 거참 맞힌다 맞힌다 해두 내 그렇게 실통히 맞히는 무당은 당대 처음 보았네. 아 글썄 어떻게 아는지 내가 우리 령감한테 시집 오기전에 판데 혼사말이 났던것까지두 알더라말이야, 그거야 우리 령감두 아직 모르는건데...

박씨: 예?!

지주처: 내가 그 혼살 안하구 이 령감하구 하길 잘했지. 그러지 않았댔으면 과부가 되구 큰일 날뻔했대누만.

박씨: 예, 그래요.

지주처: 하여커나 산에 들어가 꼬박 십년은 나오지 앓구 도를 닦아서 신령님이 내렸다더니 참말 다르긴 다릅데.

박씨: 그래 주사님네 곱하는게 오늘 끝나나요?

지주처: 응, 이제 막판이야. (굿소리 높아진다.) 저것 보게나, 그래서 래일아침엔 돌아가겠다구 하는데...

박씨: 예...

△지주처 나간다.

△ 복순 약탕관을 들고 다시 나온다.

박씨: 아이구 야 큰무당이 래일 돌아간다니 어떡하면 좋겠니!

복순: 어떡하긴 어떡해요. 돌아가라지요 뭐.

공연히 어머니 속만 태워주면서...

박씨: 우리가 언제 다시 저런 큰무당을 얼굴이나 한번 보겠니. 황주사네가 불러왔으니 그러지...

복순: 어머니 아까 무당한테 안가겠다구 그러구

선 ...

박씨: 글썄 그렇게 마음먹었었는데 이자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달라지누나.

복순: 신수가 좋으면 몰라두 좋을게구 또 나쁘다면 안다구 어떡하겠어요. 속이나 상했지.

박씨: 나쁘다면야 액맥이를 하는수두 있지. 내가 너갈았을 때 너의 외할아버지가 그 무당 말만 들었어두 이 신센 안됐을걸 그러지 않았니. 글썄 너의 외할머니가 죽자하구 그만두자는걸 억지루 시집을 보내더니 그 해루 너의 아버지가 죽구... 넌 아버지란 말두 못해보구 살아왔으니 암만해두 곱단네한테 가서 점채를 마저 꺾서 너희들 잔치날이래두 푹푹히 받아달래야겠다.

△ 박씨 나간다.

△ 복순 약을 내려놓고 물동이를 끼고 나온다.

△ 만춘 다시 강냉이를 치고 들어온다.

복순: 수고했어.

만춘: 이젠 다야. 어머니 어디 갔어?

△ 둘이서 난알섬을 마루에 올려놓는다.

복순: 글썄 그 지주너편네 말을 듣더니 꼭 점을 한번 쳐보겠다구 점쟁가 점값인가 한걸 구하러 나갔어.

만춘: 좌우간 무당, 점쟁이라면 오금을 못써.

복순: 그래두 어머니를 너무 닳하지 말어. 오죽하면...

만춘: 하기야 다 우리들을 생각해서 그러는건데... 이제 살림을 차리면 어머니를 잘 모시자구...

복순:...

만춘: 나두 부모없이 자란놈이 어머니 사랑이라곤 모르다가...

복순: 앓지 말아야겠는데...

만춘: 이제 우리 둘이 일하면야 어머니는 더 고생을 안시켜두 되지 않으리...

복순: 거기서 고생하게 됐어.

만춘: 일없어, 내 죽자하구 일할게, 우리두 남갈이 한번 살아보자구. 성황터결에 남은 땅두 마저 일구구, 논두 한뼘기얼어부치구...

복순: 그러면 참말...(웃으며) 아까 돌쇠가 글썄 점을 친다구 하면서...

만춘: 돌쇠가 그래 뭐랬어?
 복순: 아니야 몰라!...(부끄러워 돌아선다.)
 만춘: 복순이 자!
 △만춘 주머니에서 거울을 꺼내 복순에게 준다.
 만춘: 자 어서!
 △ 복순 거울을 받아 본다.
 복순: 이거 어디서 났어?
 만춘: 돌쇠가 사준거야... 우리두 이제 살림을 차리면 돌쇠두 좀 돌봐주자구. 다같이 부모없이 자라면서 친형제같이 지내오는데...
 △ 만춘 약 달이는것을 살펴본다.
 만춘: 아 이진 날보구 그랬으면 내가 가서 따오지.
 복순: 그래두 어떻게... 미안해서...
 만춘: 남이라구 미안하구 말구해. 내 이제 가서 한자루 따올게.
 △ 돌이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약을 달인다.
 △ 방창이 들려온다.

가난과 천대 속에 맺어진 사랑
 가시밭속에서 피는 꽃인가
 고생하신 어머니 함께 모시고
 새살림 오붓이 꾸려가리라

△ 돌쇠와 청년 1, 2 등 들어온다.
 돌쇠: 야! 이거 벌써부터 깨가 쏟아졌구나.
 총각놈 서러워서 살겠니.
 청년 1: 복순이 어머니 있니? 진정서 도장 받으러 왔다.
 만춘:야, 이자 금방 어디 나갔구나.
 내가 찍으면 안되니?
 청년 2: 야, 야, 아직은 자격이 없다.
 그러다 진정서가 가짜라면 어찌겠니.
 돌쇠: 야 그럼 그새 저기 마당질하는데 가서 다른 사람들부터 먼저 받아라.
 청년: 그러자.
 △ 청년 1, 2 나간다.
 만춘: 야 저기 전도부인하구 구장이 온다. 안으루 들어가자.
 돌쇠: 너나 어서 뒤뜨락에 들어가있거라. 내 저 것들이 무슨 수직을 하는지 여기서 좀 들어

보겠다.
 △ 돌쇠 돌각담밑에 숨어서 듣는다.
 △ 구장과 전도부인 들어오며 떠든다.
 구장: 그러게 내 뭐랍디까. 그 황각쟁이란 인간은 애당초 대상할것두 못된대구요.
 전도부인: 참말 그림디다. 우선 불쾌해서...
 구장: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여기 돌쇠랑 젊은놈들이 야학을 다시 내으겠다구 하는것두 도와주지 않구있습니다.
 △ 돌쇠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부르친다.
 전도부인: 요새 야학이라는건 거의다 공산당계렬에서 경영하는 아주 위험한겁니다.
 구장: 그래서 고등계 확형사두 여기 레배당을 짓겠다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요새 젊은놈들이 공산당에 물들지 않게 하는데두 좋겠다구 합디다. 그래 나두 레배당문제에 적극 발벗구나서는거지 뭐 면장자리가 탐나서 그러는건 아닙니다.
 △ 돌쇠 돌맹이를 집어 그들쪽에 던진다.
 △ 두사람 놀란다.
 △ 이때 종이 지나가다가 구장을 보고 그앞에가 합장하며 말한다.
 중: 안녕하십니까? 운홍사 종이올시다. (전도부인에게) 이거 여기서 또 만나뵈옵는군요.
 △ 전도부인 진저리나는듯 썰쭉하며 돌아선다.
 중: 구장님을 찾아온것은 다름아니라 저 성황터 발매문인데, 우리 주지님이...
 구장: 여보시오. 산속에 들어앉아있는 종이 여기 땅하구 무슨 관계가 있소?
 전도부인: 참! 별 애를 다 먹이지 않나.
 △ 돌쇠 뒤를 향하여 손짓한다.
 만춘 나온다. 돌쇠 만춘의 귀에 대고 무어라 수군거린다.
 만춘 알았다는듯 집뒤로 빠져나간다.
 중: 여보시오. 우리 주지님이 산중에 앉아계신다구 소홀히 보지 마시오. 우리 주지님으로 말하면 일찌기 일본 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시구 여기 일본수비대장님과는 아주 친분이 가까운 사이입니다.
 구장: 뭐 수비대장?
 중: 그래서 지난 봄에두 수비대장님이 《토벌대》

를 데리구 오셨다가 부대는 먼저 보내구 우리 주지님과 하루저녁 놀다가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요새 공산당이 새로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그것을 잘 감시하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직접 알리라구 하구 가셨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땅문제가 복잡해져서 우리 주지님의 편지를 가지구 일본 수비대장님에게 들렸다 오는길인데...

전도부인: 아니 수비대장을 끼구?

중: 끼다니요? 그럼 거기선 미국선교사를 껴줍니다.

전도부인: 뭐라구요?

구장: 당신, 수비대장이 어떻게 하는데 허튼소리 아니요? 허튼소리?

중: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두 거짓말을 합니까? 그럼 수비대장님이 우리 주지님에게 보내는 회답편지 걸봉만이라두 보십시오.

△ 중이 가사(중옷)안에서 봉투를 꺼내 읽는다.

중: 《운홍사 주지 청암대사 전》이라 (뒤봉을 읽는다) 《영천지구 수비대장 대 일본록군중위나까무라 다로 배계》라. 자, 이래두 거짓말입니까?

△ 구장과 전도부인 아연해 말을 못한다.

△ 돌쇠가 재채기를 하는척하며 담장밖으로 나선다.

△ 세사람 놀란다.

구장: 아니, 너 이놈!

돌 쇠: 거 나하군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 성황터 발때문에 무슨 일이 나두 날것 같습니다.

지금 동리에서... 오 저기들 오누만.

△ 돌쇠가 알려서 청년 1, 서로인 등 마을사람들이 떠들며 모여온다.

△ 박씨도 들어온다. 그들과 만난다.

청년 1: 아 복순이 어머니! 여기다 지장을 찍으시우, 지장이요!

박씨: 성황터땅때문에 그러나?

청년 1: 예.

△ 박씨 지장을 찍는다.

△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구장: 저건 뭘 저러나?

돌쇠: 도장들을 받는구만요.

구장: 도장은 무슨 도장?

청년 1: 성황터밭이 국유지두 황각쟁이것두 아니구 우리 땅이라는걸 군청에 진정서를 낼려구요.

구장: 아니, 그런 일을 내 승낙두 없이 해? 내 승낙?

중: 아니 그러면 우리 절에 바치는건 누가 바치오? 여러분이 바치겠소?

청년 1: 여보시오. 동냥은 못취두 쪽박은 깨지말했는데 당신이야말로 백성들을 도와는 못주나마 백성들의 땅을 도적질이나 해가지 마우.

△ 농민들이 대드는통에 중은 황망히 도망친다.

전도부인: 옳아요. 그건 절간의 땅이 될수는 없어요.

청년 2: 여보슈, 그렇다구 불쌍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을 빼앗아서 짓밟개버리구 거기다 레배당을 지을수는 있소? 그러구두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구? 흥!

청년 1: 사생결단하구래두 그 땅을 지켜야 하네!

일동: 옳수다!

청년 2: 자, 가서 도장들을 마저 받으시다!

일동: 갑시다!

△ 모두 떠들며 기세좋게 나간다.

전도부인: 이젠 다 틀렸군요!

△ 전도부인 구장을 바라보다가 나가버린다.

△ 구장 혼자 남아 우두커니 섰다.

△ 돌쇠가 혼자소리같이 중얼거린다.

돌쇠: 이젠 전도부인 밉구 면장하기는 다 틀렸는데 ...

구장: 뭐야? 이놈의 새끼!

△ 구장이 단장을 들고 돌쇠를 따라간다.,

△ 돌쇠 쫓겨가며 소리친다.

돌 쇠: 구장이 사람친다!

△ 복순이와 박씨 안에서 나온다.

△ 구장이 성이 독같이 나서 박씨에게 소리친다.

구장: 임잔 그래 누구 승인을 받구 성황터밭에서 가을을 했어? 응? 그러다 그게 국유지라는게 확실해지면 징역살일 해보구싶은가? 징역살이?

박씨: 저는 그저 남들이 다 하기에...

구장: 남 죽는다구 임자두 죽겠어?

이제 아야 그놈들을 몽땅 잡아넣을테니 보란말이야!

박씨: 구장님, 그 땅이야...

구장: 듣기 싫어! 임자가 구장말을 우습게 여기는 모양인데...

박씨: 제가 어딜...

구장: 복순이문제만 해두 그렇지, 내 말 안듣구 어디 잔치를 하나 보자구, 흥! 내가 하자구만 하면 만춘이란놈을 오늘이래두 당장 한 백리밖에 팔아치울수 있어, 빚값에!

박씨: 구장님 제발!

△ 구장 나간다.

박씨: 아이구 이걸 어찌겠니?

△ 굶소리 또 들려온다.

박씨:아무래두 우리 집에 무슨 살이 붙어두 붙은 것 같은데 내 가서 점을 쳐보구 와야겠다.

△ 박씨 돈을 세어보며 지주집으로 간다.

△복순 우두커니 서서 어머니의 뒤모습을 바라보고있다.

△ 박씨를 따라 무대 바뀐다.

제 6 장

△ 때: 전장에서 뒤이어

△ 곳: 황지주집뜨락

△무대:제 2 장과 같다.

무대 밝아지면 지주처와 무당이 마주서서 이야기 하고있다.

큰무당: 이거참 이러지두 못하구 저러지두 못하구 야단인데... 신령님을 모시는 큰무당이 거짓점을 칠수두 없구...

지주처: 야단은 무슨 야단이겠소! 자, 이 금가락지를 한번 끼여보우. 내게는 좀 작은데...

큰무당: 그거참(마지못해하는척하면서 손을 내민다.)

지주처: 그럼 큰무당님만 믿습니다.

큰무당: 만사는 내게 다 맡기시우. 그 녀자네력은 이자 말한 그대루겠지요?

지주처: 예 열아홉에 시집가서...

△ 박씨가 밖에서 찾는다.

△ 지주처 나가 대문을 열어준다.

△ 무당은 한쪽에 가 선다.

지주처: 오, 점을 치려구 왔나?

박씨: 예, 복채를 구하느라구-. (손에 든 각전을 펼쳐보이며) 이거면 될가요?

지주처: 아니 원 이걸 다 복채라구 들구 왔다. 내 돈을 꾸어줄테니 그까짓 각전잎은 넣어두게. (돈을 꺼내 박씨손에 쥐여주며) 자, 였네, 십원일세.

박씨: 아니 이 많은 돈을!...

지주처: 아, 돈이야 없다가두 생기구 생겼다가두 없어지는건데 뭘 그러나. 아무려면 복순이 평생팔자에 비기겠다. (박씨에게) 인사 드리게, 저분이 큰무당님일세.

박씨: (큰무당에게 절을 하며) 처음 뵙습니다.

△ 큰무당 대답대신 박씨의 얼굴을 훑어지게 살피며 다가온다.

큰무당: 저 관상을 보니 팔자가 거세겠수다.

박씨: 예? 관상두 봅니까?

큰무당: 관상, 손금, 사주팔자 다 보지요. 어디 손금 좀 봅시다. (박씨의 손금을 본다.)

지주처: (방울, 부채, 쌀 등이 놓여있는 점상을 가져다놓으며) 우리 소작인이지만 친척같은 사이니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럼 난...

△ 지주처 방으로 들어간다.

큰무당: (박씨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남편복이 없겠수다. 일찍 파부가 됐겠는데... 남편하구 한 일년 살았겠나?...

박씨: 예, 열아홉에 시집가서 스물에 파부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히시우?

큰무당: 아들은 없겠구 딸이 하나 있겠는데... 그것두 제자식이 아니웨다.

박씨: 예?!

큰무당: (점상을 끌어당기며) 하여간 점을 치구 봅시다.

△ 박씨 상우에 돈을 놓는다.

큰무당: 어머니하구 딸의 나이와 생일만 대시우.

박씨: 내 나이는 금년에 갓마흔이구 생일은 동지달 스무이튿날이구요.

딸은 갓스물에 삼월초사흘이웨다.

큰무당: 성은 뭐요?

박씨: 나는 밀양박가구 딸은 수안리씨예요.

△ 큰무당이 손가락으로 룡갑을 짚으며 점을 친다.

박씨가 머리를 숙이고 빈다.

큰무당: 쌀알을 세여보는가 하면 맞추어보기도 한다.

큰무당: 원래 시집을 가지 말아야 할델 잤군요.

박씨: 예,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걸...

아이구 어떻게 그렇게...

큰무당: 딸애 아버지두 그래서 일찍 죽었는데 그때 붙었던 그 악귀들이 지금은 딸에게 옮아붙어있수다.

박씨: 우리 복순이한테요?

큰무당: 예, 지금 딸한테 혼사말이 났겠는데 자꾸 방해가 생겨요.

박씨: 참말 그래요.

큰무당: 딸이 뉘번 죽을번했겠수다.

박씨: 예, 한번은 내가 그걸 데리구 물에 빠져 죽을려구 했구 한번은 되게 앓아서...

아이구 참 신통두 해라!

△ 큰무당 방울을 흔들며 흥얼거리며 한참 점을 치다가 벌떡 일어나 돌아가며 소리를 지른다.

큰무당: (신령님 말투로) 오호네야!

내 말 듣거라!

박씨: 예, 신령님, 황궁하나이다.

△ 박씨 열혼이 나간듯 머리를 조아리며 손을 짹 짹 비빈다.

큰무당: 정말 신통두 하구나! 딸이 똑 제어머니팔자를 넘겨받았구나.

박씨: 예?

큰무당: 그 액을 풀지 앓구 시집을 가면 딸두 또 과부가 되구...

박씨: 우리 복순이까지요?! 아니 이걸 어쩍니까?

큰무당: (자기 말로 돌아오며) 그러게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혼사를 했으니 딸두 그 액을 받지요.

박씨: 무슨 수가 없을까요? 잔치날두 다 받아놓았는데요.

큰무당: 그런걸 풀자구 무당두 있구 점두 치구 하는거지요.

박씨: 황궁하나이다. 신령님께서는 이 불쌍한년을

굽어살피시사 길길을 대여주옵소서.

△ 박씨는 다시 손을 비비며 머리를 조아린다.

큰무당: 딸이 리씨니 목성이구 어머니두 박씨니

목성이구 다 나문데 금년이 토끼해예요.

그래서 토끼가 자꾸 나무를 갹습니다.

박씨: 예, 그것참... 그러구보니 금년이 토끼해래요.

큰무당: 그러니 아무래두 무슨 액풀이를 좀 해야 되겠수다.

박씨: 어떻거면 좋을까요? 난 그저 그 딸 하나 믿구 살아오는데 ...

△ 박씨 큰무당에게 매여달리며 온다.

큰무당: 좋긴 딸이 어데 집을 떠나서 금년을 넘기는게 좋은데...

박씨: 객지에서서요?

큰무당: 금년엔 딸의 목숨이 다하는 헨데 잠시라도 어머니결을 떠나있으면 어머니에게 붙은 악귀에서 벗어날수 있어요. 금년만 지나면 딸의 팔자가 좋수다. 아들두 서넛 되겠구 재물두 생기겠구...

박씨: 예, 그런데 저 탁성을 쓰는 집에 가면 어떨것 같습니까?

큰무당: 탁씨라?... 좋수다. 어머니결을 떠나면 귀인이 생겨서 액두 면하구 재물두 생기겠수다. 딸을 빨리 집을 떠나게 하라요.

박씨: 어떻게 보낼까요? 그저 보내면 될가요?

큰무당: 아니지요. 우선 딸대신 통돼지를 잡아서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구 날두 받아야지요.

박씨: 어느날이 좋겠습니까?

큰무당: 가만 있자 오늘은 늦었구 래일은 삭파일이니 길을 떠나선 나쁘겠구.- 모레가 좋수다.

박씨: 모레요?

큰무당: 그리구 딸이 집을 떠날 때 꼭 제손으로 속적삼을 하나 새루 해입구 가게 하는데 그 속에 입쌀 스무알을 넣구 가게 하라요.

박씨: 예, 천은 아무거구 될가요?

큰무당: 좋긴 새천이 더 좋은데 명주같은거면 더 좋구.

박씨: 예.

큰무당: 그러면 딸에게 잡귀신이 붙지 앓구 신령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사라진다)

박씨: 예, 큰무당님 이거 참말 고맙습니다.
 △ 박씨 혼자 남아 생각에 잠긴다.
 박씨: 우리 복순에게 좋다면야 잔치는 명년에 하지.
 △ 박씨 독백하는가운데 무대 어두워진다.

제 7 장

△ 때: 그날밤
 △ 곳: 물레방아간
 △ 무대: 한쪽으로 치우쳐 물레방아간,
 한쪽으로 언덕과 마을로 통하는 길.
 △ 무대 밝아지면 밤
 둥근달이 나무가지에 걸려있고 수차가 돌아간다.
 《쿵쿵》 방아 짙는 소리.
 △ 복순이 달을 바라보며 혼자 서있다.
 △ 방창이 들려온다.

야속하다 어머니는 집 떠나라네
 정든 고향 두고서 가야 하는가
 가련한 그 신세 어이 되려나
 처량한 달빛아래 처녀는 우네

△ 박씨가 천을 안고 들어온다. 박씨는 울고있는 복순을 바라본다.
 박씨도 눈물을 닦는다.
 복순은 어머니가 온것을 알자 일어선다.
 박씨: (목이 메여) 너 여기 와있었구나. 난 네가 보이지 않기에 걱정을 했다. 혹시나 꿈한 마음에...(눈물을 닦는다.)
 복순: 어머니!
 △ 복순 어머니품에 가서 와락 안긴다.
 박씨: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네 마음이야 오죽하겠니.
 복순: 어머니...
 박씨: 그렇지만 팔자는 못어긴다. 못어겨!
 다 이 에미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는걸 어찌겠니.
 내가 죽어서 된다면 당장 죽기래두 하겠다만...
 복순: 어머니!

박씨: 내가 다 너희들을 생각해 그러지 나 잘되자구 이러겠니. 내가 이날까지 온갖 수모, 온갖 설움을 다 참으면서 이를 사려물구 살아온것두 정말 너하나때문인데...
 복순: 어머니...
 박씨: (천을 내준다.) 였다, 속적삼감이다. 이자것 이걸 구하느라구 온 동네를 다 헤맸다. 어서 내려가서 만들어라.
 △복순 받지 않는다.
 박씨: 정 싫으면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내가 이속을 태우느니 차라리 미리 죽는게 낫지.
 △ 박씨 나가려다.
 복순: 어머니! (가서 속적삼감을 빼앗는다.)
 박씨: 복순아! 낸들 왜 네 마음을 모르겠니, 그렇지만 이제 몇달만 참으면 될걸 공연히 그러다 또 내 신세 될게 있니? 어이구 팔자두 야속하지!
 △ 만촌 들어온다. :
 △ 복순 설음이 복받쳐 비칠거리며 나가려한다..
 △ 만촌 달며들며 복순이 손에서 적삼감을 빼앗는다.
 만촌: 아니 정말 군수놈의 집에 갈테야?
 복순: 날보구만 그러면 난 어떻게 해?
 △ 복순 울며 적삼감을 빼앗아가지고 나간다.
 만촌: 그래 복순이를 기어쿠 군수놈집에 보내겠어요?
 박씨: 임자두 판 생각 말라구, 아무렴 내가 복순 일 판데 시집보내겠나. 다 임자나 복순이 생각을 하구 그래.
 만촌: 황지주놈이랑 왜 복순일 군수놈의 집에 보내자는지 몰라서 그러시우? 복순일 군수놈에게 바치구 면장을 하자는거예요. 그래서 무당하구 째어요.
 박씨: 신령님을 모시는 큰무당두 그런짓을 하나.
 만촌: 그럼 우릴 못믿구 무당말을 믿겠어요?
 큰무당이 하는 소린 다 허튼수작이예요.
 박씨: 임자두 돌쇠를 따라다니더니 그 물이 들은가부네, 그렇게 신령님 욕을 하다간 천벌을 받네, 천벌을!
 만촌: 이거참 답답해서, 신령님이구 널도깨비구...
 △ 돌쇠가 쌀가마니를 지고 들어온다.

박씨: 내앞에서 신령님 옥을 그만두라구. 난 래일 저녁 성황님께 제사를 지내야 해, 돼지를 잡구...

만춘: 뭐요?! 그래 일년내 그 고생을 하면서 먹여온 돼지를 그래 그까짓 성황당까마귀한테 바치겠어요?

박씨: 또 그런 소릴! 복순이나 임자를 생각하면 돼지 한마리가 아까와서? 그까짓거 명년에 또 먹이지.

돌쇠: 아 어서 통돼지구 통닭이구 다 가져다놓으세요. 내 또 몽땅 들어다 먹어줄테니.

박씨: 이사람, 임자나 그러겠으면 그러구 제발 우리에게까지 화가 미치게는 하지 말게.

돌쇠: 한데 복순이 어머니, 참말 잔치를 안하겠어요?

박씨: 아무려면 임자가 나만큼이야 잔치를 하구 싶겠나? 떡쌀까지 담그구 두부까지 하댔어, 그렇지만 액풀일 하기전엔 못해!

돌쇠: 액풀인 무슨 벼락맞을! 복순이 어머니!

그럼 복순이두 군수놈한테 보내겠단말이요?

박씨: 신수가 그렇다니 할수 없지. 죽는데 비기겠나. 탁성 쓰는 집에 가면 귀인이 도와준대!

△ 박씨 나간다.

돌쇠: 야, 종교와 미신은 아편과 같더니 참말 아편보다두 더하구나.

만춘: 저놈의 성황당에 불을 탁 지르자!

돌쇠: 그까짓 빈집에 불을 지르는게 문제가 아니다. 그때 야학에서 배우지 않았니. 성황당에 불을 지를게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불을 질러야 한다구.

만춘: 당장 복순이 어머니 복순이를 군수놈네 집에 보낸다. 지금 무당 말에 넘어가서 제정신이 아니야.

돌쇠: 이걸 어떡한다...

△ 돌쇠 생각에 잠기며 동리쪽을 본다.

△ 구장처가 흥얼거리며 오는 소리가 들린다.

△ 돌쇠 그쪽을 보다 무릎을 탁 친다.

돌쇠: 뻘! 저기 구장 너편네가 온다. 이제 저 구장놈네를 끌어들어서 두놈 다 혼쌀내주구 복순이 어머니두 정신이 좀 쏙 들게 해야겠다.

△ 구장처가 채를 들고 들어온다.

구장처: 그래, 다 찢었냐?...

만춘: 예, 먼저 온 사람들이 많아서...

돌쇠: 한데 구장마나님, 한가하게 방아나 찢으려다니지 마시구요 방패막이나 좀 하시라요.

구장처: 방패막인 무슨 방패막일 해?

돌쇠: 싫으면 그만두시구려! 난 그래두 만춘이 친구라 황각쟁이네 편보다는 구장네 편을 듣는 데...

구장처: (태도가 급변하며) 아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무슨 방패막이지?

돌쇠: 지금 황각쟁이가 무당을 끼구 복순일 모레아침에 군수네 집으루 보내려구 해요.

구장처: 아니 그래?

돌쇠: 예! 그래서 래일저녁 황각쟁이네가 성황당에 제사를 지내는데 구장님네두 어떻게 해서든지 무당을 불들어다가 무슨 수를 써야 합니다.

구장처: 그런데 그 황각쟁이네것들이 무당을 불잡구 봐줘야지. 아까두 기별을 보냈는데 아글쎄 무당이라는게 올 궁리두 안한대.

돌쇠: 그럼 무당은 내 보내줄테니 그 다음엔 구장님네가 재간껏 해보시우. 무당을 올렸다봐야 합니다.

구장처: 알겠다, 보내기만 해다우.

돌쇠: 예.

△ 구장처 나간다.

돌쇠: 불은 불루 치렀다구 황각쟁이놈의 작간을 막는데는 구장놈을 써먹을수밖에 없다.

래일아침 구장네가 어찌나 좀 봐라.

△ 방창이 들려온다.

천대받는 머슴이라 알아보지 말라

가슴속엔 슬기가 넘쳐흐른다

지주도 구장도 온갖 무리들

모조리 모조리 엮어넘긴다

△ 방창속에 무대 어두워진다.

제 8 장

△ 때: 전장에서 다음날아침.
 △ 곳: 구장네 집안트락.
 △ 무대: 지주네 집보다는 현대화된 집이다.-
 △ 구장과 구장처가 트락에서 서성거린다.
 구장처: 어제저녁부터 온다더니 무당이 오늘아침
 에두 안오려나?
 구장: 그까짓 돌쇠란놈이 무슨 수루 무당을 보내?
 구장처: 아이구, 이젠 그 황각쟁이년이 무당을 끼
 고 벌써 복순이 에미라는걸 다 삶아놓았겠으
 니 이를 어찌면 좋소!
 구장: 응, 저기 만춘이가 오누만, 돌쇠놈두...
 구장처 : 돌쇠가요?
 △ 돌쇠와 만춘이 들어선다.
 구장: 그래 무당은 안오니?
 만춘: 와요.
 구장: 와?!

돌쇠: 내가 한마디 올렸다봤수다. 구장님네 집으
 루 경찰서에서 기별이 왔다구요.
 구장: 응? 그러니까?...
 돌쇠: 그러니까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곧 가보겠
 다구 하더군요.
 구장처: 그것두 경찰서라니까 급해나는 모양이지?
 구장: 네가 참 궁냥이 이만저만 아니다.
 돌쇠: 구장님, 정신차려야지. 지금 황주사는 제가
 면장이 다 된것처럼 구장님 욕만 썩어 지게
 하는데...
 구장: 뭐, 내 욕을 해?
 돌쇠: 예, (지주 흉내를 내며) 흥 제까짓게 켜내비
 새끼같은놈이 ...
 구장: 뭐 켜내비새끼?
 돌쇠: 예, 고 켜내비새끼같은게 전도부인인지 예
 수어머닌지 한걸 민구 따라다니더니 이제 닭
 쫓던 개 울타리 쳐다보는격이 됐는데 ...
 구장: 닭쫓던 개?
 구장처: 아니 뭐 이젠 우리보구 개래?
 돌쇠: 하여커나 면장자리는 이제 꼭지만 툭 치면
 툭 떨어지게 됐으니 그렇게만 되면 그 족제
 비같은 구장놈을 그저 도적개몰듯 몰아서 아
 예...
 구장: 이놈! 어디 보자! 그 황각쟁이가 메돼지같
 은게 날 뭐 도적개?

구장처: 아이구, 분해라! 아이구, 가슴이야!
 △개짓는 소리 들린다. 돌쇠 대문을 열어본다.
 돌쇠: 저기 무당이 옵니다. 구장님, 경찰서에서
 잡아가겠단다구 하면서 호통을 치시우.
 구장: 오냐, 알았다.
 돌쇠: 그럼 전 갑니다.
 구장처: 돌쇠 고맙네.
 △ 돌쇠 나간다.
 구장: (만춘에게) 야, 넌 어서 들어가 네 일이나
 해라!
 △ 만춘 뒤뜰로 들어가고 큰무당 대문으로 들어
 온다.
 큰무당: 아이구, 계시누만.
 구장처: 아 이거 수고로이 오십니다.
 난 우리 집엔 못오는데줄 아는가 했는데...
 큰무당: 그러지 않아도 날 욕하구있는줄 알아요.
 아 글썽, 그 황각쟁이넨가 한 집에서 붙들구...
 구장: 내 좀 바빠서 여러 말 할 시간이 없소.
 다르게 아니라 내가 어제 읍에 나갔다가 괄
 형사를 만났는데...
 큰무당: 괄형사요?
 구장: 예, 괄형사가 하는 말이 요새 가을철에 무
 당이요, 점쟁이요 하면서 우매한 백성들을 속
 여먹구 다니는것들이 많은데 그 동리엔 없는
 가 합디다. 있으면 모주리 잡아들이겠다구...
 그래 대답은 없다구 하구 왔는데...
 큰무당:
 구장: 그런데 말을 들으니 덕산큰무당한테 점을
 치구 복순이 에미라는게 다 받았던 잔치날까
 지 물리구 혼사를 한다 만다 하는 모양인데
 ...
 구장처: 건너마을 소경은 궁합이 아주 좋다구 날
 까지 받아줬는데.
 큰무당: 점이라구 다 같은가요. 신령님이 내린 무
 당하구 엉터리 잡소경하구 같겠소?
 구장: 하여커나 우리 집에서 머슴사는 만춘의 결
 혼문제이기때문에 나로서도 가만 있을수가
 없소. 그런데 가만 보니 지금 황각쟁이가 복
 순일 군수령감네 집에 보내지 못해서 그러는
 가분데 거기에는 다 사연이 있는거요.
 큰무당: 나는 그저 복순이 어머니라는 녀자가 와

서 점을 쳐달라기에...

구장: 점이야 치기 탓이지요. 내 이 동리 구장으로
서 한마디 하고싶은것은 공연히 황각쟁이
네 돈있이나 얻어먹구 잘못하다가 경찰서신
세를 지지 말라는겁니다.

△ 구장 뒤로 사라진다.

구장처: 우리 주인님이 당장 경찰서에 나가서 알
리겠다는걸 아 그래두 큰무당이 여기 나온건
내가 나가서 오게 한건데 그래서야 되겠는
가구 겨우 말렸습니다.

큰무당: 여러 말 할것없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오늘저녁 그 황지주네 하구 그 복순이라는
처녀 어머니가 다같이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
내는데 이 댁에서두 제사지낼 차비를 해가지
구 올라오시라요.

구장처: 아, 남 제사지내는데 우리가 뭇하려 끼우
겠어요?

큰무당: 그런게 아니예요. 빙빙 에둘게 없이 툭
터놓구 이야기합시다.

지금 두집에서 다 누가 복순이라는 처녀를
군수네 집에 셋째첩으루 보내는가 하는건
데...

△ 구장 숨어서 엿듣는다.

구장처: 무슨 소릴...

큰무당: 눈감구 아옹하는 놀음은 그만둡시다. 나
두 점을 쳐먹구 사는 녀자가 그만한 눈치두
모르겠소. 어떻든 이젠 그 처녀 어머니가 자
기 딸을 시집은 안보내구 군수네 집에 보낼
것까지는 마음먹었는데...

구장처: 아니 정말 그래요?

큰무당: 그것까지는 다 황지주네 덕이구요. 그러
나 그렇다구 그 처녀가 누구네 손을 거쳐서
군수령감앞에까지 가겠는가는 아직 모를 일
이 아니요? 그건 이 큰무당한테 달렸수다.

구장처: 어떻게요?

큰무당: 오늘저녁 내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에 따라서 그 처녀 어머니가 이렇게두 마음
먹구 저렇게두 마음먹게 됐는데 이 댁에서두
생각이 계시면 내 말대루 차비를 해가지구
성황당으루 올라오시우. 이 댁에 나쁘게는 안
해올리겠수다.

△ 큰무당 기세좋게 간다.

구장처: 여보! 여보, 빨리 나오시라구요.

△ 구장 나온다.

구장처: 뻘수다, 뻘어! 이자 글썄...

구장: 나두 다 들었어! 허허... 한번 올라왔더니
보라구, 그러게 돈두 다 권세에서 나오는지
야!

구장처: 여보, 이젠 우리두 어서 제사지낼 차비를
합시다. 어서요!

구장: 그까짓 제사나 지내는걸 가지구 일이 되겠

나 원.

구장처: 되지 않구요! 지금 복순이 예미라는거야
큰무당한테 코케운 송아지격인데, 큰무당이
누구누구네는 해롭구 누구누구네가 리롭겠다
하구 한마디만 하면 그대루 할텐데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복순이년을 우리 손을 거쳐서
군수령감한테 보내야 할게 아니예요, 야 만
춘아! 만춘아!

구장: 좋다! 면장자리가 왔다갔다 하는데 나라구
가만 있겠니.

△구장 옷동을 벗어던진다.

△만춘이 뒤뜰에서 돌아나온다.

구장: 어서 떡칠 차비를 해라, 떡!

구장처: 어서 돼지를 잡아라 돼지!

그간놈들이 돼지를 잡는데 우리라구 못잡겠
소. 면장만 된다면 돼지는새루 소두 잡겠는
데...

구장: 소는새루 너넨네두 잡겠다.

구장처: 뭐요?

구장: 야 만춘아, 물부터 끓여라!

△구장 팔을 부르짖고 나선다.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멀리서 우뢰가 드르릉
하는 가운데 무대 어두워진다.

제 9 장

△때: 그날밤

△곳: 성황당

△무대: 한쪽에 성황당, 뒤에는 숲.

△면 우리가 우르릉하고 울고 번개가 번쩍거리는
가운데 무대 밝아지면 돌쇠, 만춘, 청년 1, 2
등 마을청년들이 가마니 짝, 곱가죽, 향아리
등을 들고 모여있다.

돌쇠: 자, 아까 의논한대루 오늘저녁은 구장놈과
지주놈네를 한번 혼쌀내주자, 잘만하면 오늘
저녁 그놈들만 혼쌀내주는게 아니라 복순이
어머니 미신두 푹 떨구어줄수 있다.

만춘: 아 글썄 이자 가보니 복순인 래일아침 떠
난다구 올면서 입구 갈 속적삼을 하구있지
않아.

돌쇠: 그러게 오늘저녁안으루 결판을 내자.

청년 1: 한소나기 울것 같은데 마침 제법이다.

돌쇠: 자, 그럼 너희들은 숲속에 들어가있다가 그
것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적당한
때에 이상한 소리를 내라!

청년 1: 알았다.

돌쇠: 그 곱가죽은 나를 다우.

△돌쇠는 청년 2에게서 곱가죽을 받아든다.

돌쇠: 가만! 그 향아리두 날 다우.

△돌쇠 청년 1에게서 향아리를 받아 그안에 입을
넣고 천천히 말을 해본다.

돌쇠: 아-되-여-라
 △항아리에서 우렁우렁하는 소리가 난다.
 돌쇠: 어땠니? 사람 목소리같이 않아야 할텐데...
 청년 4: 야,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뺑뺑이 난다.
 요긴한 말만 한두마디 해라.
 청년 1: 그러구 좀 더 웅얼웅얼 하렴!
 웅웅웅...
 돌쇠: 알았어, 자 어서 숲속으루들 들어가.
 △청년들 숲속으로 들어간다.
 돌쇠: 만춘아, 낚시를 가졌니?
 만춘: (꺼내보이며)이거 댕개 된다.
 돌쇠: 이거면 돼지다리래두 꺾올리겠다. 자, 어서 나무우에 올라가라. 잘 내려다보다가 내가 꺾놓으면 잡아당겨라.
 만춘: 그래.
 청년 1: 야, 저기 온다 와.
 돌쇠: 자 빨리 나무우로 올라가거라.
 △돌쇠 곰가죽을 뒤집어쓰고 성황당안으로 들어가 한쪽모서리에 몸을 숨긴다.
 △만춘 나무뒤로 돌아간다.
 △무대 잠시 조용한 가운데 풀벌레소리만 들린다.
 박씨 함지에 돼지잡은것을 이고 들어온다.
 박씨는 제물을 올려놓고 성황당앞에 펄쩍 었디어 우는 소리로 빈다.
 박씨: 령험하고 령험하신 신령님은 굶어살피시사, 이 불쌍한 어미딸을 돌봐주옵소서.
 우리 복순이가 에미 팔자를 물려받았더니 제발 그 액을 벗겨주옵소. 그러구 액땀하기 위해 우리 복순이를 한해겨울 고을 탁씨네 집에 보내려 하오니 신령님이 보호하사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앗구 무사히 돌아와 림만춘 이라는 총가와 잔치를 하구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게 하여주옵소서...
 △박씨 한참 비는데 곰가죽을 뒤집어쓴 돌쇠가 쑥 나온다.
 돌쇠: 복순이 어머니!
 △절을 하던 박씨가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기절을 한다.
 돌쇠: 자 이거! 복순이 어머니!
 △돌쇠 박씨를 혼든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한다.
 △숲속에서 청년 1이 웨친다.
 청년 1: 애, 저기 온다! 와!
 △돌쇠 청년들과 함께 박씨를 안고 성황당뒤로 들어간다.
 △청년 1이 달려나와 돼지고기를 담은 함지를 들고 들어간다.
 청년 1: 이진 똥다가 만춘의 큰상에 놔야겠다.
 △무대 다시 잠시 조용해진다.
 △함지를 인 지주처와 큰무당이 올라온다.
 △까마귀가 까옥거리며 날아든다.
 △큰무당 《웨》하고 침을 뱉는다.
 지주처: 아이구 숨차라, 고 구장년이 먼저 왔다

했더니 에이구 똥다!
 △큰무당은 먼저 성황당앞에 가서 빈다.
 큰무당: 령험하신 신령님은 굶어살피시사 오늘 저녁 만복을 내려주옵소서!
 지주처: 만복을 내려주옵소서! (같이 빌고나서)
 아니 복순이 에미라는건 먼저 온다구 했는데 왜 아직도 안왔나?
 큰무당: 그러게말입니다. 아까 가보니 복순인가 한 처녀는 래일아침 입구 떠날 속적삼을 하구있던데...
 지주처: 그 구장녀렌네라는것두 오늘저녁 제사를 지낸다더니 제가 데리구 올려구 복순이 에미를 붙잡아둔게 아닌가?
 큰무당: 하긴 그러지 모르겠습다.
 지주처: 하, 이거 그러면 큰일인데... 어쩐다?
 큰무당: 내 좀 내려가 보구 오겠습다.
 지주처: 그러시우.
 △큰무당 내려간다.
 지주처: 그런데 령감은 왜 아직도 안오나, 이젠 몸이 나가지구 숨이 차서 헉헉하니...
 △지주처 제물을 뜯어 여기저기 던진다.
 지주처: 교수레! 교수레!
 △뒤에서 인기척이 난다. 구장과 그의 처가 나타난다.
 지주처: 아이구, 어서 오우. 고 구장인 십장인지 한것들이 오기전에 우리가 먼저 제사를 지냈시다.
 △지주처는 구장처가 뒤에 와 선줄도 모르구 제물을 차리며 떠든다.
 지주처: 제까짓것들이 암만 그래봐야 우릴 당해내?
 구장처: 아 그 맥을 어떻게 당하겠소?
 △지주처 그제서야 돌아보고 아연해진다.
 구장처: 그런데 아무리 날구 긴대두 이럴 법이 어디 있소. 제상을 이렇게 혼자 다 차지하면 어찌자구 이래?
 지주처: 아, 남이 먼저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왜 뛰어들어가지구 이래?
 구장: 아, 같이 하면 되지 앗나? 내 원, 너자들이 란...
 지주처: 너자들이 어쨌단말이요? 점잖은 사내가 돼서 너편네 따라 성황당에 오셨수다그러.
 구장: 무서워서서 길동무 해주려 왔소.
 △그러는 사이에 구장처는 지주처가 차려놓은 제물들을 밀어놓고 자기가 가져온 제물들을 차려놓는다.
 △그것을 본 지주처는 달려가 구장처를 밀어던지고 제물들도 밀어치운다.
 지주처: 오긴 누가 먼저 왔게 이래?
 △불의에 타격을 받은 구장처가 엉덩방아를 찧는다. 구장처 벌떡 일어나 지주처의 멱살을 잡는다.

구장처: 야, 이년이 사람친다.
지주처: 치지 앓구, 너같은건 열개 치구두 몸살두 안하겠다.
△지주처가 다시 구장처를 밀어던지니 구장처는 또다시 나가자빠진다.
구장: 아, 말루는 못해서 손찌검인가? 손찌검이?
△구장이 지주처의 팔목을 잡는다.
지주처: 누구 손목을 잡아? 남의 녀편네 손목을 함부루 잡아?
△지주처 손목을 뿌리치고 구장의 앞가슴을 꿰뚫어박는다.
구장: 이년이 이게 버릇없이!
△구장이 지주처를 탁 밀친다.
△지주처가 나가넘어진다.
△지주가 올라오다 그것을 본다.
△구장처가 지주처를 깔고앉는다.
구장처: 이년 너 오늘저녁 나한테 죽어봐라!
△지주가 번개같이 뛰어들며 머리로 구장의 뒀잔 등을 받아넘긴다.
지주: 이년놈들, 남의 녀편네를 쳐?
△구장은 엉덩방아를 찧는다.
지주: 이래봐두 내가 한때는 머리루 박달목침을 세길씩 받아올리던 사람이다.
△지주가 자기 머리를 탁탁 치고 두루마기를 벗어던지며 팔소매를 걷는다.
우뢰가 가까이에서 울며 번개가 번쩍인다.
넘어졌던 구장이 일어나서 팔을 부르걸으며 다가든다.
구장: 야, 내가 이래봐두 검도초단에 유도팔굽인 줄 모르겠니?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한다.
△지주에게 다가간 구장이 지주의 멱살을 잡아 뺏다꽂는다. 지주 《아이쿠!》하고 비명을 지르며 나가넘어진다.
구장: 이놈! 주먹이란 말만 들었지 맛은 못보았겠구나.
△한편에서는 지주처가 구장처를 깔고앉아 머리끄덩이를 쥐어흔들다가 황각쟁이의 비명소리에 벌떡 일어나 구장을 덮친다.
그바람에 구장이 《아이쿠!》소리를 지르며 나가넘어진다. 자빠졌던 지주가 일어나 구장을 타고앉는다.
지주: 이놈! 내가 93.7 키로짜린줄 모르니? 어디 견디여봐라!
△지주 육중한 몸으로 구장을 타고앉아 흥그렁거린다.
지주처: 옹수다! 망작 지질듯 꼭 눌러놓구있수.
△지주처는 제물을 차리기 시작한다.
지주: 이까짓놈 이제야 바위돌에 깔리운 쥐새끼지 견디여봐라.
△지주 계속 궁둥이를 들썩들썩 하며 구장을 내려누른다.

△구장이 밑에서 신음소리를 낸다.
지주처는 부리나케 돼지대거리며 땀덩이같은것을 제단우에 차려놓는다.
지주처: 꺾 누르구있어요. 꺾! 뺨이 툭 터지게, 자복순이 에미가 왜 안오나? 큰무당은 어디가?
△구장처가 몽둥이를 들고 와 지주의 대가리를 후려친다.
△지주가 《아이쿠》소리를 지르며 나가넘어진다.
△지주처 제물을 차리다 말고 구장처에게 달려든다. 구장이 일어나 지주를 타고앉아 다시 주먹을 댈인다.
구장처: 여보, 그까짓놈 놔두구 이년을 좀 붙잡아요. 제사부터 우리가 먼저 지내야겠어요.
△큰무당이 뛰어들어 이 광경을 보고 아연해한다.
큰무당: 이러지들 맙시다. 이러지들 말아요. 이러면 신령님이 노해서 천벌을 받습니다.
△큰무당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며 뜯어말리나 지주와 구장은 란투를 계속한다. 이러는 사이에 성황당에서 손이 나와 돼지다리가 뚱뚱 공중으로 떠오른다. 한참 싸우다 그것을 본 구장처가 소리를 지른다.
구장처: 여보, 저게 뭐요?!
△모두 공중으로 올라가는 돼지다리를 본다.
△부엉이가 날아와 성황당지붕우에 앉는다.
큰무당: 신령님이 내리십니다!
지주처: 처건 우리 돼지다리다! 신령님, 감음하옵소서!
큰무당: 신령님이 내리십니다! 신령님이 내리세요! 오호네야!
△큰무당이 소리를 지른다.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번개가 번쩍하며 우뢰가 우르릉 쿵 한다.
여우소리같은것이 더욱 높아진다.
일동: 으악!
△모두 기절초풍하여 서로 녀편네들을 껴안는데 엇갈려 껴안았다.
지주처: 여보 령감!
구장: 여보 꺾 붙잡소.
△구장의 품에 안겼던 지주처가 가만 보니 구장이 《아니 이게!》하고 몸을 뒹 뺏으며 구장을 뺨을 철썩 친다.
지주: 여보, 로친네!
구장처: 예.
△지주의 품에 안겼던 구장처가 지주인줄 알자 고무신짝으로 지주의 대가리를 때린다.
큰무당: 신령님이 내렸습니다. 오호네야!
지주처: 여보, 령감 어서 와서 빌어요!
△그들은 제각기 짝을 지어 두손들을 싹싹 비비며 뺨어엿디여 절을 한다.
지주처: 굽어살피소서, 선돌마을의 황지주 황갑정 이네가 올리는것이옵시다. 모든 복은 저희들

에게 내려주옵소서.
 △동시에 구장처가 같은 소리를 한다.
 구장처: 굶어살피소서! 모든 복은 저희들에게 내려주옵소서! 면장도 우리를 시키고...
 지주: 면장도 나를 시켜주고 성황터밭도 우리지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구장: 면장도 나를 시켜주고 성황터밭도 국유지로 하여 내것이 되도록 하여주옵소서.
 △년놈들이 서로 손을 비비며 절을 하는 가운데 무대 회전하면 성황당뒤에서 박씨가 뛰어나 가려는것을 청년들이 억지로 잡아끈다.
 △결에 청년 1이 서서 입에 손을 대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 성황당앞에서 구장, 지주년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복순이를 우리 손으로 군수네 집에 가게 하여주옵소서.
 (소리)우리 손으루 가게 하여주옵소서.
 박씨: 아니 저 년놈들이?...
 △박씨가 다시 나가려는것을 청년 1이 붙잡는다.
 △우뢰소리가 우르릉하고 지나간다.
 △돌쇠가 향아리에 입을 대고 소리를 내다.
 돌쇠: 죄-를-고-해-라!
 고-해-라!
 △돌쇠의 소리를 타고 다시 무대 회전하면 성황당앞.
 구장: 뭐? 고해라?
 큰무당: 모두 제가 지은 죄를 고하라는 소립니다. 어서 죄들을 고하시우.
 지주처: 당신이 먼저 하우.
 △뢰성벽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돌쇠가 향아리에 대고 하는 소리가 웅얼웅얼 들려온다.
 소리: 고-해-라!
 △까마귀들이 더욱 소란하게 날아설렌다.
 △향아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계속된다.
 소리: 죄-를-고-해-라!
 △뢰성벽력이 갑자기 높아지며 온 세상을 뒤엎을 듯 우르릉 광 번쩍한다. 모두 황겁하여 벌벌 떨며 저마다 성황당앞에 나와 죄를 고한다.
 지주처: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큰무당이 점을 쳐주겠다구 해서...
 큰무당: 신령님, 아니올시다. 황지주네가 금가락지를 주며 거짓점을 치라구 하여서... 이년이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구장처: 예, 복순이를 군수첩으로 보내자구 처음 말을 한건 저입니다.
 지주: 예 저두 그랬습니다.
 소리: 또-있-지?
 구장: 예, 마을청년들을 공산당으루 몰아 경찰에

잡아준건 바로 저올시다.
 소리: 이-년-놈-들!
 △뢰성벽력이 더욱 사납다.
 △모두 손을 들어 짹짹 비비며 머리를 조아린다.
 지주처: 신령님, 한번만 용서해주시우.
 구장: 신령님, 한번만 살려주시우.
 구장처: 죽을 죄루 잘못했습니다.
 지주: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당안에서 돌쇠가 딱딱을 들어 뿔어엿던 지주의 머리를 친다.
 △지주 뒤로 벌렁 나가넘어진다.
 지주처: 여보 령감! 정신차려요. 여보 령감!
 △지주처 물을 입에 물어 지주의 얼굴에 확 뿌린다. 지주 깨어나며 눈을 비빈다.
 지주: 여보, 도대체 여기가 어디요? 지옥이요, 극락세계요?
 지주처: 성황당앞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구불구불한 통순대가 구장의 목덜미에 떨어진다. 구장이 그것을 잡아보다가 《으악! 구렁이다!》하고 소리를 지른다.
 구장처: 여보, 구렁이가 아니라 순대예요, 순대! 정신차리라고요, 정신을요.
 구장: 구렁이! 구렁이다! 이히히히! 구렁이!
 △구장이 《구렁이! 구렁이다!》하며 빙빙 돌다가 달려나간다.
 구장처: 아이구, 령감이 미쳤구나! 미쳤어! 미쳤어!
 △구장처 따라나간다.
 △마을쪽에서 《불이야! 황각쟁이네 집에 벼락이 맞았다!》하는 소리가 들리며 불길기 솟아오른다.
 △청년들이 박씨와 함께 성황당뒤에서 달려나온다.
 청년 1: 야, 저거 황각쟁이네 집에 불이 붙는다.
 지주: 아이구, 우리 집에 벼락이 떨어졌구나!
 지주처: 재산이 몽땅 불타누나.
 △지주와 지주처 달려나간다.
 △박씨 큰무당의 멍살을 잡는다.
 박씨: 이 악귀같은년아, 네가 황각쟁이네 돈을 치먹구...
 큰무당: 한번만, 한번만... 한번만 살려주시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씨: 내가 너같은년에게 속아서 우리 딸 신세를 망칠뻔했었구나! 이년!
 돌쇠: 오호네야!
 △큰무당이 허둥지둥 도망쳐나간다.
 박씨: 내가 어리석은 년이됐지! 이런 도깨비당앞에 와서 손이 발이 되두룩... 에이!
 △박씨 몽둥이를 들고 성황당을 후려갈긴다. 성황당이 나가넘어진다.

박씨 더욱 소리를 지르며 성황당 허물어진것을
박산낸다.
박씨: 내가 못산건 사주팔자때문이 아니라 이 도
깨비당을 믿었기때문이다. 도깨비당!
△ 청년들이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며 같이 성
황당을 까부신다.
돌쇠: 잘합니다. 복순이 어머니, 참말 잘합니다.
△음악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대는 종장으로 바뀌
여진다.

종 장

△음악이 계속되는 가운데 배경에는 비개인된 무
지개가 아름답게 비낀 선돌마을전경이 나타
난다.
△복순이 달려온다.
복순: 어머니!...
박씨: 복순아! ... 내가 지주놈과 무당한테 홀려서
네 신세를 망칠뻔했었구나.
△모녀 껴안는다.
△마을사람들이 달려온다.
서로인: 아 글썄 구장놈이 정신이 나가서 강물속
에 떠내려가두만.
청년 3: 《면장! 면장! 구렁이다! 구렁이다!》 하면
서말이에요.
녀인 1: 글썄 그 황각쟁이네는 땅문서랑 돈이랑
꺼내겠다구 불붙는 집에 뛰어들었다가 타죽
구말았어요.
녀인 2: (복순 어머니에게) 아이구 형님, 정말 큰
일날뻔했었수다.
녀인: 어디 복순이 어머니뿐인가요. 우리들두 다
갈았지요 뭐.
△녀인들: 《그렇지 않구요.》 등등...
박씨: 내가 어리석구 미옥했었지. 돌쇠랑 입자네
들, 참말 고맙네!
돌쇠: 뭘요. 내가 아무려면 큰무당만 하겠어요.
△모두 웃는다.
돌쇠: 복순이 어머니가 미신에서 깨어나셨으니

우리두 고맙수다.
△모두 웅성거리는 가운데 돌쇠가 사람들을 향하
여 말한다.
돌쇠: 우리가 잘살려면 말이에요. 없는 귀신을 믿
을게 아니라 제힘을 믿어야 해요.
△군중들이 돌쇠의 말에 주의를 집중한다.
돌쇠: 여러분! 모두다 잠에서 깨어납시다. 이제
여기두 또 야학을 세웁시다. 아는것이 힘이에
요. 모든건 우리들이 어떻게 제구실을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들두 잘살
때가 와요.
서로인: 우리에게두 그럴 날이 꼭 오겠지.
박씨: 자, 내려가서 잔치나 합시다!
돌쇠: 아니 잔치야 명년으루 미루지 않았나요.
△모두 웃는다.
서로인: 만춘이가 좋아하는 한다.
△청년들이 만춘이를 가운데로 밀어낸다.
녀인 2: 복순이는 싫어해서요?
△처녀들이 복순이를 만춘이의 곁으로 밀어낸다.
△모두 웃는다.
돌쇠: 복순이 어머니, 이 좋은 날에 춤이나 한바
탕 추셔야겠수다.
박씨: 내가 춤을 추라면 못출것 같아서?
△음악이 시작되며 돌쇠와 박씨 춤을 추기 시작
한다.
△방창이 들려온다.

얼씨구 좋네 절씨구 좋아 미신에서 깨어났네
십년묵은 학질떼듯 성황당귀신을 툭 떼어버렸네
얼씨구 좋아라 춤도 절로 난다
하느님도 부처님도 사주팔자도 모두 없다네
얼씨구 좋아라 새길을 찾자

△ 일동 어울려 춤을 추며 고조될 때 막이 내린
다.

그날의 격전장을 걸으며

설레이는

밀림의 봄바람이

봄꽃을

품고만 있는것이 아니여라

가까운

백두의 산기슭

눈석이 찬바람이

봄을 늦게 불러온탓도 아니여라

홍단벌

이 벌에 웃고싶어

붉게 핀 철쭉꽃

이 땅에 남고싶어

풍기는 꽃향기

떨기떨기 아름다운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김은

그날의 격전장 한줄 흙에도

투사들의 더운 숨결 어려서인가

깃뽀허 신음하는 3천리에

봄을 안으시고

천리 눈길을 헤치시며

조국땅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

또다시 혁명의 총성을 울리실 때

철쭉꽃 붉게붉게 설레이던 땅

깃뽀허 겨레의 가슴가슴에

해방의 해불, 승리의 신념을 안겨준

여기 백두산기슭

성스러운 혁명의 전적지여

설레이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전법으로

승리의 총성 메아리친

력사의 그 이야기 길이 전하며

철쭉꽃 붉게 핀 홍단벌

아 정녕

그날을 못잊어 피는 꽃

눈석이 찬바람이

철이른 봄꽃을

품고만 있는것이 아니여라

이 땅에 세월은 흘렀어도

5월이면 철쭉꽃 만발하는

여기 혁명의 성지에

찾아온 내 마음

피리라

어버이수령님 받들어

총성다하는 오직 한길우에

투사들의 뜨거운 숨결을 안고

붉게붉게 피리라,홍단벌 붉은 꽃처럼

삼지연기슭에서

박세옥

조국의 푸른 하늘이 그대로 비끼여 삼지연의 물이 이리도 맑을가. 아니면 삼지연의 그 푸른빛이 그대로 어리어 조국의 하늘이 저리도 맑을가.

두손을 모아 물을 뜨면 손가락사이로 맑은 물이 구슬처럼 떨어진다. 고요한 수면위에 알릴듯말듯한 가는 주름이 퍼져간다. 푸른 하늘이 흔들리는듯싶다. 그 물주름을 따라가면 호수의 맞은편 숲엔 생각에 잠긴듯 분비, 가문비들이 울창하게 들어섰고 그사이로 희끗희끗한 붓나무들이 그 뉘를 기다리는듯 조용히 서있다.

여기선 어디서나 흔히 들을수 있는 즐거운 새소리도 들을수 없다. 맑은 호심에 비낀 숲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텅기면 소리가 날듯한 고요가 깃들었다.

아마 그 누가 어디서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를 온 세상이 다 들을것이다.

나는 호반을 따라 걸기 시작했다. 아름다움에 취해서일가 아니면 걸으며 생각하길 좋아하는탓일가. 나도 말할수 없는 알지 못할 그 무엇에 이끌려 걸기 시작했다.

내가 자란곳에도 호수가 있고 푸른 숲이 있다. 나는 그 호반의 숲속을 걸으며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해질무렵이면 붉은 빛으로 물도 타는듯한 그 기슭을 걸으며 우정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생각했다.

하지만 삼지연기슭의 오솔길을 따라 호반을 돌때의 가슴속에 자리잡는 숭엄한 사색과 아름다운 느낌에 어찌 비할수 있으랴. 실로 그 높이와 폭을 내가 이제껏 배우고 알고있는 말로는 다 전할수 없다.

그것을 어떻게 다 표현할수 있으랴. 그것은 울창한 숲사이로 올라다보이는 저 무궁한 하늘과 그 하늘을 담고있는 삼지연과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숲이 간직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삼지연이 지구의 어느 대, 어느 기에 생겼는지 모른다. 아득히 머나먼 태고적에 자리를 잡았으리라. 그러나 그 언제까지만도 삼지연은 세상에서 잊혀져있었다.

다만 이른새벽이면 어미사슴들이 잠이 덜 깬 새끼사슴들을 데리고 물을 마시러 내려왔고 저녁이면 삼지연의 맑은 물에 얼굴을 씻고 하늘가에 별들이 소리없이 돌아올랐다. 때로 고요한 삼지연의 수면을 우뢰가 흔들어깨웠고 사나운 비바람이 지나갈뿐이었다.

바로 그 기슭으로 오고있었다.

숲을 헤치며 오고있었다.

천년 또 천년 쌓인 가랑이를 밟으며 끝없는 발

자욱소리가 가까와오고있었다.

그날의 그 장엄한 대오의 발자욱소리인가, 숲속저 멀리 어디선가 들려오는듯싶어 귀를 기울이는데 고요하던 삼지연이 설레기 시작했다. 그 뉘를 기다리는듯 조용하던 숲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날의 이야기를 삼지연은 나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삼지연의 속삭임을 듣는다.

... 그 발자욱은 처음으로 고요하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가까와오는 그 발자욱소리는 수천년 우리의 기억이었고 간직된 념원이 아니었던가.

숲속의 붉은기가 보이였다.

가시는곳마다 전설을 남기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진군의 대오를 이끄시고 언덕위에 올라서시자 하늘에 널리였던 조각구름마저 사라져버리고 눈부신 해빛이 쏟아졌다.

력사도 시간도 이 순간에는 모두 멈추어섰다.

그이의 위업을 기록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력사가 있는것이고 그이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 있는것이기때문이다.

군모를 벗어드신 장군님께서서는 못가를 둘러보시며 웃으시였다. 조선의 웃음이었다. 일제의 백만대군도 떨게 한 조선의 웃음이었다.

삼지연은 처음 그 맑은 웃음을 간직하고 그이께서 서계신 기슭으로 달려가며 설레였다.

조선아! 조선아! 해방의 해발이 비졌다!

눈비에 씻기고 별에 그을린 조국의 아들딸들이 달려왔다. 릉름한 얼굴, 씩씩한 목소리, 한번 달아오른 그 충신을 식힐 사이없이 기나긴 성상목이 타도록 조국을 부르며 천만산발을 넘나들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삼지연은 그 아들딸들에게 맑은 물밖에 드릴수 없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넘나들수 없다는 철의 국경경비진을 피로 뚫고 조국을 찾아온 아들딸들에게...

감회도 깊으신듯 기슭에 서계시는 장군님께 할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삼지연의 맑은 물을 정히 떠서 올리시였다. 장군님께 서는 맑은 미소를 지으시며 행군의 갈증을 더시였다.

그러시고는 대원들을 정답게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삼지연은 풍치도 좋고 물맛도 좋소.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합시다.》

조국땅을 이렇듯 아끼시고 귀중히 여겨주시는 장군님의 말씀에 설레는 숲도 목이 메어 어깨를 들먹이였다. 조국에 대한 위대한 사랑앞에, 조국해방에 대한 불같은 맹세앞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대부대로써 국내에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각력을 주고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어야 하겠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국을 잊지 않으려 삼지연 기슭에 있는 부석을 주어들고 맑은 물에 씻어 배낭에 간수했다. 행군구령이 내리면 먼저 등에 지고 일어서고 숙영때이면 베개삼아 베고자는 배낭, 전투에 나아갈 때면 총과 함께 드는 배낭, 그 배낭속에 부석을 고이 간직했다. 그것은 조국이였기에, 귀중한 조국이였기에 그 조국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기에 등에 지고 다니고싶어 그 조국의 목소리를 밤마다 듣고싶어 싸움속에 쓰러져도 사랑하는 조국만은 지키고싶어서였으리라.

조국이란 무엇인가!

조국은 무엇이기에 그리도 못잊는것인가!

아름다운 조국에 대하여, 일제의 발굽밑에 짓밟히는 조국에 대하여 대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곁에 있는 한 정치일군을 보시고 조국으로 나온 감회를 담아서 종군기를 하나 써보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정치일군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이국땅에서 하늘을 이불삼고 바위를 베개삼아 싸우다가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을 밟던 때의 감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조국을 무참하게 강탈하는 일제의 죄행에 대하여, 삼지연의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치에 대하여, 이 땅의 맑은 물로 목을 추기고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겠다는 맹세를 다지고 원쑤놈들을 쳐부시는 통쾌한 전투에 대하여 종군기를 쓰면 훌륭한 글이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의 그 깊고도 높으신 뜻을 안은 그 정치일군은 정중히 장군님께 말씀을 올리였다.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 조국으로 진군한 종군기를 꼭 쓰겠습니다.》

항일의 영웅들은 조국의 맑은 물로 다시 목을 추기고 또다시 진군길에 올랐다.

그들이 삼지연기슭에서 행군의 휴식을 한것은 장구한 력사에 비해볼 때 한순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력사의 영원한 순간이었다.

삼지연은 그날의 그 끝없는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들을수록 가슴뜨거운 이야기때문이며 서일가, 진정할길 없는 더운 가슴을 헤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어 목단추를 벗기였다. 그래도 가슴은 도저히 진정되지 않고 뜨겁기만 하였다.

조국이 가장 어렵던 그날에 조국에 웃음을 가

져오고 노래를 불러주고 신념을 안겨준 열혈의 청년 항일의 영웅들, 그 모습을 가까이 뵈고싶었다.

이 기슭에 그들은 아직도 서있는듯싶어 어디선가 들려오는듯싶다. 그 발자욱소리, 그 낮익은 력사의 발자욱소리-

삼지연이 설렌다, 그날처럼.

숲이 설렌다, 그날처럼.

아, 그날처럼 서계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장군님께서 그날의 그 대오를 거느리시고 삼지연기슭에 서계시다.

아직도 포연이 스민 군복을 입으시고 거연히 서계시는 젊으신 장군님을 가까이 우러른다.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하였던 그날의 투사들을 여기서 다 뵈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 삼지연기슭에서 한 정치일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던 그 종군기가 여기에 펼쳐졌는가.

한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그리운 조국땅을 바라보며 소리쳐 부르는 유격대원, 압록강을 건너 조국의 산허리에 붉게 핀 진달래를 안고 두불을 비비는 녀대원, 조국의 밤하늘아래 피워올린 우등불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어린 대원, 천년 자란 고목에 구호를 새기는 유격대원들, 한쪽 무릎을 꿇고 삼지연의 맑은 물을 뜨는 녀대원들, 그 맑은 물로 목을 추기고 사령관동지를 따라 원쑤격멸의 싸움터로 내닫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아, 랑랑한 저 진격의 나팔소리, 나팔소리.

삼지연!

아름다운 삼지연!

너의 그 아름다움은 사령관동지를 따라 또다시 조국진군의 길에 오른 항일의 영웅들을 맞기 위해 있었고 너의 그 숭엄함은 이 기슭을 찾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위에 이룩하신 조국해방의 그 위업을 심어 주기 위해 있나니.

삼지연이여, 너의 기슭을 걷고걸어도 끝이 있을가.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의 길우에 남긴 그 이야기 끝이 없듯이 끝이 없으리라.

아득한 백두밀림의 저 한끝 검푸른 하늘에 별이 돈다. 하나 둘 셋... 고산지대의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온다. 나무잎새들에 차거운 이슬이 돈다. 그러나 나는 차거운것도 느끼지 못하고 너의 기슭을 걷고 또 걷는다.

나의 삶에 대하여, 나의 조국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아름다운 풍경

위동훈

령북땅에 발을 들여놓던 첫순간만 해도 미술가 려승호는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한번도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그마한 산간농장을 찾아가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책에서 읽은 인상때문이랄까, 언젠가 취재길에서 후더분한 려북사람을 만나 들은바 있는 그 고장의 흥미있는 토막지식때문이랄까 이번에 그는 풍경화 전람회에 내놓을 미술작품을 수립 우거진 밀림이 아니면 벌목공들의 생활이 랑만적으로 펼쳐지는 토장으로 점찍어놓고 여태 그려보지 못한 자기의 색다른 풍경화, 앞으로 출품하게 되리라 믿어마지 않는 《령북땅풍경》에 마음이 썩여 있었다.

그런데 애초의 현지취재로정을 려북의 수수한 처녀가 쉽사리 변경시키리라고는 그자신 예견치 못한 일이었다.

이름난 상덕림산사업소로 가기 위해 려북땅의 한적한 철도역에 내린 려승호는 때아닌 장마비에 맞닥들어 저으기 실망한 기색으로 역홀에 서있었다.

령밀의 기후와는 판관으로 여기서는 여름을 벗지 않은 계절인데도 마가을날씨처럼 썰렁했고 게다가 비까지 내려 몹시 스산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때를 잘못 골랐군.)

읍산해보이는 산골짜기에서 짐승의 울부짖음소리를 내며 빠져나온 세찬 바람이 희속희속한 그의 머리칼을 멋대로 헝클고 지나갔다. 주름진 얼굴에 선득거리는 비발이 후두둑 뿌려친다. 해는 아직 있으려만 거뭇한 산들이 삼켜버려 침침한 저녁풍경만을 보여줄뿐이다.

몇안되는 승객을 내리우고 태운 기차가 목갈린 기적소리를 협착한 골안에 가득 채우고나서 우우- 차바퀴의 여운을 길게 달고 어스레한 비발속으로 사라져갔다. 산촌의 역은 다시 한적해졌다.

그것이 불만인듯 갑자기 하늘에서 《짹 파르릉!》 하는 요란한 우뢰소리가 터진다. 첩첩 솟은 산밭을 타고 《꾸르르릉, 꾸르르릉...》 매아리쳐가는 소리가 무시무시한 불호령갈기도 했다.

(헛참, 일이 공교롭게 됐는걸. 인제 돌아설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음의 동요를 건잡지 못한채 비를 맞으며 세멘트포장을 한 역홀에 서있던 려승호는 습관처럼 어깨에 걸친 화판을 한번 추스르고나서 표반을

곳으로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었다. 날도 저물어나니 이곳 려관에서 하루밤 묵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상덕림산사업소의 토장이나 새 벌구로 찾아가자면 또 뺄스를 타든지 림철기관차를 타든지 해야 했다.

이때 마지막 손님인 곤색양복을 입은 처녀가 한손에 큼직한 트렁크를 들고 표반는곳으로 걸어 오고있었다. 뒤를 돌아다보던 려승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한쪽어깨가 기울어진걸 보니 트렁크가 어지간히 무거운것 같았다.

네정거장앞에서 열차에 올라 그의 맞은편좌석에 앉아온 처녀였다.

기차에 오른 처녀는 려승호의 앞에 자리를 정하자 큼직한 트렁크를 조심스레 발치에 내려놓고 주름치마자락을 감싸며 살며시 앉았다. 허리가 잘룩한 곤색양복의 목깃속에 나이론수건을 말끔히 감쳐두른 처녀의 길쭉한 얼굴에는 어렴풋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유순해보이나 총기로 빛나는 눈이며 가볍게 다물린 섬세한 입술이며 조용한 몸가짐이 어딘가모르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매력있는 처녀였다.

덜컹거리는 규칙적인 차바퀴소리와 열차의 고르로운 진동에 취하는지 처녀는 졸음 실린 눈시울을 무겁게 내려깔군했다.

《잠이 밀린 모양이구만. 동문 어디까지 가요?》

려승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묻는 말에 처녀는 《룡문역까지 가요.》 하고 나직이 대답했다.

《깨워줄테니 맘놓구 눈을 좀 붙이요. 나두 거기서 내릴 사람이니.》

《고마와요. 그럼 실례하겠어요.》

처녀는 창턱에 소설책을 펴놓고 보더니 굵술굽슬한 머리를 차벽에 기대며 곧 잠들어버리었다.

룡문역에 이르자 려승호는 약속한대로 처녀를 깨웠다. 언뜻 비내리는 차창밖을 내다본 처녀는 가방에서 보라색 비닐비옷을 꺼내더니 서둘러 트렁크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것을 바라보던 려승호는 별생각없이 먼저 기차에서 내렸던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쪽어깨를 실그리고 힘들게 걸어 나오는 처녀를 보니 려승호는 슬그머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려승호는 얼른 그에게로 다가가 트렁크를 함께

맞들자고 했다.

《아이, 일없어요. 어서 나가세요.》

《이제 어디로 가겠는지 내 짐을 좀 맞들어주지요.》

《전 령을 하나 또 넘어야 해요. 노루덕까지 가야 아니까요.》

《노루덕이요?... 여기서 머우?》

《20 리가량 됩니다.》

렴승호는 돌덩이같이 무거운 트렁크를 맞들고 뺄스정류소쪽으로 걸었다. 정류소에 이르니 비그이지봉을 받친 기둥에 《오늘은 뺄스운행을 못합니다. 노루덕으로 가시는 손님들은 래일 10 시 뺄스를 리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쭉지가 나붙어있었다. 한번 읽고 다시 또 읽어보는 처녀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나왔다.

《정 바쁘지 않다면 래일 갑시다. 나두 그 뺄스를 타야 할가부요.》

《저- 선생님은 평양서 오시는... 미술가선생님 이시지요?》

렴승호의 차림새며 어깨에 걸친 접이식화판과 러행용가방을 찬찬히 여겨보던 처녀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령북땅풍경을 탐내서 왔는데 날씨는 푸대접을 하는것 같소. 허허...》

《여기 자연은 좀 거칠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마만 걸히면 아름다운 풍경을 그릴수 있을거예요. 선생님, 먼길에 피로하시겠는데 오늘은 러관에서 쉬세요. 도와주어서 고마와요. 전 그럼...》

처녀는 인사를 하고 무거운 트렁크를 들었다.

《이 짐을 가지구 비오는 령을 넘겠단말이요?! 날두 곧 어둡겠는데...》

《처음 걷는 길이 아니야요.》

범상히 하는 말이었지만 그 음성이며 얼굴빛에는 초조함이 비껴있었다.

《오늘루 꼭 가야 하우?》

《예, 가야 해요.》

《트렁크가 무거운걸 보니 집에서 날자를 받아하는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요?》

《그런게 아니야요 호오-》

처녀는 수줍게 웃었다.

렴승호는 왜 그런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연약한 처녀를 어둑속에, 그것도 비오는 령길에 혼자 내세우고 어떻게 마음을 놓을수 있겠는가, 도움이 필요하나 그것을 청하지 못하는 가목한 마음을 리해하지 못하는것처럼 우둔하고 몰인정한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 려승호는 러관으로 갈수 없었다.

《이왕 떠난 길이니 함께 령길을 걸어봅시다. 나두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니 미안해할건 없소. 같이 갑시다. 려차에서 동행했으니 산길

도 동행해봅시다.》

선뜻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것이 부끄럽기까지 한 려승호였다..

《선생님이 어떻게...》

《날 늙었다구 너무 팔세하누만, 이래봬두 령길을 한두번만 걸어본 사람이 아니요.》

처녀는 난처해하며 트렁크를 다시 정류소의 나무의자우에 내려놓았다.

《선생님, 어서 러관으로 가세요. 옷이 다 젖는데 ...》

《자, 빨리 떠납시다. 동무 혼자 어떻게 밤중에 령을 넘겠소.》

렴승호가 더욱 완강히 나오자 처녀는 하는수없이 함께 떠나기로 동의했다.

비상한 각오를 다진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긴장감이 스프르 지워지고 처녀의 얼굴엔 안도의 맑은 미소가 피어오르는것이였다.

령길을 걸으며 처녀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려승호는 그가 3 대혁명소기간을 마치고 떠나가던 길이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왜 또다시 농장으로 되돌아오는지 꼭 궁금했다.

《트렁크에 뭐이 들었기에 이렇게 무겁소?》

《건조기에 쓸 부속들이 좀 들어있어요.》

《건조기라니? ...》

《저 사실... 이번 장마에 우리 농장 밭, 보리가 많은 피해를 입을뻔했어요. 수확기에 장마가 겹쳤으니까요. 전 생각다못해 소형곡물건조기를 만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던 일을 깨끗이 마무리짓지 못하고 떠났어요.》

《...?!》

《선생님두 지나간 일을 두고 후회해보신적이 있나요?》

《글쎄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후회라는건 생활에서 빈 공간이 있을때 생기는 법인데 누구에게나 그런 후회는 조금씩 있기 마련이지요, 조금씩... 일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거요.》

《참 훌륭한 말씀이예요. 저두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아름답고 훌륭한 생활에 대한 동경이런듯 처녀의 눈에서 림광같은 광채가 뿜기였다. 려승호는 새로운 포부와 랑만에 가득찬 처녀를 선망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확신있게 말했다.

《행복한 사람이 될거요. 동문 벌써 그렇게 살고 있소.》

《호호호... 제가 실없는 소릴 해가지구...》

처녀는 구질구질 내리는 비에는 아랑곳없이 명랑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우중충한 산들과 굽이굽이 깃을 펴는 무시무시한 검은 장막에 위압감을 느끼고있던 려승호의 좁아진 가슴을 대변

에 넓혀주는것 같았다.

《여긴 산이 이렇게 험해도 범은 나오지 않는답니다. 한번은 밤길을 걷다가 노루를 만난적이 있었어요. 그놈을 범인줄 알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노루란놈은 엉뚱한 장난꾼이야요. 녀자들이 밤길을 걸을 때면 앞잡아보구 놀림을 하려들지요 뭐. 어처구니없이 길앞에 막아서면서... 하지만 인젠 속지 않아요. 노루란놈은 꼭 발소리를 내니까요. 호호호...》

처녀는 평북땅의 자연에 대해서와 이고장 사람들의 풍습이며 북방지대의 농사방법에 대하여 흥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이고장에선 처음 오는 손님들에게 송편을 대접한답니다. 선생님도 노루떡송편을 맛보실수 있을거예요. 한그릇에 꼭 열한개를 놓아준답니다.》

《무슨 수수께끼같구만. 왜 그렇게 하오?》

《이제 알게 될거예요.》

처녀는 능청스레 웃더니 또 다른 말을 꺼냈다.. 《미술가선생님이 오신줄 알면 우리 관리위원장동지가 제일 반가와할거예요.》

《동문 마치고 예언자같소. 허허...》

렴승호는 처녀의 말뜻을 깨쳐보려고 애쓰며 조용히 웃었다.

《관리위원장동지의 딸이 미술대학에서 공부해요. 딸을 몹시 사랑한답니다.》

《그렇소?! ... 내가 동무하구 걷기를 잘한것 같구만.》

괜찮은 길동무였다. 렴승호는 처녀와 함께 떠난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마침내 처녀에게서 령을 넘게 된 사연을 듣게 된 렴승호의 마음은 이상한 흥분으로 설레이기 시작했다...

령밀에서 시작되어 령밀에서 끝나곤하던 장마가 올해에는 기승스레 높고 험한 산들을 기여넘더니 평북땅으로 물려들었다. 평북땅에서 수십년만에 처음보는 세차고 검질긴 장마였다.

우- 우- 갈꺾질하는 태풍이 골바닥과 산기슭을 핏앓고 더기밭들을 비질했다. 뒤따라온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익어가는 밀보리를 사정없이 쓸어눕혔다. 소나기뒤에는 실비가 내리고 하늘이 희뽕히 벗겨질사하다가 다시 소나기가 퍼부었다. 스쳐버릴수 없는 장마였다.

수확기에 뜻하지 않게 덮쳐든 늦장마로 하여 사람들의 얼굴도 하늘처럼 뿌옇게 흐려졌다.

《씩어질놈의 날씨군 제길.》

혁명소조원 윤명옥이와 같이 안골덕의 보리밭을 돌아보던 서준범관리위원장의 투덜대는 소리였다. 단추들이 다 떨어져나간 낡은 방수포비옷을 어깨에 걸치기는 했으나 그의 웃은 물통에 빠졌나온 사람모양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서준범은 비닐뚜껑을 한 자그마한 수첩만은 적

시지 않으려고 겨드랑이에 끼우고 질쩍거리는 밭고랑을 따라 경정경정 걸었다. 그는 비바람에 쓰러진 곡식이 나질 때마다 한참씩 눈가늠해보다가 수첩에 몇글자 적어넣곤했다. 작업반장 허종만이 제출한 장마피해수자를 확인해보는것이다.

《들어갑시다. 돌아보나마난것 같수다. 종만이 그 사람이 어련했을까구요. 걱정 말구 떠나갈 준비나 하우다.》

보리밭고랑을 허둥허둥 넘어다니며 쓰러진 곡식대를 일으켜세우느라 명옥은 대답할 경황이 없었다. 명옥은 곡식을 일으켜세우다가도 흙탕구리가 된 이삭이 눈에 띄면 고랑에 찬 비물로 깨끗이 씻어주었다. 그의 노력은 순간뿐, 마치고도 연약한 처녀의 수고를 장난으로나 대하듯이 횡포한 비바람이 휘익 불어와 세운 곡식을 다시 심술궂게 쓰러뜨리고마는것이였다. 보라색 새 비닐비옷이 그의 몸을 감싸기는 했으나 태질하는 비바람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었다.

작업반의 포전들을 일일이 돌아보고난 명옥의 얼굴은 추위에 퍼렇게 얼어들었다.

《내 군에다 피해수자를 10 프로로 보고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 수자가 몇곱으로 늘어날지 모르겠소. 기막히는 일ियो. 이래서 평북땅농사라는게 <날사리농사>란거우다.》

《피해수자를 벌써 보고했어요?》

《미리 보고해뒀서 나뽕게 있나요.》

《10 프로라면 너무 손실이 크지 않을까요?》

《할수가 있소. 자연의 조환경... 타산하구 타산해서 기껏 줄인 수자지요.》

《저두 물론 그보다 많으면 많지 작지는 않으리라구 생각했어요.》

명옥은 설령대는 보리밭 가장자리에 눈길을 박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우에서두 그만한 피해수자는 리해하는것 같습디다. 더 늘지는 말아야겠는데... 하기가 올해농사가 잘됐으니 피해수자를 제껴농구두 소출은 괜찮을거우다.》

명옥은 아래입술을 꼭 당겨물뿐이였다.

서준범의 말대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정보당 한톤반의 수확을 더 내다보게 되였다. 하지만 앞에는 장마가 놓여있고 당장 비바람의 피해로 10 프로의 알곡을 손실볼수 있었다. 그것은 수십톤의 알곡을 의미하는것이다. 불가피한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자연피해로 쉽사리 넘겨칠수 있겠는가. 곡식의 포기포기 그속에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이 스며배있는것인가. 명옥은 가슴이 아릿했다. 더우기 자연의 힘앞에 굴복하여 피해수자나 확정하는것으로써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관리위원장을 발견하는것이 불만스러웠다. 소조기간이 끝나 새 배치지로 떠나야 할 몸인데 기뻐야

할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질뿐이었다.
《관리위원장동지, 이런 때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글쎄... 넘어진 곡식을 세워줘서 땅냄새를 맡지 않게 하구장마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수밖에 별도리가 있나요. 익은 낱알을 당장 베어들일순 없구. 언젠가 한번은 젖은 곡식을 베어들었다가 싹튀우구 썩이구 정말 곤경을 치뤘수다.》

《곡식을 말리울 대책을 빨리 세워야겠어요.》

명옥은 쓰러진 보리를 측은히 바라보며 근심에 싸여 말했다.

《대책을 세웁시다. 세워야지요.》

심드렁히 응수하고나서 서준범은 의미있는 눈길로 명옥을 바라보았다.

《인계사업이랑은 다했겠지요?》

《예, 인차 떠나게 될것 같아요.》

명옥은 내키지 않은듯 대답했다. 그는 한해농사를 깨끗이 마무리짓고 떠나지 못하는것이 아쉬웠다.

《우리고장에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지요. 일년치구 한절반은 눈과 추위속에 쪼들려 사는곳이니 신역이 여간만 된것이었다구요. 난 참에 소조원동무가 꽤 견뎌낼가 하구 우려를 했됐수다. 얼굴이 한꺼풀 벗겨지기까지 했으니 이제 가선 옛말할거우다. 허 허 허 ...》

명옥은 큰 공장, 기업소들과 벌방농촌들에 파견되어 이름을 낸 동창생들의 모습이 문득 눈앞에 얼른거렸다. 자기의 소조생활기간도 결코 그들 못지않게 보람있는것이였음을 굳이롭게 회고할수 있는 지나간 나날들이 떠오른다. 농사를 모르는 공학기사가 산간농촌에서 일을 제대로 해낼가 하고 근심이 없지 않았지만 비료살포기와 비닐박막세척기로부터 맥류탈곡기의 개조에 이르기까지 비록 새로운것은 아니지만 농장의 기계화토대를 추켜세운 투쟁의 보람이 가슴속에 귀중히 간직되어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공지와 보람이 10 프로라는 검은 수자에 눌리워 지금 너무도 보잘것 없는것으로 느껴질뿐이었다.

피해입은 보리밭을 돌아보던 그날부터 건조기설계에 달라붙은 명옥은 한주일만에 끝내 능률높은 소형건조기를 세워놓을수 있었다. 시름겨웠던 마음이 개운히 풀리었다. 정든 고장, 다정한 령복사람들의 뜨거운 바래움속에 떠나는 명옥의 가슴은 구질은 날씨였지만 오히려 행복감으로 하여 시원하고 맑았다.

고르로운 차바퀴소리가 이제 기본배치지에서 시작하게 될 새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욕망과 희망을 충동질하며 랑만의 세계에로 그를 이끌었다.

령복의 험한 산발들이 아슴푸레한 룼판만 보이다가 운무속에 가물가물 사라져버릴 때 명옥의

눈앞에는 동구밖 멀리까지 따라나오며 눈물이 글썽하여 손을 흔들어주던 소박한 얼굴들이 못견디도록 그림계 안겨왔다.

(인제 다시 올 기회가 또 있을까?)

누르끄레 익어가는 논벌들이 차창밖에서 천천히 맴돌이를 했다. 회회 스쳐가는 전주대들이 한페지 한페지 회억의 갈피를 번져주는가싶다. 멀리 도시의 건물들과 공장지구가 안겨왔다. 하지만 한정거장 두정거장 멀어질수록 명옥의 마음은 령복땅으로, 책상물림 도시처녀의 의지를 모질게도 시험하던 눈보라 사나운 거칠은 고장으로 자꾸자꾸 다가가고있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했는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것, 더 할수 있는 일을 해놓지 못하고 떠나지는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한번 소조기간을 돌이켜보았다.

건조기앞에서 폭포쳐쏟아지는 따가운 낱알을 한줌씩 쥐고 불에 대보기도 하고 비벼도 보면서 기뻐하던 마지막기간의 인상들이 생생히 밝혀왔다. 키를 든 녀인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건조된 낱알을 식히느라(식히지 않은 낱알을 보관하면 부패변질되기때문이다.) 키춤을 춘다. 즐거운 로동이였다. 하지만 언뜻 떠오르는 다른 생각이 명옥의 얼굴에 그늘을 던지였다.

(그것마저 기계화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가... 하루종일 그렇게 춤이 나올가...)

명옥은 점점 안절부절해지는 마음으로 자기 랑심을 저울질해보았다. 명옥은 정든 땅에 아쉬움과 후회를 남겨둔채 떠나가버릴수 없는 자신을 느끼였다.

이리하여 기차에서 내린 명옥은 령각장치의 부속을 만드느라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하루밤을 꼬박 밝히고 다시 령복땅으로 되돌아섰던것이 다...

령승호에게는 명옥이와 함께 걷는 이 령길이 류달리 즐겁고 뜻깊은 걸음이였다. 지금 와서는 온몸을 적시는 선득선득한 비도 왜선지 신선하게만 느껴질뿐이다. 연약해보이나 내부의 힘과 의지가 아름답게 비쳐나는 처녀소조원을 존경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던 령승호는 비로소 생각난듯 말하였다.

《명옥동무, 난 목적지를 좀 변경시켜야겠소. 동무네 노루덕협동농장부터 들리겠소. 거기서 동무가 어떻게 장마를 이겼는지 꼭 보고가겠소.》

《호호호... 별말씀을 다 하세요. 전 이것저것 여러가지 건조기에서 본을 따서 자그마하게 모방설계를 했을뿐이에요. 신통한게 못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정말 우리 농장에 가신다면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볼수 있을거예요. 여기가 얼핏 보면

산밖에 없을것 같지만 깊은 골안으로 들어가면 훌륭한 경치가 나저요. 거친 맑은 시내물도 있고 호수도 있고 단풍잎속에 흘러 떨어지는 폭포까지 있어요. 그 폭포는 여름에만 생기는데 비선폭포라고 해요. 5 월에 들어서야 진짜 봄을 맞는 고장이지만 꽃피는 계절엔 정말 굉장하답니다. 세상 꽃들이 여기 다 모여드는것 같애요.》

비바람속을 걷고있는 렬승호에게는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방불히 보여오는듯싶었다. 아마도 렬북땅에 대한 명옥의 애착심이 가슴에 미치는때 문일것이라.

렬승호는 갑자기 눈뿌리가 시큰해지는 바람에 머리를 들었다. 번개의 섬광이 하늘가득 뿌려지고 뒤이어 《짜르릉》 하는 퇴성이 산부리를 흔든다. 번개발이 순간적으로 검은 장막을 갈기갈기 찢으며 산마루우에 내려 박히는 광경은 장엄하면서도 어딘가 무시무시한데가 있었다.

노하여 우르릉대던 산악이 비에 놀리워 인차 공순해졌다. 위엄을 뿜는것은 소연한 비소리뿐이었다.

(이 연약한 처녀가 어떻게 검질긴 장마를 이겨낼 생각을 했을까?)

어느덧 노루덕마을이 가까와오고있었다. 멀리에 반디불같은것이 가물거리더니 별이 돈듯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불빛이 점점 가까와짐에 따라 몸도 마음도 한결 누긋이 더워지는것 같았다. 비발이 성기여지면서 계곡을 꿰지르는 시내물 소리가 더욱 요란스러워졌다. 은은히 들려오는 고성기소리, 개짖는 소리가 마음속에 푸근히 잦아든다.

아담한 문화주택마을이 나타난다. 동기와를 이어 거부기잔등같은 지붕들, 창고로 지은듯한 키낮은 귀틀집들이 렬북땅의 향토적정서를 자아낸다.

렬승호는 미술가의 섬세하고도 환상적인 눈으로 마을의 풍경을 그려보면서 명옥의 뒤를 따라 관리위원회로 향했다. 살림집모양의 수수한 건물이었다.

명옥이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을 마주하고 무슨 책임가를 뒤적이던 사람이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굳어져버린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의 빛이 엷어져 떠오르는것이었다.

《아니 소조원동무가 어떻게?! ...》

자그마한 키에 어깨폭이 넓고 후더분하게 생긴 그 사람이 책상을 밀어젖힐듯이 덤비며 일어선다. 거못한 얼굴에서 술많은 왼쪽 눈썹이 분주스레 키질을 한다. 순간 렬승호도 반가움을 숨기지 못했다. 언젠가 취재길에서 만난적이 있던 그 후더분한 렬북사람이 분명했다. 그는 자기네 농사를 《석달반농사》라 했었다. 《제주도 3 다》(말과

바람이 많고 너자들이 많다는 뜻)가 있듯이 《렬북 3 다》도 있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눈, 바람, 산이라 했었다. 북방의 거칠은 자연에 대해서까지 그는 은근한 자랑과 애착심을 가지고 말했었다. 명옥은 차돌같이 흰 이를 빠끔히 드러내며 그와 눈인사를 했다.

《관리위원장동지 또 왔어요.》

《어떻게 된 일어요? 혹시 뭘 잊어버린거라도 있소?》

키작은 서준범관리위원장의 묻는 말에 명옥은 그저 사물사물 웃기만 했다.

《참, 인사하세요. 평양에서 오시는 미술가선생이예요. 이고장 풍경을 그리겠다고 찾아오셨어요.》

렬승호는 반색을 하는 서준범과 악수를 하였다.

《저- 날 모르시겠습니까? 2 년전엔가 동해안을 다녀온 일이 있지요?》

《아, 내 이 정신 왔나, 어쩐지 낮이 익다하면서 두 하하하... 먼길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와서 앉으시우.》

서준범은 렬승호의 손을 덥석 감싸쥐고 사무실 복판에 놓여있는 화독걸로 끌었다. 때이른 추위와 장마로 하여 화독신세를 놓지 못하는것 같았다.

《별써 잘 아는 사이구만요. 그런걸 호호호...》

《여기 와서 우선 몸을 녹이우.》

《일없어요. 합숙에 가겠어요.》

명옥이 사무실에서 나간 다음 렬승호는 자기가 여기로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아니 그럼... 우리 소조원동무가 건조기때문에 그 먼데까지 갔다가 되돌아섰단말이요?!》

서준범의 눈썹꼬리가 한번 우로 들리더니 그 자리에 굳어지는것이였다. 문득 그의 얼굴에 심한 빛이 어리었다.

《이게 다 내탓이지요. 량심이 깨끗치 못해가지고 무얼 하나 푹푹히 보았소.》

서준범의 얼굴에 자책과 오뇌의 빛이 더욱 짙어 갔다.

《우리 소조원동무가 건조기만을 고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우.》

렬승호는 서준범에게서 건조기를 만들던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가슴뜨겁게 들을수 있었다...

명옥이와 같이 피해임은 받들을 돌아본 그날 저녁 서준범은 작업반장들을 사무실로 불렀다.

키가 큰 종만반장이 맨 나중에 느릿느릿 문턱을 넘어서자 심기가 몹시 뒤틀린 서준범은 웅 소리를 질렀다.

《지금이 어느때게 팔자걸음인가. 정신이 있소 없소? 없디면 코당을데서 이제야 와? 비바람에

곡식이 넘어지는데 쉼표가 좋거든.》

피해수자를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대책을 세우는 협의회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서준범은 각 작업반에서 보고해온 수자가 정확한 것인지 따지고들었다. 그런 다음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생각한게 있으면 제기하라고 했다.

《별수 있습니까. 해벌신세 지긴 통 글렀는데 넘어진 곡식부터 끌어들여 말려야지요.》

종만이 뜨직뜨직 건네는 말이였다.

《거야 죽지 않으면 살 소리지. 어떻게 말리우겠는지 좀 궁리해봤나말요.》

《온기라 온긴 다 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선 아래방을 내구 거기다 곡식을 말리자구 토론했습니다.》

《그럼 장관이랑 다 못쓰게 되겠는데...》

다른 작업반장이 뜨아해하자 서준범은 버럭 성을 냈다.

《장관생각할 때요. 곡식이 썩어날판에... 수리분조 야장간두 좀 고치구 불이 잘 안들이는 집은 구들을 수리하구 빨리 손을 써야 하겠소. 이렇게 해서 몇프로쪼م 피해를 덜어야겠단말요.》

서준범은 뭘나무가 많이 들겠으므로 트랙토르들을 모두 토장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구들뜯을 집들을 장악해보고 래일아침에 당장 그 일을 해야겠다고 했다.

이때 사무실문이 조용히 열리며 명옥이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보리이삭이 쥐어져있었다. 거기 모두의 눈길이 쏠리었다.

명옥은 보리이삭을 책상우에 놓으며 근심스레 말했다.

《이것 보십시오. 넘어진 곡식에 벌써 싹이 트고 있어요.》

서준범은 보리이삭을 꼬당겨 몇알 비집어보고 나서 얼굴을 찡그리었다.

《이러단 세운 곡식마저 싹틔우고말겠소. 구들에 말리워두 싹은 틀거구... 우에 제기해서 사료루 넘길수밖에 뽕족한 방법이 나질것 같지 않군.》

명옥은 반장들을 둘러보고나서 또 이런 말을 했다.

《제가 삼일봉기상대에 좀 알아봤는데 장마가 아직 열흘나마 계속되겠대요.》

《열흘이요?!》

서준범은 흠칫하며 눈섭을 콧췌이 폈다. 이제 열흘이면 밀보리가을 적기가 지나간 때이다. 장마가 끝난뒤에라도 곡식이 마를 때를 기다린다는것은 막심한 피해를 상상해야만 했다.

서준범은 주먹으로 찌프린 이마를 고이고 푸릿한 입술을 우물우물 씹었다.

《그래서 사실 토론허게 좀 있어서 왔어요.》

명옥은 지금 형편에서 건조기를 만드는것이 제

일 믿음직한 대책이라고 했다.

《건조기를 만들다니... 우리 힘으로 말이요?》

《예, 만들수 있다고 생각해요.》

《글쎄 건조기가 있으면야 무슨 걱정을 하겠소만.》

건조기의 내막을 잘 알고있는 서준범은 실망한 빛을 지었다. 전문농기계공장에서든 만들기 까다로와하는것을 자그마한 산골농장에서 무슨 수로 만들어낸단말인가, 설사 만든다 해도 몇달이 걸릴지 모를 일이 아닌가. 서준범은 흥심없이 명옥을 쳐다보았다.

《관리위원장동지, 제가 곡물건조에 대한 책들을 좀 보았는데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간단한 건조기를 만들수 있을것 같아요. 건조기만 만들면 장마피해를 막아낼수 있어요.》

《나두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요. 소조원동문 이제 떠나게 될게구 그 기결 누가 만들겠소.》

《제가 만들겠어요. 아직 며칠동안은 시간이 있어요.》

서준범은 명옥의 심정이 고맙기는 하면서도 속으로 도리머리를 저었다. 건조기가 된다 해도 그것은 가을철이 지나간 뒤에나 가능한 일로 생각되었다...

잠시 이야기를 그친 서준범은 화독문을 열고 짹막하게 토막을 낸 장작 몇가치를 던져넣었다.

《히 참, 이야기바람에 내 선생의 젖은 옷 생각을 깜빡 잊었뻔수다. 그럴거없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옷을 갈아입어야겠수다.》

《옷은 벌써 퍼그나 말랐는데요. 이야기를 더 듣고싶습니다.》

《가서 하지요. 저녁전이겠는걸 이야기바람에 그만...》

렴승호는 서준범의 녀가래같은 손에 이끌리다 싶이하며 그의 집으로 갔다.

따뜻한 온돌방도 좋았지만 렴승호에게는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고 극진히 대해주는 이곳 사람들의 후더분한 인품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관리위원장의 집은 명절처럼 술렁이였다. 관리위원장과 무어라 소곤대는것 같더니 그의 안해가 부엌에서 칼도마소리를 냈다. 중학교에 다니는 총각애는 렴승호의 화판을 들고 옷방으로 올라가 연필로 속사한 그림들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송구한 마음으로 집안을 두릿두릿 살펴보던 렴승호는 문득 옷방과 통하는 사이문결에 걸려있는 풍경화에 눈길이 미쳤다. 비교적 생동하게 그린 산천풍경이였다.

멀리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봉우리가 무드러진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있고 물버들이 휘늘어진 자그마한 내가에 탈곡장과 잇닿은 고향의 풍치가 서있었다. 들국화가 곱게 피어난 밭기슭에서

이삭주이한 감자를 한다래끼 멘 소녀가 풍차를 손짓하며 웃고있다. 동생인듯한 사내아이 하나는 자기머리만큼이나 큰 감자알을 들고 헤벌쭙이 웃으며 누나를 쳐다본다. 그너머 멀리로는 붉은 기발을 쫓고 가을걷이를 하는 밀수확기가 보인다. 평복땅의 정서가 안겨오는 그림이었다. 색조의 배합이라든가 소녀애의 표정 등 서툰데가 엿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향토애의 정이 깃들어있는 미술 작품임에 틀림없었다.

렴승호는 액틀유리에 오른 먼지를 손바닥으로 정히 닦았다.

《그걸 뭐 닦습니까.》

서준범이 풍경화를 얼핏 쳐다보고는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그림이 참 좋습니다. 이걸 미술대학에 다니는 딸이 그렸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명옥동무한테서 들었지요.》

《그 애가 중학교때 그린 그림이우다. 대학에 가긴 했는데 미술가재목이 되겠는지 모르겠수다.》

《걱정 마십시오. 훌륭한 미술가가 될겁니다. 딸의 가슴속에 향토애의 정이 깊이 심어져있는것 같은데 그게 중요합니다. 손끝재간만으론 좋은 그림을 그릴수 없습니다.》

《허 허 허...》

서준범은 흡족해하며 큰소리로 웃었다.

서준범은 렴승호와 마주앉아 하던 이야기를 다시 계속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아마 고집이란게 추근 추근 따라다니기마련인지 소조원동무가 건조기를 만들겠다고 애를 쓰고있을 때 난 나대루 제 고집만 세웠지요.》

이튿날 구들을 뜯어놓구 골바닥채를 긁어내는 데 소조원동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색이 그리 좋은것 같지 않더구만요. 자기를 못미더워하는 눈치를 그라고 왜 물랐겠소. 토방에 가려놓은 구들장을 다 날라들이고나서 소조원동무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관리위원장동지, 불이 잘 들이도록 구들을 뜯어고치는건 좋아요. 그런데 곡식을 구들에 말리우는 문제 좀 고려해보자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말리겠나요. 피해수자는 줄이지 못할거예요.>

이러며 건조기의 성능에 대해 간간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 농장 전체 농가마다에 나눠줘서 구들에 열흘동안 말리워야 할 곡식을 건조기로는 하루면 충분히 말리운다는겁니다. 선뜻 믿어지지 않아 덤덤해있으려니 계산자료들을 꺼내보여줍니다. 후에야 안 일이지만 소조원이 이 수치들을 얻기 위해 한보파리나 되는 공책을 써버렸다는걸 알았지요.》

서준범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수리분조 목공실에서는 건조기제작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종만을 비롯한 다섯명의 인원이 명옥이와 함께 건조기제작에 전적으로 달라붙었다.

나무를 켜고 자르는 사람, 자귀로 다듬고 대패질을 하는 사람... 명옥은 도면을 들고다니며 널판에 치수를 써넣기도 하고 도형을 그리기도 했다.

서준범은 아끼던 피대를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작업장으로 찾아왔다. 활기던 작업장에서 그냥 돌아설수 없어 톱을 찾아온 그는 명옥이 표시한대로 널판을 잘랐다.

《관리위원장동무, 건조기가 인차 세워지겠는데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옆에서 대패질을 하던 종만이 즐거운 웃음을 짓고 말했다.

《일이나 하라구. 덤벼치며 먹는 떡이 목에 걸린다는걸 모르나. 전번에 우리 집에서 콩으루 두부를 앓은 일이 있네. 그런데 그놈에게 비지가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나. 뻔한것두 때에 따라선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침하는 일을 넘겨잡구 타산을 세울수야 없지.곡식을 거둬들였다가 싹트구 싹이구 한담에 누가 책임지겠나.》

《밭에서 싹트는건 어떻게구요?》

《그런게 장마피해지... 이거 건조실까지 나무루 만드나?》

《예, 건조실은 오륙십도의 온도만 견디면 된단니까요.》

《허- 모르겠는걸...》

명옥이 이쪽으로 다가오자 서준범은 짐짓 태연한 기색으로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명옥은 언체나와 같이 침착한 태도로 얼굴에 엷은 미소를 짓고 가까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관리위원장동지, 건조긴 개울가의 풍차가 서있던 자리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가 좋다면 그렇게 합시다.》

《아이참, 거긴 기초자리가 있어서 품이 적게 들것 같아 그래요. 또 옆에 탈곡장이 있으니 운반로력도 줄것 같구...》

《허어-누가 반대라두 한다우. 건조길 풍차자리에다 세웁시다.》

서준범은 눈길을 판데 팔며 내치듯 얼른 말했다.

이날 군에 올라갔던 서준범은 늦어서야 농장마을로 돌아오고있었다. 소요하는 비소리, 철썩 쳐절썩 용트림하며 흐르는 시내물소리... 잠자지 않는것은 물소리뿐인것 같았다.

갑자기 개울쪽에서 《텀방!》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물건인지 물위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서있노라니 시내물웃쪽 풍차가 서있던곳에서 사각거리는 삽질소리가 들려왔다.

(누굴가?)

서준범은 그리로 걸음을 옮기었다. 비발 드리운 어둠속을 찬찬히 여겨보니 언뜻거리는 형체가 보였다. 소년같았다. 서준범은 소년을 놀래우지 않으려고 멀찍이서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다. 삽질소리가 푹 멎었다. 서준범은 비웃입은 그 소년이 3대혁명소조원 윤명옥임을 알아보았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우?》

서준범은 명옥을 안심시키며 그 곁으로 가까이 갔다.

《관리위원장동지군요. 지금 군에서 오는길인가요?》

《그렇소. 한데 왜 술한 장정들을 봐두구 이렇게 혼자 나와 일하오?》

《시내물이 갑자기 더 불어났것 같길래 나왔댜어요. 기초자리가 암만해두... 푹을 조금만 더 높이면 될것 같아요.》

《어서 들어가오. 이런다구 될게 안되구 안될게 되구 하겠소. 잠이야 자야 할게 아니요.》

《이제 몇가마니만 쌓으면 돼요.》

《히이- 소조원동무 고집이 여간 아니요. 설마한들 비물이 이 푹을 넘겠소. 내 이십년을 여기서 살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니 마음놓소.》

《지금 저한테 기초자리가 제일 중요하지요 뭐. 이만한 기초를 만들려 해도 덧새품은 들겠으니 까요. 5일간을 앞당기는셈이 아닌가요.》

《소조원동무 계획이 정말 빈틈없구만.》

서준범은 명옥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말없이 삽을 당겨쥐었다. 모래를 푹푹 떠서 가마니에 담았다. 그것을 메고 양복바지에 흙탕물이 묻건말건 침병침병 개울에 들어서서 푹에 쌓았다. 그리고나서 다시 돌아서는 서준범의 마음속에 명옥이에 대한 동정과 함께 허전한것이 자리잡는 것이었다. 건조기를 만들수 있다는것은 그도 알고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다. 장마가 다 지나간 다음에 완성이 된들 별로 의의가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든다.

푹을 한두둑 보강한 다음 명옥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서준범은 은근히 자기 심정을 내비쳤다.

《오늘 군에서 토론이 있었지요. 장마피해를 조사하러 사람을 내려보내겠다고 합디다. 우리가 노력할만큼은 해야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건조기가 제대로 되겠는지 난 자신이 안가누만. 떠나야 할 소조원동무가 우리를 위해 애쓰는 마음이야 내 왜 모르겠소. 그 일이 잘되면 좋겠지만 혹시 뜻대루 안되면 마음이 편하겠소? 나두 그렇

구...》

《관리위원장동지, 왜 그렇게만 생각하셔요. 이젠 저나 관리위원장동지의 량심에 대한 문제예요. 자연피해를 물론 추궁할 사람은 없을거예요. 머리속에 숨어있는 그런 안도감이 우리의 량심을 흐리고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만일 노력하면 될수 있는 일을 해보지도 않고 떠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그것을 두고두고 후회할거예요. 그 빈 구석을 무엇으로 메꾸겠나요.》

명옥의 물기뻐 절절한 음성이었다. 서준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썩이는 시내물소리가 그의 번거로운 마음을 뒤적일뿐이었다.

(과연 내가 량심없는 행동을 하고있는가? 내 머리속에 정말 큰 틈이 생겼단말인가?)

왜 그런지 발걸음이 허청거려졌다....

그날로부터 이틀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누운잠 한번 못자고 애쓴 명옥의 이악한 노력으로 드디어 《소형련속식곡물건조기》라는것이 세워지게 되었다.

서준범은 건조기조립이 끝나갈무렵부터 현장에 나와있었다.

건조기에 첫 불길이 지펴졌다. 희망과 기대의 눈길이 집중된속에 마침내 건조된 낱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을 손바닥에 받아보는 서준범의 얼굴은 밝지 못했다. 건조틀은 괜찮았지만 건조돼나온 낱알은 탄더미에 굴린듯 연기에 그슬려 불품이 없었다. 첫 시운전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원인은 화실에 틈이 많이 생겨난 데 있었다.

명옥은 지체없이 군으로 떠났다. 군철재일용품 공장에서 마그네샤크링카를 얻어오려는 것이었다. 종만이를 비롯한 건조기제작조성원들이 서로 가겠노라 나섰지만 명옥은 자기가 가야만 크링카배합비율을 정할수 있다고 하면서 굳이 만류하였다.

명옥이 크링카가루를 한배낭 지고 재밌음에 령을 넘어왔을 때 서준범은 속으로 은근히 놀라며 커다란 가책을 느끼었다.

(보통 이악하지 않아. 나한테 저게 없거던... 난 아직도 소조원의 뜨거운 마음을 모르고있었지.)

전등불이 환한 작업장에서 다시 두번째시운전을 준비하였다.

명옥은 크링카반죽을 가지고 화실속으로 들어갔다. 화실이 어린아이들이나 겨우 들어가 앉을만큼 좁은데다 내부구조가 복잡하여 설계자인 자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고집했다.

이윽고 명옥은 땀에 뜨고 검댕이가 게발린 얼굴을 화실문밖으로 내밀었다. 명옥이를 정면으로 마주보기가 민망스러워 서준범은 눈길을 땀대로 돌리었다. 왜 그런지 가슴속에서 발은 절구질소리가 쿵쿵 울려나왔다.

《틈사리를 다 메웠어요. 이젠 제대로 될거야요.》

명옥은 종만반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명옥이 문득 자기쪽을 바라보자 서준범은 손과 발을 어디에 건사할지 몰라하며 황황히 눈길을 피했다.

(그래 틈이 있었지. 있어두 큰 틈이... 소조원동무의 말은 아마 나를 두고 한 말일거야.)

서준범은 소조원의 웃는 얼굴(물론 검맹이가 묻었지만)과 환희속에 싸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운전의 성공을 믿을수 있었다. 동시에 불품없는 자기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오는것 같아 피로운 심정을 이길수 없었다.

얼마후 연기에 끄슬린 곡식을 말끔히 거둬내고 건조기속에 다시 젖은 보리쌀을 넣었다. 화실에 불이 지펴졌다. 시간이 좀 흐르자 건조기에서는 흰김이 몽긔몽긔 서려나오기 시작했다. 건조기는 점점 큰숨을 쉬었다. 마치도 숨쉬는 물건은 세상에 제혼자뿐인듯 벌집구멍들마다에서 열정적으로 증기를 내뿜는다.

명옥은 연기처럼 풍기는 김속에 얼굴을 갖다대고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종만동무, 한번 말아보라요. 김속에 혹시 연기가 섞였는지 모르겠어요.》

종만이 그리로 다가가 길쭉한 얼굴을 들이댄다.

건조실 내부온도도 50 도에서 정확히 유지되었다. 명옥이 계산한 수치대로 24 분이 지나자 완전 건조된 보리가 쏟아나오기 시작했다.

《스르륵... 스르륵...》

보리쌀 쏟아져나오는 소리가 귀청을 간질인다.

마른 낱알을 신기한듯이 한줌씩 움켜쥐고 두손으로 비벼도 보고 입에 넣고 지근지근 씹어도 보며 법석 떠드는 사람들, 비에 젖은 낱알을 날라오느라 부산을 피우는 소리... 작업장엔 경사가 났다.

명옥은 종만반장이 떠온 세수물에 얼굴을 씻었다. 두볼이 축가고 눈도 몰라보게 커진것 같았다. 그러나 서준범에게는 지금의 명옥이가 그 어느때보다 아름다와보였다.

서준범은 얼굴이 몹시 축간 명옥을 사랑과 감사의 눈으로 이윽히 바라보다가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명옥동무, 수고 많이 했소. 그새 나를 원망했겠지요.》

《... ...》

《난 동무의 뜨거운 마음을 리해하지 못했댔소.》

서준범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고마와요. 전 사실 안타까웠어요...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한포기의 이삭에 달린 낱알수까지 세여보시며 포기농사를 하라고 간곡히 가르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많은 곡식을 싹틔우고 싹이고서야 무슨 면목이 서겠어요. 하마트면 전 큰 과오를 저지르려했어요. 후날 이일을 두고 후회한들 그제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젠 마음이 놓여요.》

명옥은 만시름을 놓은듯 긴숨을 호- 내쉬었다.

그의 시원스레 큰 눈에서 이슬같은것이 반짝했다. 순간 서준범이도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그는 비로소 혁명소조원의 티없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들여다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혁명소조원,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 이들 명옥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그 무슨 일을 해도 알뜰하고도 훌륭히 할것이다!)

서준범은 자기 마음속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주려고 애쓴 혁명소조원, 먼 후날 뼈아픈 가책속에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도록 제때에 바로잡아 이끌어 준 명옥을 고마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명옥의 얼굴에선 점차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자기 임무를 수행한 기쁨이런듯 그의 눈이며 입, 가름한 얼굴전체에 억제할수 없는 미소가 흘러넘치고있었다. 승리자만이 이렇게 웃을수 있는것이다.

날씨는 여전히 구질거렸다. 찌프린 상을 한 하늘에서 걸레쪽같은 구름이 슬깃슬깃 뒤엉켜돌며 또 한번 소나기를 퍼부어 잡도리를 했다. 그러나 서준범은 소나기가 무섭지 않았다.

《제길 퍼부올테면 퍼부으라지.》

건조기시험작업이 끝난 뒤 명옥이와 함께 마을 앞길을 걸으며 하는 서준범의 말이었다.

《관리위원장동지, 인젠 피해수자를 낮춰도 될것 같아요.》

명옥이 생각깊은 얼굴로 조용히 속삭였다.

《낫습시다. 내 다시 보고하겠소. 우리 농장은 장마피해가 없다고말요.》

《예, 꼭 보고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걷는 명옥의 발길에 물탕이 튀었다. 명옥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꺾꺾이만 걷는다. 그러다 갑자기 몸의 균형을 잃고 비칠했다. 서준범은 깜짝 놀라며 그를 부축해주었다.

《아이 길두...》

명옥은 수줍게 웃었다..

서준범은 명옥이 한절반 잠에 취해 걷고있음을 알았다...

방안에 저녁상이 올라오자 서준범은 서둘러 이야기를 끝마치었다.

어느새 만들었는지 상우에는 여러가지 음식이 쟁겨졌다. 귀밀지집에 기름바른 송편이 꿀종지와

함께 놓이고 령북땅특산인 산마늘무침이며 돌나물김치와 두메고사리볶음이 들어왔다. 안주인의 정성이 피어있는 푸짐한 음식상이었다.

《변변찮은거지만 좀 드시우.》

서준범은 애기조마구만한 송편을 절에 끼워 려 승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언제 이런 송편까지 다 만들었습니까?》

《잡쑤보시우. 이 송편은 몇분 안걸려도 만드는 거우다.》

려승호는 송편이 별미여서 다른 음식에 눈 갈새없이 푹푹 먹어치웠다. 어느틈에 앞에 놓인 송편그릇이 빈것을 보자 려승호는 자기의 식성에 그만 부끄러운 감까지 들었다.

《떡을 좋아하는것 같은데 이 송편은 더 주고싶어도 못주겠수다.》

《지금 먹은것만으로 족한데 멀 또 먹겠습니까.》

《좀 부족하다 할 때 그만두는 음식이지요. 그래 풍습대루 열한개를 놓았으니 나무라지 마시오. 열한개를 넘기면 제맛을 잃고마니까요.》

《허허··?뭘루 만든 음식이기에, 비밀이야 아니겠지요.》

《잡수시면서도 모르시겠소?》

서준범은 재미있는듯 려승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두툼한 입술을 실룩하며 웃었다.

《그게 속이랑두 다 감자루 만든 떡이우다. 여기 사람들이 제고장 망신한다구 침 오는 손님한테는 꼭 열한개를 대접하지요. 더 먹으면 감자내가 나니까요.》

《아하》 그렇됐구만요. 오늘은 명절을 쇠는것 같습니다.》

《그까짓 감자음식 가지구 뭘… 우린 인제 물렸수다.》

《나같은데 물리지 않을것 같은데요.》

《누구나 처음엔 그렇게 말하지요.》

두사람은 즐겁게 웃었다.

이때 갑자기 번개의 섬광같은것이 창유리를 언뜻언뜻 스치였다. 그 섬광은 잠깐씩 간격을 두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융점불빛 이였다.

《가만, 건조기작업장에서 누가 일하고있는게 아니요?》

《예, 그런것 같습니다.》

려승호는 거기 누가 일하고있는지 짐작할수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풍차가 서있던곳, 지금은 소형건조기가 서있는 곳에 이르니 명옥이가 새로 온 남자소조원과 함께 무슨 철관같은것을 용접하고있었다. 눈부신 불꽃, 환히 드러나는 미더운 모습…

뜨거운것이 려승호의 가슴을 지지였다. 그는 여태껏 이렇게 아름다운 화폭을 보지 못한듯싶었다. 명옥의 마음이런듯 밝고 뜨거운 불빛이 어두운 하늘을 밀어 내고있다.

(사람에게는 바로 저것이 중요하다. 눈에 쉽사리 나타나보이지는 않지만 파고들어 관찰해보면 깊디깊은곳에서 반짝이는 마음의 보석이 보이지 않는가!)

미술가의 눈앞에 너무도 방불히 한폭의 그림이 떠오르는것이였다. 그것은 자기가 이 고장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생각했던 령북땅풍경이 아니였다.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풍경이였다. 창작적열정에 휩싸인 려승호의 심장이 쿵쿵 드놀았다. 그는 자기가 그리게 될 미술작품에 대한 확신속에 자신만만한 걸음을 내디뎠다.

《꾸롱 꾸르르릉…》

먼하늘가에서 우뢰가 운다. 하지만 그것은 별써 아무런 힘도 없는 퇴성이였다. 별도 없는 침침한 밤이다. 장마비는 아직 물러가지 않고 언제든 김빠진 공격을 들이댈것이다.

려승호에게는 아름답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지 않아도 좋았다. 그는 별써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있었다.

건조기의 뿜각장치를 훌륭히 완성한 명옥은 날이 채 밝기도전에 림철기관차를 타고 떠나갔다 소박한 바래움속에…

명옥이 그렇게 바빠 서두른것은 새 배치지에 도착해야 할 날자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이었다.

림철기관차가 멀리 산굽이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들어 흔드는 사람들의 눈에 석별의 눈물이 증증 피어올랐다.

려승호의 망막에 어린 명옥의 모습은 오래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이름없는 령북땅의 자그마한 산간농장에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묻어놓고 조용히 떠나가버린 3 대혁명소조원, 비오는 밤의 령길에 없었다면 알지도 못했을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미술가의 머리속 화관을 가득 채우고있었다.

새로운 지향

조일구

1

리남철이는 유순선이 있는 화차조립청년작업반의 반장으로 임명되어왔다. 소꿉시절부터 다정한 사이였고 때로 티격태각하는속에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던 이들은 한작업반에서 일하게 된것이 기쁘기도 했고 한편 남보기에 두렵기도 하였다.

이미 이들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련정이 움터 자라고있었다소꿉시절부터 다정한 사이였고 때로 티격태각하는속에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던 이들은 한작업반에서 일하게 된것이 기쁘기도 했고 한편 남보기에 두렵기도 하였다.

《우리 작업반으로 올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됐소. 나두 바랐던 일이긴 하지만...》

그들은 보드라운 잔디가 주단처럼 깔려있는 보막이강의 동쪽우를 천천히 거닐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이참, 하필 ...》

《허허... 난 못올데요?》

남철이는 어느 사람들 보기가 쑥스럽고 부끄럽다는 심정을 비치는 순선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빙그레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순선동무! 우리가 일하고있는 작업반에서 첫 화차를 생산해냈소. 그때 작업반장을 한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한줄 아오. <일을 잘해서 그때처럼 꼭 어버이수령님을 다시 모셔야 하느니라.>고 하였고. 그런데 동무는 왜 왔느냐구?》

남철이가 짐짓 성을 내자 순선이는 눈길을 아래로 떨구며 방그레 미소를 머금었다. 요즈음 그의 가슴속에는 남철이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여느때없이 크게 자리잡고있었다. 그것은 남철이가 반장이 된 다음부터 화차생산이 쑥 오른다고 하는 못사람의 칭찬을 듣는것으로 인해서였다. 그리하여 순선이는 자기 아버지의 공적도 깃들여있는 본보기작업반이 어떨 가겠느냐면서 은근히 기뻐하고있었다.

강건너편에서는 파아란 물새 한마리가 뻤이뻤이 정다운 소리를 내며 벼랑턱으로 날아오르고있었다. 그들은 뽀뿌라나무의 그림자가 길다랗게 누워있는곳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낚시꾼이 던진 종대를 행여나 하고 바라보다가 다시 발자국을 옮겨디디었다.

《순선동무, 지금처럼 일해가지고 작업반의 명예

를 고수해낼가? 어제도 한대의 수리화차가 생겨났거든.》

《종전에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뭐.》

조립된 화차들중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간혹가다 나타나게 된다. 제품을 넘겨받는 국가검사에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퇴치하게 되는데 그 화차를 두고 수리화차라고 하는것이다. 순선이라도 그렇고 화차조립공들도 수리작업이 화차생산에서 군더더기 잔손질이라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이따금씩 가다 한대씩 생기는데다 또 이제는 만성으로 돼버린 일이어서 거기엔 그닥 신경을 쓰지 않고있었다.

《그렇다고 우리도 수리화차를 그냥 낼수야 없지.》

남철이의 말뜻을 알아차린 순선이는 눈이 둥그레졌다. 무슨 엉뚱한 방법을 내놓고 수리작업을 없앤다고 하다가 작업반을 망치지나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갈마들어서였다

《우리가 스스로 요구성을 높이고 투쟁을 벌인다면 수리화차는 종적을 감출게 아니겠소.》

《지금은 건성건성 일하나요 뭐.》

《아니야, 수리작업은 꼭 없애야 돼.》

순선이는 꼭 다문 남철이의 고집스런 입술을 쳐다보다가 얼굴은 돌리었다. 아까 물새가 날아오른 벼랑턱에서 눈길을 멈춘 그는 불현듯 어린시절의 남철이가 떠올라서 아직도 그 고집이 남아있으면 어쩌나 하고 근심을 하였다.

...남철이와 순선이는 차량공장을 감돌아흐르고있는 보막이강의 기슭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었다.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종다리 지저귀는 따스한 봄이 오면 남철이는 동네아이들을 이끌고 산으로 강변으로 쏘다니였다. 어느날이었다. 남철이는 동심이 충동하는곳으로 길을 떠났다. 저기 저 들쭉날쭉한 산부리에 올라서기만 하면 커다란 제철소가 보일것만 같았다. 자기네가 살고있는 차량공장에 철판을 대주고있는 그곳을 한번 보고싶어졌던 것이다.

남철이를 따라가던 아이들은 얼마를 못가서 지쳐버리고말았다. 자꾸자꾸 가자고만 하는 그에게 질문을 들이댔다.

《남철아, 어디로 자꾸 가니?》

《넌 제철소가 보고싶지 않아?》

《길도 모르면서?》

초롱초롱한 눈들이 남철이의 가무잡잡한 얼굴로 쏘리었다. 몇몇 아이들은 다리가 아픈듯 개버

들가지를 꺾어친채 돌바위에 걸터앉았다.

남철이도 다리뭉이 풀리었다. 그리하여 제철소 지구를 보려고 했던 남철이의 마음은 강가의 소로길에서 중단되고말았다.

그들의 앞에는 벼랑이 있었다. 다리섬을 한 아이들은 시퍼런 물속에 몸을 잠그고있는 가파로운 벼랑의 기묘한 바위에 먼저 오르기내기를 하였다. 처녀애들은 눈을 찔끔거리며 물러섰다. 사내애들중에서 자신있는 아이들만 나섰다. 심판원은 남아있는 아이들모두가 되었다.

남철이를 비롯한 네명의 아이들이 가파로운 벼랑을 뚫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처음 남철이가 맨앞장에 섰다. 그러나 바짝 뒤따르던 아이가 남철이를 떨구어버리었다. 하지만 그 영악하게 생긴 아이는 발을 잘못디디어 잔돌과 함께 주르르 미끄러지고말았다. 숨을 쉰 몰아친 그 아이는 이악스럼게 남철이를 따라오르기 시작하였다.

승패는 둘중에 한명이였다.

아이들은 두패로 나뉘어져 한패는 남철이를 응원하고 다른 한패는 남철이의 상대자를 응원하였다.

기를 쓰고 벼랑으로 오르던 남철이는 나무그루터기를 잡은 순간 그것이 부러지는바람에 벼랑아래로 조금 굴러떨어졌다. 무릎이 터지고 얼굴엔 상처가 생기였다. 그래도 남철이는 멀리 앞서나가는 상대자를 따라잡으려고 벼랑우를 기여올랐다. 이를 악물고 따라갔으나 남철이는 지고말았다. 남철이는 마치도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는것처럼 씩씩대며 노려보았다.

《애, 다시 하자.》

상대방은 물론 아이들 전체가 눈이 둥그래지며 남철이를 쳐다보았다.

《안하겠니? 내기는 세번 해야 돼.》

상대방은 다시 벼랑우에 기여오를 힘이 없었다. 또 애초에 세번 하자는 약속이 없어 더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정말 안하겠니? 그럼 넌 졌다.》

《내가 왜 졌단말이야?》

상대방도 자기가 졌단 말에 발끈해졌다.

《내기는 세번 한단말이야. 그렇지?순선이.》

남철이는 순선이가 자기의 역성을 들어주기를 바랐다.

순선은 그저 잠자코 있었다. 그도 또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어쩌면 또 해야 될듯도싶고 처음에 세번 하자는 약속이 없었으므로 하지 않는것이 정당할듯도 하였다.

순선이가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이에 남철이는 빨리 하자고 상대방을 다시 줄라댔다....

순선은 남철이가 수리작업을 없애겠다고 주장하는것이 마चना 그때 벼랑으로 오르기내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상대방을 조르던 때처럼 고집

을 부리는것 같아서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품에 대한 요구성에도 한도가 있는거예요.》

《아니요. 우린 바늘틈까지라도 다 찾아내서 없애버려야 하오. 그래서 나는 작업반에서 자체검사제도를 세우려고 맘먹었소.》

조립된 화차를 자체검사하여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없게 만들려는 남철이의 결심을 알게된 순선은 경기를 다시 해야 한다면선 편역을 들어주기를 바랐던 그 어린시절처럼 자체검사일을 두고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직장의 간부들과는 합의가 있었어요?》

《직장장동지는 좋은 의견이라고 하더군.》

일부 조립공들은 수리작업을 하찮게 여기면서 생산수자에만 매달려 웬만한 부족점같은것은 스쳐버리기가 일쑤였다. 그 그릇된 관점을 깨버리기 위해서 자체검사제도가 필요하다는것을 느낀 남철이는 늘 속에 품고있던 생각을 어제 직장장에게 제기하였다. 직장장은 남철이를 대견하게 쳐다보더니 새 반장이 다르다고 하면서 찬성하여나섰다. 그리하여 남철이는 자체검사제도를 실시하는데서 있을수 있는 모든 일을 타산해보고 자체검사공으로서 순선을 지목하였다. 불반공인 그가 자기일을 다 하고 자체검사일을 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겠지만 남철이는 순선이가 이 일을 능히 해내리라고 믿고있었다. 아버지와 순선의의 어머니 장선녀를 통해서 남철이는 순선이 아버지의 영웅성을 잘 알고있었다. 전쟁시기에 화차수리보장을 위하여 부속을 싣고 해동고개를 넘어오던 순선의의 아버지는 적기의 기습을 받아 심한 중상을 입게 되었다. 병석에 누워서도 순선의의 아버지는 언제나 화차수리생각뿐이었다. 오늘은 몇대를 수리했고 몇대가 시험에 넘어갔으며 부속은 어느것이 부족한가고 순선의의 어머니가 병시중을 들리고 오는 때면 꼬치꼬치 캐여물곤하였다. 몸을 잘 운신하지 못하는 형편인데도 수리한 화차를 시험하는 기관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공장 정문앞의 철길로 지나갈 때면 자기 몸을 일궈달라고 떼를 썼다. 창문밖으로 지나가든 시험차를 눈여겨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곤하였다. 그런 혁명 과업앞에 충실한 아버지가 일했던 작업반에서 지금은 그 딸이 일하고있지 않는가.

《순선동무, 자체검사제를 강화하는데서는 동무의 방조가 있어야겠소.》

《참, 밀도골도없이... 어떤 방조인지 어서 말씀이나 해보세요.》

직장에서 자체검사제를 승인했다는 말을 듣고 안심을 한 순선은 상긋이 웃었다.

《자체검사공을 동무가 말아해야겠소.》

순선은 한번 눈을 크게 떴다가 내리우고는 알팍한 입술을 본의아니게 비쭉거리였다.,

《제가말이에요? ... 동문 참.》

남철이는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몰라 엉거주춤해서 실췌해진 순선이를 쳐다보다가 허허 웃고는

《미안하오. 그저 친한 동무로 알고… 어쩡소? 자체검사공이 마음에 드오?》

하고 물었다.

《글쎄, 해내겠는지… 저,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별소릴 다 하는군. 작업반을 위한 일인데 뭘 참.》

무점없는 남철이에게 빙그레 웃음을 던지던 순선은 자체검사제가 제대로 은을 내겠는가가 걱정스러워져서 다시 낯색을 흐리었다.

어느덧 대지에는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였다. 늑늑한 강바람이 여기저기에서 가끔씩 울리는 풀벌레의 소리를 싣고왔다. 큰고기를 노리던 낚시군들도 한명두명 줄을 걸어가지고 강가를 떠나고있었다.

남철이는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순선이를 이윽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순선동문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소? 동무가 주저하면 누가 자체검사공일을 맡아나서겠소? 한번 일을 잘해봅시다.》

남철이의 말을 새겨듣던 순선은 부모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작업반의 명예를 더욱 빛내여갈 결심을 안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2

건본으로 될 화차 한대를 조립해놓고 화차품평회를 진행한 남철이가 자체검사제도를 실시한다는것을 알려준 때로부터 십여일이 지나갔다. 효력은 곧 나타났다. 이전같으면 벌써 서너대의 수리화차가 생겨나서 그걸 퇴치하느라고 기능공들이 불었겠으나 지금은 한대도 불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조립공들은 눈을 꾹꾹거리면서 생산품을 최종검사하는 품질감독원들이 자기 눈에 거슬렸을 때 요구하는 작업이 수리작업인데 도색해버리면 나타나지 않을 부분까지도 캔스레 자체검사에서 들추어내가지고는 일을 더디게 만든다고 남철이를 탓하였다.

어느날 그는 한 조립공청년한테서 이런 룡말을 듣게 되었다.

《반장동무, 지금처럼 화차를 가지고 주물작대다가는 우리 청년작업반이 거부기에 올라앉겠습니까.》

《동문 모르는 소리. 거부기에 올라앉으면 룡궁구경을 하고 좀 좋나.》

《룡궁을 구경하려다가 토끼신세가 돼버리겠으니말입니다.》

《동무는 벌써 토끼신세가 됐는걸. 그렇게 쟁충

쟁충 뛰기만하다간 함정도 못알아보고 빠져버린단말이요.》

남철이는 우스개소리로 조립공을 책망하고는 금방 화차조립을 끝낸 제3조립대로 향하였다. 기증기를 부르는 호각소리가 짧게 두번 나자 육중한 체대를 부르르 떨며 기증기가 3조립대로 천천히 굴러갔다.

제1조립대와 제2조립대에서는 차체용접이 한창이었다. 용접봉 지지는 소리가 찌지직찌지직거리고 크고작은 용접의 불꽃들이 3조립대로 걸어가는 그의 머리우에 꽃보라처럼 떨어져내리었다. 광광 철판 부딪치는 소리, 웅웅하는 자동용접기의 소음, 호각소리, 지명원을 찾는 통계원의 청청한 목소리도 함께 그의 귀에 들려왔다. 조립공만이 느낄수 있는 소음으로 하여 온몸은 로동의 희열로 흥분해졌다.

그러나 얼마를 못가서 그의 유쾌해진 마음에 터분한 안개가 서리여들었다.

3조립대에서는 순선이와 3작업조장이 아귀다툼을 하고있었다.

《하 참, 헛내기도 아닌 동무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오? 이달이 며칠 남은지 아오?》

《그렇다고 미흡한 부분을 그냥 넘겨서야 되겠어요?》

《젠장, 그런거야뭐…》

이런 소리를 들으며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던 남철이는 탄산가스자동용접을 한 끝기둥의 모자용착면에 석필로 표식해놓은 동그라미를 보게 되었다.

순선이가 말하거나말거나 조립을 끝낸 화차에서는 이미 용접기들을 철수하였고 조립대에는 벌써 저쪽에서 새 화차를 조립할 차체를 기증기가 물어오고있었다. 기증기운전공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조립한 화차를 빨리 뽑아내달라고 종을 딸랑딸랑 울리고있었다.

기증기를 힐끔 올려다본 순선은 3조장에게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었다.

《정말이지 조장동문 작업반을 위하지 않는가봐요.》

《동무는 조립공들의 심정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오?》

3작업조장은 벌췌 성을 내었다.

《반장동무가 지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작업반에서는 한대의 화차라도 허술히 넘겨서는 안된다고.》

《동문 반장동무가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라고 하면 뛰어들 사람이구만. 하긴 그럴수 있지.》

《아이참, 정말…》

《내 눈은 못속이오. 반장동무의 지시가 아니라면 아마 지배인이 말했대도 그렇게 열성이 높지 못할걸.》

조장의 이기죽거리는 말에 순선은 그 어떤 모욕을 당한듯 얼굴이 빨개지며 입술을 꼭 깨물다가 남철이를 보고는 불반 있는쪽으로 걸어갔다.

3 작업조장은 남철이를 알아보고 어색하게 웃었다. 조립한 화차를 들어올리려고 아래로 내려드리워진 기중기 고리는 할일없는 사람이 빈둥거리듯이 흔들거리고있었다.

남철이는 자기와 3 작업조장의 눈치를 살피고있는 조립공들을 휘- 둘러보고는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내보기엔 조장동무가 다른 작업반에서 하지않는 일을 한다고 투정을 부리는것 같구만. 박동무, 내 말이 틀리오?》

남철이가 고수머리청년에게 묻자 그는 머리를 썩썩 긁으며 갑자르더니 시물시물 웃었다.

《어방없이 틀렸지요. 우리 조장동무가 뭐 남의 장단에 춤을 출 위인인줄 아시우?》

《그런데 왜 자체검사일에 대해서 강건너 불보듯하는지 모르겠소. 화차를 책임진 우리들이 요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자체검사제도를 세워놓지 않았소. 자신들이 세워놓은 질서를 자신들이 망가뜨려놓으면 안되지.》

《그렇긴 하오만...》

《그렇긴 하오만이 아니라 바로 그래.》

남철이의 부드러운 책망에 조립공들은 이렇게 서로 응수하며 용접기 한대를 설치하고는 순선이가 표식해놓은 부분을 고쳐 용접하였다.

이날저녁 남철이는 순선이와 퇴근길을 같이 걸었다. 남철이가 앞에 서고 그뒤에 고개를 숙인 순선이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조립장에서 있는 일을 생각하고있는 모양인지 순선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비껴있었다.

남철이는 자기때문에 순선이가 마음고생을 하는것이 미안하여 그가 바짝 따라오도록 걸음을 늦추며 어줍게 입을 열었다.

《자체검사일이 베차지?》

《누가 뭐 힘들다고 했어요?》

순선이는 짙게 숨겨져서 대답하였다.

《그럼 왜 우울해있소? 동무들의 놀림을 받아서? 원 별걸 다 가지고.》

호방한 남철이의 말에 귀밑을 붉히던 순선이는 남철이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남철동문 정말 무더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나도 3 조장의 말을 다 들었소... 허허, 아무렇게 말한대도 자체검사일만 잘되니 반갑소.》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철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순선이는 약이 올라서 이렇게 불만을 내소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전 정말 못해먹겠어요. 요즘 작업반이 담보상

태에 있는건 저때문인가봐요.》

순선이의 어조에 심상치 않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느낀 남철이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3 작업조장의 얼굴이 떠오르며 일부 사람들이 잘 받아물지 않아서 그러는게라고도 생각해보았으나 순선이는 다만 그런 안타까움을 쏟아놓은것이 아닌것 같았다. 자체검사일을 탐탁히 여기고있지 않는것이 분명하였다. 그리하여 남철이의 가슴에는 서운한 감정이 스며드는것이였다.

어느덧 그들은 문화회관 맞은편의 둔덕우에 올라섰다. 어린시절의 놀이터들이 한눈에 보이고있었다. 자기들 나이와 같아서 비바람에 연약한 줄기를 뒤척이던 버드나무들이 이제는 아름이 별게 자라난 이곳에서 남철이와 순선이는 부모들의 충성심이 깃든 작업반을 더욱 빛내이자고 약속을 하였었다. 그런데 순선이는 자체검사일에 대해서 확고한 신심을 못가지고있지 않는가.

서운한 마음을 묵새기던 남철이는 아버지와 함께 이 둔덕에 올랐던 때가 생각나서 그때를 묵묵히 회고하였다.

...로동생활의 첫 출근날에 아버지와 함께 이 둔덕에 올랐을적에는 날이 밝느라고 동녘하늘이 휘황하였다. 년로하지만 자기 한몸을 돌보지 않고 도장공으로 일하고있는 아버지는 순선이 아버지의 영웅성을 말해주면서 아들이 값있게 살기를 바랐다.

《너도 이젠 당당한 화차생산자가 되었구나. 이 애비가 걷는 길을 함께 걷는것이 기쁘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화차직장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무 한 일도 없는 자기의 손을 친히 잡아주시였다고 감격에 차서 말하였다.

남철이도 유년시절에 인상깊이 박힌 그 일을 잊을수 없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아버지는 어린 남철이를 데리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남철이는 아버지의 흥분된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느닷없이 물었다.

《아버진 그렇게 큰 사람이나?》

《왜?》

《아버지원수님과 악수를 하니말이야.》

《허허허... 자식두 아버진 나라의 짐을 가득가득 실어나를 화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냐.》

아버지는 어린 남철이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았다.

《나도 아버지만큼 크면 화차 만들래.》

《너 참 용구나. 그래라! 화차 만들거라.》

아버지는 남철이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품에 꼭 껴안아주었다.

아버지가 첫 화차를 만들던 때와는 대비도 안되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차량공장은 아침노을을

받아 웅장한 제 모습을 드러내었다....

남철이는 사회생활의 첫 출근날에 울린 아버지의 굵은 음성을 잊지 않고있었다.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도 아버지수령님께 충성다하며 참답게 사는 로동계급이 되리라 굳게 결심을 한 남철이었다. 그리하여 남철이는 아버지가 만들어낸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쓸모있는 화차를 만들려고 자체검사제를 실시하였으며 기술을 혁신하고 조립속도를 높여왔다. 그런데 순선이는 자체검사일을 별로 미더워하지 않는것이다. 우정이 깊어져 이제는 누구보다도 귀중한 사람으로 된 순선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남철이의 가슴은 더욱 아팠다.

《순선동무, 우리가 작업반을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높은 목표를 내걸고있는데 신심이 없이 일해서야 되겠소?》

《그 높은 목표라는게 허무하지 않아요? 저는 참말 어쨌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동무는 자기 생각만 하고...》

순선이는 말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였다.

《얼마간은 좀 참소. 일이 퍼나가면 이게 다 옛말로 될거요.》

《어느 하가에 그렇게 되겠어요? 현재상태로 나가다간 작업반이 자라목이 돼버리겠는데... 그땐 사람들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남철이는 사람들의 일본새를 바꾼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금 깊이 느끼였다.

《물론 전에처럼 작업반은 다른 작업반보다 빼여지게 앞서나가질 못하고있소. 왜 그럴겠소? 지금은 자체검사공이 동무 한사람뿐이지만 보름, 한달, 또 그후에는 자체검사공대렬이 불어나서 작업반전체가 검사공으로 될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달라져서 화차조립속도는 몇배로 높아질게요.》

남철이는 만약에 자기와 순선이가 다른 작업반에서 일하고있다면 그가 자체검사일을 어떻게 대할가 하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며 그를 일깨워줄 말을 머리에서 또 골라보았다.

공장방송차가 정문에서 나오고있었다. 앞뒤로 향하게 단 네개의 확성기에서는 화차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종업원들의 전투소식을 알려주고있었다. 아버지수령님께 충성다하는 로동계급의 뜨거운 숨결을 소리높이 웨치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남철이의 가슴을 파고드는것이였다.

《순선동무, 저 소리를 듣고있소?》

《왜 그런걸 물어세요?》

《방송에서 소개하는 어떤 동무들은 이름도 설고 낯도 모르겠지만 어쨌선지 한가정속에 있다는 친밀감이 든단말이요. 그러나 출근길에서나 작업장에서 늘 만나고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웃고있어도 그렇지 못한 동무들이 종종 있거던.》

남철이는 유감스럽지만 순선이라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순선이는 서운한 빛을 띠었다.

《글쎄, 난 동무가 그럴줄은 몰랐소 이게 어디나나 우리 두사람을 위한 일이요? 동문 협소하게 생각하는것 같거던.》

《제가 협소하게 생각한다구요?...그럼 좋아요. 앞으로 열성을 내겠어요. 그렇지만 동무는 나의 심정을 다 모를거야요.》

순선이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사택마을 쪽으로 돌아섰다.

3

남철이네 작업반원들은 점심시간의 휴식참에 즐거운 오락회를 벌리고있었다. 흥겨운 웃음소리 박수소리는 직장안을 차고넘치며 밖으로까지 흘러나오고있었다.

라크가 묻어서 번들거리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도색작업장에서 나오던 순선이의 어머니 장선녀는 걸음을 멈추고 오락회가 한창인 남철이네 작업반쪽을 건너다보았다.

회전대들에 척 누워있는 화차우와 차체우에 아무렇게나 앉은 청년들은 누구를 지목했는지 박수장단을 치며 빨리 노래를 부르라고 독촉하고있었다. 그래도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생각할 여유를 주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오락회책임자인듯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후에 누가 선창을 땀는지 여럿이서 일시에 부르는 합창이 우렁차게 들려오고있었다.

어머니의 귀에 젖은 노래였다. 순선이가 자기의 일손을 도와 집안팍을 거둘 때면 늘 저 노래를 부르곤하였다. 그 소리를 듣느라니 저도모르게 머리속에 얼핏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장선녀는 제 아버지가 있던 작업반에서 순선이가 일하고있는것을 자랑으로 여기고있었다. 그리하여 기회가 있으면 딸애에게 남철이를 도와서 작업반을 일등작업반에서 떨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곤하였다. 어머니의 말을 어떤 때는 귀찮게도 여기는 기색을 보였지만 순선이는 아버지처럼 작업반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있는것이였다.

그런 순선이가 요즈음에 와서 웬일인지 밝고 명랑하던 얼굴에 그늘을 띄우고있었다. 자기를 도와주는 일손에도 맥이 풀린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던것이 어제저녁에는 그 잘하던 설겜이도 하지 않고 책상우에 머리를 파묻어버리는것이였다.

장선녀는 딸의 기색을 살피면서 무슨 언짢은 일로 하여 저러는가 하고 원심을 썼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볼가 하다가 나이찬 처녀들이 가지게 되는 불안같아서 해를 넘기지 말아야 했을걸 그

랬다고 집에 혼자 있을 때면 가지게 되는 후회를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사정이 달랐었다. 제 오빠들과는 달리 아버지도 모르고 자란 순선이를 더 끼고있고싶은데다 누구에게 짝지지 않게 마음씨 무뎌지고 인물이 환한 달을 아무에게나 훌쩍 주고싶지 않아서 나서는 자리마다 저울질을 해보고는 좋은 말로 물리치곤하였다. 그랬더니 약속이나 한듯이 요즘엔 중매군들의 발길이 끊어져버려 은근히 어머니의 마음을 조이게 하였다. 그러던중에 어머니는 딸의 잠꼬대에서 자체검사란 말을 듣게 되었다. 작업반에서 자체검사공을 하는것때문에 그런다는것을 알아차린 장선녀는 골살이 찌프려졌다.

(남철이 그녀석이 왜 우리 애에게 그 일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말밖에 오르게 한담.)

장선녀는 순선이의 잠꼬대에서 여직 딸에 대해서 가졌던 걱정의 실머리를 친듯하였다. 딸애가 자체검사공일을 잘 수행하느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 사립들을 깔끔하게 대하였고 또한 딱딱하게까지 굴어서 사람들은 그를 멀리 하는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장선녀는 자체검사공일때문에 순선이가 앞일을 망치겠다는 근심이 들어서 자체검사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었다. 전에는 딸애가 일하고있는 작업반이 잘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작업반을 기웃거리게 되었지만 지금은 딸애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살피느라고 더 자주 남철이네 작업반쪽을 건너다보는것이였다.

합창이 끝나자 청년들은 아까 요구하던 독창을 또 재촉하고있었다. 그 독창속에서 순선이의 이름을 들은 장선녀는 눈이 등그래졌다. 그리하여 눈에 정기를 모아 오락회장을 찬찬히 바라보았으나 딸애는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지 보이질 않았다.

(어서 일어나서 한곡조 뽑아넘기지 않구.)

장선녀는 흥겨운 오락회에서 노래 잘 부르는 자기 천성을 드러내놓지 않는 순선이가 멀리서 보기에 민망하여 혼자 속을 조이고있었다.

이때 뒤에서 젊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마음이 끌리면 가보십시오. 여기서야 잘 보입니까?》

장선녀는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다보았다.

《에그, 반장이구만. 뭘 가보기까지야. 그저 떠들썩하길래 쳐다봤지.》

장선녀는 변명처럼 대답하고는 남철이의 아래 우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어렸을 때 것처럼 장난이 세차던 남철이가 작업반장까지 되더니 제법의 것해지고 어텐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는 점까지 있었다. 장선녀는 같은 작업반에서 일하고있고 또 이웃에서 형제처럼 살아오는 남철이의 부모들을 대할 때면 저 집에서도 며느리를 맞아야했

는데 왜 아무 기척이 없을까 하고 혼자 속생각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흰칠한 키며 호방한 성격을 가진 남철이에게 자연 마음이 끌리는것도 어쩔수 없었다.

장선녀는 잊혀져 버린 순선이의 태도와 요즘 딸애의 얼굴에서 떠돌고있는 그들을 생각하고는 낮은 음성으로 에둘러 말하였다.

《반장, 왜 거기서는 전에처럼 화차생산이 쑥쑥 오르지 못하고있나?》

장선녀의 물음에 남철이는 빙긋이 웃었다.

《어머니, 그 수리란 말이 우습지 않습니까?》

《왜? ...》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화차가 다시 수리에 들어가니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군. 이보라구 반장, 수리를 없애는건 반대없네만 화차생산실적이 오르지 못하는건 어찌겠나?》

장선녀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빛이 어리고있었다.

《이제 두고보십시오. 자체검사제가 은을 내면 화차생산실적은 두둑, 세둑으로 오를겁니다.》

《두고보자는건 무섭지가 않더군. 그저 평잡는게 매라고...》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던 장선녀는 다시 딸애를 생각하며 듣기 좋게 한마디 하였다.

《여적 자체검사가 없이 일했어도 짐을 실은 화차는 잘만 굴러다니데.》

《허허, 바퀴가 있는데 굴러다니지 않구요, 어머니도 꽤 웃기네.》

임비풀어진 걱정을 남철이가 룡담으로 받아넘기자 장선녀는 제풀에 웃음이 나와 피씩 웃어버리었다. 대범한 남철이때문에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속에 품고있던 생각을 허물없이 말하였다.

《임자, 우리 순선이가 꼭 자체검사공일을 해야겠나?》

은근하게 울리는 장선녀의 소리에 흠칫 놀라던 남철이는 허허 웃었다.

《그 일이 어드레시오. 총각들의 눈밖에 날가봐 걱정이 드는게지요?》

《그렇지 않구.》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남철이에게 눈을 할기죽하며 씨원히 대꾸한 장선녀는 《임자가 우리 순선이를 책임질텐가?》 하는 소리가 나오는것을 꼴짝 삼켜버리었다. 그러는 장선녀의 얼굴에서는 느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저도모르게 순선이를 남철이의 곁에 세워보게 되는 장선녀는 서글서글한 그가 별로 다정하게 대해주는것 같아서 마음이 좋아졌던것이다.

《어머닌 그저 딸걱정뿐이구만요. 순선동무가 자체검사를 깐깐히 해줘서 도색작업반에서는 두벌일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야 뭐, 세벌일을 한들 뭐라나. 순선이 말따나 작업반생산이 올라못가니 야단이지.》

남철이는 그를 뻔히 보다가 일깨워주듯 입을 열었다.

《어머니, 자체검사는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량심을 들여다보는 거울과도 같은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모두는 자체검사공으로 되어야 할겁니다. 바로 그 첫 봉화를 순선동무가 들었습니다.》

《……》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만든 제품에 합격, 불합격하는 도장이 찍히는것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불합격이란 도장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티검볼을 보여주는 불명예스러운것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우린 생산자의 량심을 속이지 않으려고 자체검사를 하는것입니다.》

《그래도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곱지 않더구만.》
장선녀는 가늘게 한숨을 지으며 나직이 중얼거려었다.

그러는 장선녀에게 남철이는 뒤말은 뒤떨어진 사람의 생각일텐데 좋은 일을 하면서 뒤소리를 듣는것은 수치가 아니라고 하였다.

《임자 말이 옳긴 해. 그런데…》

장선녀는 이렇게 공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차있는 딸의 근심만은 덜지 못하고있었다.

《어머닌 또 딸걱정을 하시는군요. 어련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라구요.》

이 말에 장선녀는 귀가 번쩍 트이어서 남철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저녀석 말하는걸 보지.)

남철이의 의미있는 말에서 무슨 기미를 켜 장선녀는 알릴락말락한 웃음을 얼굴에 담으며 남철이를 그냥 쳐다보았다.

즐거운 휴식을 끝낸 남철이네 작업반원들은 다시 작업에 착수하고있었다.

장선녀와 헤어져서 조립장으로 간 남철이는 화차생산을 높일수 있는 새 방법을 고안하려고 탄산가스자동용접기의 능력을 타진해보다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는 1 조립대로로 걸어갔다.

남철이를 본 작업조장이 쾌활하게 웃으며 바지 혼술에 두손을 붙였다.

《반장동지, 화차조립을 이제보다 10 분이내 단축했습니다.》

《수고했소. 그런데 보고를 하려면 손을 올려 보여야지. 옳지, 그렇게. 하하… 내 한번 두드려볼가.》

남철이는 자기의 룡담을 제격 받아주는 조장을 유쾌하게 쳐다보다가 기쁜 마음으로 딱따구리망치와 석필을 쥐고는 조립대의 계단을 잡았다.

《정말 검사를 하렵니까?》

《켁기는데가 있는 모양이지?》

《완전무결합니다. 그런데 저…》

남철이는 말끝을 흐리는 그를 돌아보다가 그가 눈짓하는데를 쳐다보았다. 딱따구리망치와 석필을 쥔 순선이가 저만치에 서서 짙은 눈초리로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순간 남철이는 못할것을 한 사람처럼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내가 너무 지나친것이나 아닐까? 순선이를 믿지 못하다니. 사람들앞에서 이게 무슨 꼴인가말이야.)

순선이의 행동에서 자기에게 보내는 무언의 항변과 불만을 느끼며 남철이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때에 습관처럼 되어버린 호방한 목소리가 그에게서 울려나오고있었다.

《새로 개조한 자동용접기로 조립한 화차가 옳던가? 허허, 순선동무, 한번 더 살펴보지 않겠소?》

그러나 순선이는 못박힌듯 서서 알պ한 입술을 감쌀기만 하였다. 되려 남철이의 말이 비위를 거슬리어 그를 더 노엽힌 모양 섭섭하고 분한 마음을 삭이지 못해 숨을 몰아쉬는 그의 가슴은 더 자주 오르내리고있었다.

그러던 순선이는 남철이의 얼굴에서 잘못했노라는 빛을 발견했는지 아니면 깊은 아량때문인지 아무런 감정도 없은것처럼 태연하게 조립대로로 오르는것이였다.

《오늘은 된통에 걸렸는걸. 두사람씩이나 검사를 하니… 반장동무, 그러나 겁내지는 않지요. 우린 간간한 순선동무를 닮았으니까요.》

남철이는 조장의 자랑에 넘친 목소리를 들으며 망치로 용접찌를 때려서 떨어기도 하고 한곳에서 한참씩 용접부위를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그는 화차의 질이 전보다 많이 높아진것을 느끼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순선이가 자기의 거동을 자주 훑쳐보고있는것도 느끼게 되었다.

월말이 가까와왔다.

탄산가스자동용접기의 능력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느라고 그 한부분을 뜯어보고있던 남철이는 뒤에서 나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였다.

장선녀가 서있었다. 오른손에 넘적한 도색술을 들고있는 그의 작업복에는 마르지 않은 라크가 묻어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남철이가 물었으나 그는 인차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였다.

《반장, 내가 임자들앞에 큰 죄를 질번했네.》

《어머니,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장선녀의 심상치 않은 말에 웃음을 거둔 남철이는 혹시 수리화차가 생겨나지 않았을가 하는 예감이 들어서 가슴이 섬적해졌다.

장선녀는 몇번 갑자르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반장, 수리화차가 한대 생겨나지 않았겠나. 번호를 보니 입자네들거야.》

《그게 정말입니까?》

장선녀는 제 잘못이거나 한것처럼 어줍게 웃으며 남철이를 바라보기만 할뿐이었다.

남철이는 그의 눈에서 걱정스러워하는 빛을 발견하고는 의논조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수리화차를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나도 그걸 토론했으면 해서 찾아왔네. 내가 부무기가 미치지 못한곳에 술질을 하려고 하는데 글썄 어덴가 모르게 좀 미타한 부분이 눈에 띄우질않겠나. 그래서 입자 아버지를 불렀네. 저걸 어쨌으면 좋을가 하고 의향을 물어봤지. 그랬더니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체검사까지 하고있는데 그것이 목과되겠느냐고 하더군.》

딸의 장래를 망친다고 하면서 자체검사일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장선녀는 남철이와 순선이와의 관계가 남다르다는것을 눈치챈 그날부터 여러모로 자체검사일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것이였다.

《다행히 도색을 하지 않았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한시름을 놓은 남철이는 장선녀의 마음에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며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어머니, 그 화차를 다시 끌여오겠습니다. 그런데 화차를 끌여오면 순선동무가 무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반장. 우리 순선이 걱정은 말라구. 하긴 자네가...》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장선녀의 입귀에는 자랑스러운 웃음이 스치고있었다.

장선녀가 간 다음에 남철이는 자식들의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일을 더 잘해야겠다고 속으로 단단히 버르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화차를 그냥 넘겨버린 순선이에 대한 섭섭함이 들고있는것이였다.

서둘러 해체한 자동용접기의 부속을 맞추고 도색장으로 바빠 걸어가던 남철이는 불반작업을 할 화차문걸개를 양철통에 담아서 들고오는 순선이와 마주쳤다.

《순선동무는 나한테 보고하지 않은 일이 한가지 있지 않소?》

남철이는 순선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낮은 음성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의아한 표정으로 눈을 깜박이던 순선이는 남철이가 룡담을 하는줄 알고 상긋이 웃었다.

《그래?》

남철이는 혹시 순선이가 수리화차가 생겨난걸

모를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체검사일을 등한히 하고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순선동무, 수리화차가 한대 생겨났소.》

순선이의 얼굴은 금시에 빨개지였다.

남철이는 그가 자체검사일을 잘못된 가책을 받고 그러는줄 알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좀더 끈지게 일을 해야겠소. 동무의 어머니가 발견하였소. 하마트면 그것이 그냥 수송전선에 나갈번했던말이요.》

그러자 순선이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는것이였다.

《우리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남의 일에 뛰어들다니까. 그거야 뭐 허용오차안에 드는건데.》

《그럼 동무는 알고있었소?》

남철이는 크게 놀라며 순선이를 어이없이 쳐다보았다.

그러자 순선이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문제를 크게 본다고 남철이를 고깝게 여기였다.

《괜히 남철동무 스쳐버릴 일에 신경을 쓰고있어요. 그러니까 작업반생산이 오르지 못하지요.》

《그 참, 좋은 말을 해주는군. 수리화차를 넘긴 변명을 그렇게 하면 되겠소?》

남철이는 한번 기회를 얻어 그를 따뜻하게 일깨워줄 생각으로 더 말을 하지 않고 수리화차가 있다는 도색장으로 급히 갔다.

이날 직장총화에서는 남철이네 작업반이 어느 작업반보다 화차생산량이 떨어지였다. 남철이가 도색장에 나간 화차를 다시 끌여다 미흡한 부분을 고치는 시간이 작업성과를 낮추게 한것이였다.

퇴근하던 노동자들은 경쟁도표판앞에 웅기중기 모여 서서 금방 올린 실적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이, 청년작업반, 신들메를 단단히 조이라구. 이젠 우리하고 키가 같아졌어.》

《걱정말게. 개구리가 도랑을 건너떨 때 왜 웅크리는줄 알아. 그런데 희한하긴 희한하다. 5작업반이야 늘 우리 꿈무니에서 그것도 멀찌감치 떨어져오질 않았소.》

그 말에 벌컥 성을 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게. 5작업반이 어쨌다구 그래.》

《허참, 경쟁도표에서만 따라온줄 알았더니 사람까지 따라와서 성화로군.》

《예끼, 고약한 친구같으니라구.》

철썩하고 잔등을 치는 소리가 나며 사나이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였다.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남철이는 저도 대범하게 따라웃으며 《동무들, 이제 두구보게나. 우리 청년작업반이 30 리쯤은 떨구어놓고 내달릴걸.》하고 속으로 말하고있었다.

이때 사람들 틈을 헤집고 한 처녀가 나오고있

었다. 순선이였다. 얼굴기색이 좋지 않은 그는 멀찌감치 서있는 남철이에게로 곧장 걸어왔다.

《남철동무, 들었어요? 이젠 우리 청년작업반의 수chief예요.》

남철이는 묵묵히 순선이를 쳐다보다가 나직이 물었다.

《동무는 책임을 느끼지 않소?》

그 말에 순선이는 그 어떤 가책을 느꼈는지 흠칫하는 기색이더니 다시 반발하듯 입을 열었다.

《그거야 허용오차가 아니예요. 괜히 고집을 부리면서 도색장에 나간 화차까지 끌어올건 뭐예요. 그 고집이 저렇게 도표판의 표식줄을 머물러있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까와요.》

남철이는 원망 어린 불만을 쏟고있는 순선이를 서운한 눈길로 쳐다보다가 천천히 동쪽길로 꺾어들었다. 사위는 조용하였다. 마치 그들의 언쟁에 방해줄을 줄가봐 저어하듯 강변의 진펄속에 뿌리를 내린 갈대들은 조심스럽게 잎들을 부딪치며 살랑거리고있었다.

《순선동무, 나는 안타깝지 않은줄 아요. 그러나 난 도표판에 머물러있는 표식줄보다 동무가 머물러있는것이 더 안타깝소. 생각해보요. 우리가 실시하는 자체검사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것이 아니지 않소. 우리자신이 늘 생각했고 량심이 가리켜서 시작한 일이 아니요. 나는 작업반원들이 동무의 본을 따라서 자기들도 간간해졌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면 얼마나 기뻐는지 모르요. 조립속도를 10 분씩이나 단축하면서도 질은 올라갔거던. 그런데 동무는 오늘 무슨 일을 저질렀소?》

남철이의 말이 가슴을 울려놓았는지 순선이는 눈을 내리뜨고 다소곳이 서있었다.

《나는 자식들을 진심으로 도와나서는 동무 어머니를 보고 정말 감동했소. 생각이 많아지더군. 순선동무, 이렇게 말하면 섭섭해할는지 모르겠지만 동무는 어머니만도 못한것 같소. 부모들이 지켜섰던 영예로운 초소를 더욱 빛내일 임무가 우리에게 지워져있지 않소.》

남철이는 순선이의 고개가 아래로 점점 더 숙어지는것을 보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자, 이젠 들어가봅시다. 어머니가 무척 기다리겠는데 ...》

순선이는 그냥 고개를 수그린채 발자국을 섰듯 떼지 못하고있었다.

4

밤이 깊었으나 순선이는 뒤치락거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 허용오차라고 자신을 위안하면서 조립된 화차를 그냥 넘긴 일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마음은 못내

괴로와났다.

그는 머리맡에 놓여있는 망치자루를 더듬어쥐고는 슬그머니 이불속으로 당겨넣었다. 매곤매곤 하고 길다란 이 망치자루는 어머니가 준것이였다.

남철이에게서 아픈 말을 듣고 그것을 곰곰히 생각해보며 집에 오니 어머니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딸의 기색을 살펴보던 어머니는 무슨 말인가 할듯하더니 순선이의 내심에 그 어떤 변화가 생겼음을 감촉했는지 그만두고는 망치자루를 그의 앞에 내놓는것이였다.

《애야, 이게 마음에 들는지 모르겠구나. 아무래도 네가 쓰고있는 검사망치의 자루가 짧은것 같길래 남철이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깎아왔다.》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어리둥절해있던 순선이는 허용오차라고 하였던 미흡한 부분이 팔을 들어도 못미칠곳이었음이 생각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순선이는 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자기가 사용하고있는 검사망치의 자루가 짧아서 미흡한 부분을 넘겨버린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짧아서 넘겨버렸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를 앓았기때문이었다.

어찌하여 내가 자체검사공일을 맡긴 남철이의 믿음을 저버릴수 있었을까? 어머니의 온정이 깃든 단단한 망치자루를 어루쓸어볼수록 순선이의 마음은 더욱 괴로와지는것이였다. 사람들은 나의 얼굴을 보며 자기들이 조립한 화차를 다시 들여다보고있는데 그들을 더 잘 이끌어줄대신 이게 무슨 꼴이란말인가. 심한 가책속에 잠긴 순선이는 망치자루를 내놓던 어머니의 말없는 꾸중과 아버지처럼 작업반을 훌륭하게 지켜가리라고 믿었다는 남철이의 말이 뜨겁게 안겨와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럴수록 순선이는 작업반의 명예에 흠을 남긴 수치감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었다.

《애야, 이젠 자려무나. 그래야 래일 작업능률을 올릴게 아니겠니.》

딸애의 고충을 알아주는 어머니의 속깊은 마음을 뜨겁게 느끼며 순선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래일 새벽에 나가서 오늘 조립한 화차를 다시 검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며 순선이는 나직이 중얼거리었다.

《알겠어요. 어머니, 래일 일찍 나가야겠는데 늦잠을 잘가봐 걱정이 생겨요.》

《원 애두, 나한테 말하면 어련히 깨워주지 않으리.》

곤잠이 들었던 순선이는 다섯시를 알리는 벽시계의 종소리에 소스라쳐 깨어나서는 주섬주섬 옷을 주어입고 밖으로 나왔다.

날은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상쾌하고 축축한 대기가 그의 마음을 건뚫히게 만들면서 잠을 설친 몸에 슬금슬금 배어들고있었다.

순선이는 종종걸음을 쳐서 화차조립장에 들어섰다.

어제 자기가 검사한 화차들쪽으로 걸어가던 순선이는 탄산가스자동용접기앞에서 무춤 멈춰섰다.

누군가가 용접기를 뜯어놓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며 들여다보고있었다.

의혹과 호기심에 어려있던 순선이의 눈은 동그래졌다.

(아니, 남철동무가?!... 이 새벽에 웬일일까?)

뜻밖에도 남철이를 보게 된 순선이는 어리둥절해져서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인기척을 죽이고 한발자국 두발자국 다가갔다.

눈에 쓰이리만큼 수척해진 그의 얼굴은 기름과 땀에 얼룩이져있었다.

순선이의 머리에는 화차조립시간을 10 분이 아니라 그이상 더 단축할 방도를 찾느라고 저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몽클해지였다.

(오죽 안타까웠으면 새벽에 나왔을라구.)

나사틀개를 찾아쥐느라고 고개를 들던 남철이는 자기를 지켜보고 서있는 순선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눈길에 마주치자 점직해져서 고개를 숙이는 순선이를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다.

그는 기름묻은 손을 비비며 순선이의 앞으로 다가섰다.

《일찍 나왔구만. ...》

자책에 잠긴 순선의 얼굴을 바라본 남철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순선동무, 내가 어제 너무 지나친것 같소.》

《그런 말씀은 마세요.》

눈을 들지 못하는 순선이를 이윽히 쳐다보던 남철이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우리 일을 더 잘해봅시다. 어제날의 혁신이 오늘에 와서는 보수와 침체로 되고 오늘의 혁신이 래일에 가서는 뒤떨어지는것으로 되지 않겠소. 순선동무, 부모들이 물려준 초소를 맡아 혁신과 전진으로 빛내어나갈 때만이 우리는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을 바친다고 말할수 있을거요. 그래야 부모들의 뒤를 이어 작업반의 영예를 훌륭히 지켰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을거요.》

정겨운 시선으로 뺨히 올려다보는 순선이의 미소어린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을 마친 남철이는 싱긋이 웃었다.

진달래

김휘조

내 고향 앞산에 반겨웃던 진달래는

5월이라 철 지난지 오랜데

한창 피어나네 대흥단 진달래

싸움의 자욱마다 소담한 송이송이

기어코 조국을 찾으리라 싸운 투사들

불같은 마음 어려 꽃잎마다 붉은 빛

꿈에도 보던 땅을 끌어안던 투사들

목메이던 마음 어려 그윽한 향기...

곳이 높아 진달래 이제 피었느냐

늦어오는 봄 기다려 이제 피었느냐

아, 이 땅의 진달래 어이해 고운줄

향기로운줄

꽃에 취한 이 마음에 이야기하고 싶어

날 기다려 피었는가 붉은 진달래

투사들의 그 정신 전하고 싶어

여기에 피었구나 대흥단 진달래

내 고향 앞산에도 피어나는 진달래

그 아름다움 여기 와서 다 알겠구나

멀고도 먼곳

백의선

그날의 고개길에서

봄해살 따스히 내리는
약수리의 고개길
그 언제인가
아버이수령님 앞에
맨발 벗은 소년이 서있던 이 길

흐르는 꽃물결,
즐거운 웃음소리...
내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오르니
아, 가슴에 안겨온다
지난날 내 모습 다름없던
그날의 그 소년의 모습이

신발 하나 신기지 못하였는데
그래도 인사를 한다고
안색을 흐리시며
소년의 모습 오래도록 지켜보시던 수령님

수령님앞에 그처럼 철없이 서있던
그 아이는 누구였던가
그날 그 저녁 집에까지 찾아오시여
산길에 험해진 작은 발 어루만지시며
수령님 새 신을 신겨주시던 그 아이는?...

준엄한 전쟁의 흔적을 지닌채
이 땅의 한끝에 남아있던
그 아이는 산사람들의 모습이였다
그 아이는 이 산마을의 모습이였다

산촌도 흐느끼고
사람들도 흐느끼던 그날의 길
오늘은 철따라 새옷 입고
철따라 꽃신 신고
우리 아이들이 넘고넘는 길

아, 우리 생활 얼마나 값높게 꽃핀것인가
자욱자욱 감사의 눈물에 젖던 이 길로
그날의 그 소년만이 아닌
우리모두가 달려왔고
산촌의 행복의 력사가 굽이쳐왔구나

산촌이여
사랑의 꽃신에 다져지고 넓어진 길이여
내 날마다 이 길을 걷고걸어도
새 신을 신은 그날의 그 아이의 마음...
아, 언제나 뜨거이 안고사는 어머니 사랑이여

멀고도 먼곳

얼마나 먼곳이었던가
성골령 아흔아홉굽이
구름도 아흔아홉번 쉬어서 넘는다
내 고향 산마을
그래서 먼 고장이라 불러왔던가

무명 한자 끊으려 바늘 한쌍 얻으려
산파실 이고지고 읍거리 찾아가던 지난 세월에는
80리 읍거리조차
마음속엔 아득하던 세상이였어라

문밖에 새벽 까치 울어도

찾아올 사람 없다 한숨짓던 내 고장
오직 한분 수령님께서만
천리길도 지척인듯 오시였나니

천년을 영키였던 가시덤불 헤치시며
수령님 처음으로 내여주신 길로
내 오늘은 양떼를 몰고가노라
푸르른 봄잔디 부드러이 깔린 길
흰 구름우에 두둥실 실려가는가

사랑의 손길에 받들려가는가

정녕 멀고 먼곳이었던가
수령님 보내주신 나라의 첫 소형트랙터도
저 산기슭 고추밭에서 첫이랑을 갈았고
수령님 몸소 키우신 백살구나무들도
제일 먼저 옮겨주신 우리 산마을

우리 사는 집도 사랑의 새집
령 넘어 오는 뺨스도 사랑의 뺨스
산기슭 중학교의 실습포전에도
수령님 보내주신 트랙터, 자동차...

아, 세상에 없는듯 버림받던 내 고장
시대의 새 음향, 새 빛갈을 다 안고
세상에 처음인듯 다시 태어났거니
이제는 온 나라와
행복의 추녀를 잇대고 사는 한 이웃이 되었구나

구름속에 아득히 뻗어간
성골령 아흔아홉굽이
천굽이 만굽이로 늘어난대도
수령님 사랑으로 이어주신 길우에
멀고먼 고장이 그 어데 있으랴

산의 가을

두메산골에 가을이 오니
백리과원도 부럽지 않은 내 고장
녹을듯 단열매 타는듯 무르익어
바람도 향기에 젖고
시내물도 단물이 되어 흐를듯

쌓아놓은 산열매 산우에 또 산인데
다 자란 양떼까지 마을길을 메워선가
수리개 나는 하늘에 싸리나무 삭도바가지
이제 하늘길도 모자라겠구나

이 산 저 산 메아리치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산을 향해 두손 흔드는 탁아소의 아기들도
산향기 마시며 무럭무럭 자라고
이고장에 처음 오는 낯선 길손들
걸음마다 황홀하여 갈길을 잊네

만가지 초목들 만가지 빛갈로
저마다 보배로움을 자랑하며 설레이니
휘우듬히 읊거리로 뻗어간 언덕길엔
쉬임없이 늘어서는 지방공장 자동차들
행복은 넘치고 남아 령 넘어가노라네

온 산이 무르익어내리는 가을!
기쁨이 그대로 산이라
산이 그대로 기쁨이라
그냥 쏟아지는 행복의 음향...

가을이여
이고장을 처음 찾는 길손뿐이라
제 사는 고장이 스스로 놀랍구나
땅우에 하늘을 이고 솟았던 산이
행복을 쏟아 기쁨을 쏟아
온통 하늘땅을 가득 채웠어라

설달 눈보라

창문을 두드리는 설달 눈보라
그렇지만 겨울을 다 잊은듯
마을의 병원 창가엔 두봉화가 붉은데
샘골집 할머니는 첫손자를 받아안았네

포근한 요람속엔 파스한 숨결소리
또하나 복된 생이 꽃피는 이 밤
그의 눈가에 어인 눈물인가

쓰라린 옛 추억을 부르며 부르며
눈보라는 두드린다, 할머니의 가슴을

눈바람 쓸어들던 오돌막 가랑잎우에
그가 첫아들을 낳은 날이 설달 겨울밤
읍거리에 품팔이 갔던 남편이
성골령 중턱에서 눈에 묻혔다는 날도 그 설달
겨울밤

아아, 나라 없던 그 세월
태어난 자식이 슬픔이고 고통이던
기막힌 운명의 산사람들

이 세상에선 살곳 없다 울부짖던 눈보라...
설달은 가도 웃음 피는 봄이야 그 언제 왔던가

창밖에는 오늘도 설달 눈보라...
그렇지만 이 밝고 행복한 땅우에선
겨울도 눈보라도 다 잊은듯
첫손자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보는
복된 할머니 한껏 웃으라고
마을의 병원 창가엔 황금산의 두봉화가 웃네
깃든 생활의 봄이 억세고 영원함을 속삭이며
눈보라를 모르는 행복의 꽃이...

사진속의 어릴적동무들아

사진속의 어릴적동무들아
한번이라도 다시 모이고싶구나
석새무명옷도 부끄럼을 모르며
수령님 모시고 이 사진을 찍던
우리의 산촌학교 그 운동장에

벗은 고무신 손에 쥐고 달려왔던 사내애들아
꾸겨진 무명옷 물발라 퍼보던 처녀애들아
흰 이를 드러낸 그 웃음과 함께
이 사진엔 꽃피었구나
수령님 품에 안긴 영원한 행복이

세월은 얼마나 빛나게 흘렀던가
그날 입은것이 우리의 마지막 무명옷
세월이 그 옷을 벗겨준것 아니였어라
우리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새 교복
사랑의 새옷을 입고 자란 세대!

아, 오늘은 수령님께 보여드리고싶노라

그 누구는 훈장 번쩍이는 비행사의 제복을 입고
그 누구는 사색깊은 과학자의 모습으로
나는 이 산마을 농산기사로
그 학교운동장에 한번이라도 다시 모여...

하지만 어쩌랴, 우리 다시 모이지 못한들
3대혁명이 꽃피는
이 나라 어디 가나 비단옷물결 넘쳐흐르고
이 나라의 천만사람들 그 누구나
세월의 람루를 영원히 벗어던지고
우리처럼 빛나는 모습들로 변했으니...

그러나 이 사진만은 다 보여주고싶노라
먼 후손들까지도
그 언제든 말하고싶노라
석새무명옷을 입고 웃던 그 아이들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자신이였다고
우리의 이 사진속에는
사랑의 한 시대가 비껴있다고...

사랑의 물결, 보통강이여

문성락

푸른 숲
실버들이 휘늘어졌구나
시원한 유보도우에
오가는 사람들 모습이 물결우에 비껴선가
강물은 꽃물결로 춤을 추어라

금빛지붕 하늘가에 닿아
거리의 끝은 그 어디
강을 따라 층층 일떠선
천리마거리, 비파거리, 락원거리
가슴속 넘치는 기쁨처럼
해빛 밝은 창문들이 마주보며 웃는구나

락원으로 솟아오른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비껴안고
이 기슭을 떠나지 못하는가
봄빛 짙은 버드나무아지를 드리우고
금빛물결 아롱지는 보통강!

훈훈한 바람에 실려
공원에서 풍겨오는 꽃향기에 취할 때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내 마음 기쁨에 설레일 때
걸음걸음 추억이 깊어지는 강변이여

보통강
오랜 세월 너의 흐름은
가슴속에 고이는 피눈물이였다
그 옛날 빈민촌의 서러운 그림자 비껴
해와 달도 구름속에 낫을 가리우고
절망의 한숨이 뜬김처럼 서려있더니

그 언제부터였던가
보통강이여
너의 물결우에
밝은 해살 찬란히 비치고
너의 기슭에
행복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것은

항일의 준엄한 싸움의 날
산너머 조국의 하늘가에
한점 비구름이 비껴갈 때에도
해방의 천리길 떠나시며 바라보시던
토성랑사람들의 참상을

짓밟힌 거리의 모습으로 안으시며
조국진군의 발자욱을 힘있게 올리신 수령님

백두의 밀영에서 무르익히신
새 조국 건설의 설계도를 안으시고
조국에 개선했신 그 걸음으로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실 때
아, 보통강이여 너는 그날
감격의 파도로 설레이지 않았던가

눈보라 만리, 불길 만리
쌓이고 쌓이신 로고를 푸시라고
인민들은 단 하루라도 쉬시옵기를 원했건만
우리 힘 우리의 손으로
내 나라를 일떠세우자고 불려주실 때
수령님 우러러 불타는 마음들이
애국의 제방을 높이 쌓아올렸거니

토성랑의 피눈물 흐르던 이 강에
나라의 주인된 기쁨이 차넘치던
력사의 그 봄날
보통강이여, 너는
위대한 사랑의 대하가 되어 굽이쳤더라

수령님 새기신 사랑의 자욱자욱우에
즐비한 거리, 푸르른 공원으로 펼쳐진 강반
아버이사랑 강기슭에 차고넘쳐
지하평양 벽화에도 아름답게 비꼈나니

아, 인민의 념원을 담아
락원의 노래를 담아
보통강이여
천년을 흘러 만년을 흘러
불멸의 그 위업 길이 전하여라
위대한 수령님 건국의 첫자욱 새기신
그날의 영광을 안고

아름다운 이 강산
락원으로 전변되는
력사의 첫기슭이여
인민의 끝없는 행복을 싣고
흘러라 보통강
사랑의 강이여!

이런 때가 좋다

동기춘

이런 때가 좋다

이런 때가 좋다

새 차량의 번뜩이는 차바퀴

첫바퀴를 철길우에 굴리는 때가

조차장의 구내같이

철길이 가로세로 뻗은 집

객차직장의 너렁청한 지붕밑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차량을 밀어낸다

싱싱하다 모든것

파란 차체의 싱그러운 냄새도

깎은 자리 빛살같이 또렷한

차축이며 은빛바퀴도

저 창문들의 나사못 하나도

우리는 기억한다

기울게 달린 옷걸개 하나를 바로잡으며

반장이 하던 아픈 말도 기억한다

기쁨이여

밀자, 동무들 본선으로

또 하나의 차량을

전진하는 궤도우에 보내주거니

잘 가라 잘 가거라

들끓는 내 나라

갈길 급한 사람들을 싣고서

조국의 바쁜 걸음을 덜어주거라

달리라 달려가라

이제 너의 차창에

해빛은 부드러운 미소의 노을을 엮어주려니

동해의 파도에 실려온 바람결은

차창가의 옷자락을 나뭇겨주고

백무고원의 들쭉쭀이

바람벽에 향기를 배이게도 하리

배이게 되리라

생활의 질은 향기도

아기의 살오른 작은 손이

의자의 등받이를 잡고

너의 달리는 속도에 익숙해지리

사색깊은 시인의 가슴에

너의 바퀴소리 시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고

조국이 부르는곳으로 달려가는

청춘들의 량만에 찬 가슴을 울려도 주리라

자꾸만 다심해지는 마음이어

그렇지 않으랴

우리 비록 사나이들이지만

좋거니

이런 때엔 자식의 첫걸음 떼여주는

어머니 마음, 그것 아닌가

그래서 좋다

이런 때가 좋다

조국이 가는 길에

천리준마처럼 궤도우로 내달을

새 차량의 첫걸음을 떼여주는 때는...

건설의 새력사가 펼쳐진 땅에서

윤승홍

건설과 관련한 부서에서 일하는 직업적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햇빛 밝은 수도의 거리를 매일같이 거닐면서도 나는 모든것을 무심히 보지 않는다.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감회깊은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수교!

락원동!

인민문화궁전!...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들이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사랑의 그 이름들.

잔물결에 밀려와 흰 화강석우에 은구슬로 부서지며 그 무엇인가 끝없이 속삭이는 유보도의 계단을 오를 때에도 문득 걸음 멈추고 즐거운 추억에 잠길 때가 있다.

더우기 이 땅우에 건설의 새 력사가 수놓아진 뜻깊은 5월의 이 아침, 도시의 한복판에 새로 일떠서는 인민대학습당건설장에서 웅장화려한 혁명의 수도 평양의 모습을 바라보느라 뭉클 뜨거운것이 가슴가득 차오르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고마움에 눈곱이 젖어움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령으로부터 나라의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였으며 오막살이와 토굴집으로부터 문화주택과 고층건물들을 일떠세웠습니다.》

정녕 이 땅우에 솟아오른 거리와 마을, 아름다운 공원과 유원지들이 어떻게 건설되었던가.

우리가 늘쌍 딛고다니는 한장의 크지 않은 ब्ल록과 구슬지는 햇빛아래 푸르려 설레이는 한그루의 향오동나무며 수삼나무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가꾸어지고있는것인가...

솟구치는 걱정을 안고 언뜻 고개를 드니 보통강 너머 저 멀리에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 우뚝이 바라보였다.

1946년 5월 21일!

해방직후 그 복잡한 정세하에서 당장 푸셔야

할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으나 그 모든것을 뒤로 미루시고 보통강개수공사를 친히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그날에 몸소 보통강기슭에 나오시여 사랑의 첫삽을 뜨시였다.

온 나라 인민들의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받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신 첫삽!

그것은 범람하는 사나운 물결속에 어린 자식들과 판자집마저 떠내려보내고 원한과 슬픔의 곡성을 터뜨리던 토성랑사람들을 못잊으시여 백두의 밀림에서 무르익히신 새 조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이 강산에 활짝 꽃피우신 대자연개조의 리정표였으며 천지개벽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5월 21일은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잊을수 없는 뜻깊은 날로 되였으며 조국은 이날을 대를 두고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건설자절로 이 땅에 아로새기였다.

나는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우리 건설자들이 걸어온 발자취인양 우뚝우뚝 솟아있는 크고 작은 건축물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저 멀리로는 하늘높이 솟아오른 **김일성**종합대학 2호교사와 2.8문화회관 그리고 민족적향취가 풍기고 사회주의적내용이 훌륭히 담긴 평양대극장과 인민문화궁전, 볼수록 우아하고 장엄한 평양체육관이며 건축예술이 집대성된 만수대예술극장이 안겨왔다.

우리는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 깨어진 벽돌장으로 집을 지었고 그후 우리의 생활과 문화수준에 맞게 10층, 15층, 20층의 현대적인 고층아파트를 일떠세워 오늘의 천리마거리, 비파거리, 락원거리를 건설하였다.

《공원속의 도시》-오늘의 평양도 좋지만 새로운 거리들이 더 좋게, 더 많이 일떠설 래일의 평양은 또 얼마나 좋을것인가.

하기에 지하의 《무지개》를 타고 지하의 《금강》-지하철도로 내려갈 때, 산뜻한 승강기에 몸을 싣고 하늘가에 치솟은 행복의 요람으로 올라갈 때, 혹은 불 밝은 창가에서 쏟아져내리는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수도의 거리를 조용히 거닐 때 우리는 가슴에 안겨지는 못견딜 환희를 느끼며 뜨거움이 앞서 자주 발걸음을 멈춘다.

그 어디에나 사랑의 이야기 깃들어있고 그 어디서나 행복의 노래, 충성의 노래 차넘치는 혁명의 수도 평양!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에 참가하시여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설의 전력사를 한눈에 바라보는듯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파연 오늘 우리의 건설속도와 건설의 규모,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이 올라섰는가.

그것도 그렇지만 건설자들에게 돌려주신 바다 같은 아버지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또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는가.

그 어디에 가도 사랑의 이야기가 없으랴만 인민문화궁전이 준공되던 그날의 감격을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풍치 좋은 보통강기슭에 인민문화궁전이 일떠선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몸소 성대한 연회를 차리시고 건설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친히 축배잔을 부어주신 아버지수령님!

건설자들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주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이런 좋은 집을 지어주려던 자신의 소원을 동무들이 풀어주었다고 만족해하시면서 《인민문화궁전》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베푸신 그 사랑 끝이 없건만 주셔야 할 사랑을 아직 다 못주신듯 이번에는 인민대학습당을 건설하자고 하시면서 오래전부터 아껴두시였던 제일 좋은 자리에 그 터전을 잡아주셨거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그 사랑, 그 은덕을 천년을 두고 노래한들, 만년을 두고 노래한들 우리 어이 다 노래할수 있으랴.

나는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파사로운 그 사랑을 가슴 후덥게 안아보며 감사에 겨워, 행복에 겨워 새로운 눈으로 들끓는 인민대학습당건설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멀리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을 바라보며 빠른 속도로 일떠서는 인민대학습당!

다가오는 우리 당 제6차대회전으로 인민대학습당 기본건설작업을 기어이 끝낼 불타는 결의밑에 뛰고 내달리는 우리의 건설자들과 수많은 지원자들...

수도의 건설자들과 함께 인민대학습당건설착공

식에 참가하여 첫삽을 박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방대한 기초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기본건물이 시간을 다투며 하늘높이 솟아오르고있다.

승강기며 발브, 열난방관 등 여러가지 건설자재들을 싣고 올 때마다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한바탕 충성의 구슬땀을 흘려보군하지만 일할수록 새힘이 부쩍 솟는 건설장이다.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인민대학습당건설, 어찌 여기 인민대학습당건설장뿐이랴.

강하천을 가로막는 언제건설장들과 수력발전소 건설장들, 산악을 가르고 바다를 가로막는 새 탄전 개발지들과 간석지건설장들...

혁명과 건설, 전진과 기적으로 들끓는 온 조국땅이 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진 여기 보통강기슭에 잇닿아있어 이처럼 아름다와지고 빛나는것이다.

나는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며 아슬하게 치솟은 층막우에서 잠시 허리를 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육중한 거물의 불도젤들과 굴착기들도 성냥갑만하게 작게 보였다.

얼마나 높은곳에 서있는가.

나는 새삼스럽게 높은곳에 올라와있다는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단순한 수직적높이로만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다.

그것은 다름아닌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건설자들과 우리 인민들만이 누릴수 있는 사랑의 높이이며 행복의 탑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리의 주체적인 건설공업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올라섰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시대발전의 척도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둘러러 이렇게 가슴속깊이 꿰뚫다.

우리 나라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 사랑으로 자욱자욱 수놓아지고있거니, 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진 혁명의 수도 평양이여! 나의 조국이여! 그 사랑, 그 은혜 길이 전하며 천만년 무궁토록 길이 번영하라!

조국의 흙

허남기

땅이란 좋구나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땅이란
조국의 흙이란
한없이 좋구나
수령님께서 가꾸어주신
조국의 땅이란
더없이 좋구나

옛날 우리가
고향을 등지고
이국땅 찾아갈 때도
고향에 기름진 땅이 없어
간 것이 아니고
고향에 보습덜 땅이 없어
간 것도 아니고

이국의 거칠은 땅이
조국의 땅보다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우를 지나는 바람이
고향의 그것보다 향기롭고
구수해서가 아니었고

다만 나라를 빼앗기고
겨레를 판놈들이 있어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고
갖은 굴욕 다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네

흙이란 좋구나
땅이란 좋구나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걸게 해주신
조국의 흙이란
더없이 좋구나

흙냄새 훈훈하게 풍기는
기름진 조국의 땅을
두손에 쥐고
이땅
이 흙이
진정 조선의 땅이고
조국의 흙임을
내 몇번이고 몇번이고
되새기노라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특별비행기로
조국땅 처음 밟고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 이 흙을
가슴가득 끌어안고

비오듯 앞을 가리는
두줄기 눈물너머로 안겨오는
조국의 오늘을 눈부시게
바라보며

여기서 천리 저 남쪽
어두운 구름속에 떨고있을
그 고장에도
이 감격, 이 기쁨
나누기 위하여
수령님의 만년장수를
삼가 축원하고
또 축원하나이다

아아,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무지개 비낀 내 조국

김청숙

그날부터 어둠이 가시였어라
일제의 사슬에 휘감기여
겨레의 신음소리 하늘땅에 사무치던
봉건과 가난의 나라, 내 조국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대동강 맑은 물이 환희의 춤추던 그날부터

그날부터
인류의 꿈, 사회주의의 리상은
이 나라 땅우에 수놓아져갔어라
어리신 수령님께서 들메나무에 오르시여
만경봉 봉우리에 치달아오르시여
무지개잡이 하시던 그날부터...

암운이 덮인 조선
령룡한 무지개다리 놓으시려는
그 결심, 그 의지 높뛰던
수령님의 가슴에 비낀 무지개
그 무지개
오늘은 금수의 강산에 비껴있어라

위대한 주체의 빛발아래
사회주의 내 조국은
세계의 리상으로, 인류의 미래로
만사람들 머리우에 휘황히 비끼여라

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내 조국
자주, 자립, 자위의
붉은 기치 나래치고
행복의 노래, 환희의 웃음속에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배우고
다같이 치료받고
다같이 잘사는
비약하는 조선
력사의 앞장을 달리는
주체의 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조국은
차거운 비바람 울부짖는
만리 이역 이국땅에서 살며 싸워가는
우리의 가슴속에 희망의 무지개로
황홀하게 비끼여라
우리의 가슴속에
9월의 맑은 하늘마냥 빛나고
무지개 비낀 내 조국, 사회주의지상락원이
눈부신 빛을 뿌리여라

아,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칠색무지개 찬란히 비낀 강산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
억년 영광이 있으라!

주인들

리량호

내가 그들을 찾았던것은 꼭 삼년만이였다.

이웃현에 살지만 전차를 대여섯시간은 실히 타야 닿는곳이기에 한번 다녀오려면 이틀거리가 되였다. 그러다보니 여간 짬을 내기가 어려워 이태를 못가보고 제사날에 쓸것들을 조금씩 사서 보냈을뿐이였다.

나는 우선 급한 일을 조겨놓고 부랴부랴 달려왔으나 그들이 사는곳에 왔을 때에는 이미 밤 열시가 다됐었다. 달력으로는 마가울이 되는데 더위는 밤이 되어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나는 흐르는 땀을 연신 닦으며 내쳐 걸었다.

과연 일본에서도 이름난 게이헝공업지대는 공기가 탁했고 공장들에서 뿜어대는 악취로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나는 반가운 상봉을 그리며 부지런히 걸었다.

그 집이 가까와질수록 갑자기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고향에서는 그들과 이웃에 살았기에 제집 드나들듯이 친하게 지냈었다. 그런데 해방전 우리보다 일년 앞서 일본으로 건너간 뒤로 통문소식이 없어서 일본귀신이 된줄 알았다. 한데 해방이 된지 이십년만에 고향사람들의 친목회에서 뜻밖의 상봉을 하였다.

그런 뒤로 서로 사는곳이 멀리 떨어져있으나 오가기도 하고 여름철엔 가족들을 데리고 바다가에 사는 우리 집에 와서 며칠씩 묵기도 하면서 옛정을 고스란히 이어왔었다.

나중에는 알았지만 그들은 남반부에 계시는 부모님을 한번 만나려고 《국적》을 그쪽에 두고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민단에 든 그를 탓하지는 않았다. 그들과의 사이는 《국적》이고 리념이고 그 어떤 인위적인 장벽도 막을수 없는 더 깊고 강한 인정과 의리로 맺어져있었다.

그러던차에 그 집 어른은 가고픈 고향에도 못가본채 한스러운 세상을 하직하고말았다.

우리 아버지는 크게 상심을 하면서도 남은 유가족들을 한집안식구처럼 더 각근히 보살피주고 제사날엔 꼭꼭 찾아주었다.

그간에 아버지도 기력이 쇠약해지자 내가 대신으로 찾아가게 되였다.

나는 총련지부에서 사업을 하느라고 몸을 뻗여가가 없어서 차일피일하다가 이 몇해동안 발길

이 떨어지고말았다.

올해 들어와서는 분회열성자대회앞으로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축하문교시를 받들고 사업을 더 치밀히 짜서 분회에 들어가 살다싶이 하는바람에 더욱 바빴다.

《동포들앞에서 일을 본다는 사람이 그만한 눈설미가 없느냐. 사람이란 인정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좀더 마을을 썼더라면 될 일을 가지고 마음편한 속구구를 하다가 마흔이나 된 오늘에 와서 나는 아버지한테서 꾸중을 듣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는 속이 뜨끔했으나 옛 정분을 잊지 않고 친구네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그 의리에 참으로 머리가 수그러지고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그 집앞에 이르니 오래만에 만날 정다운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간에 다들 몸은 성한지 아이들은 잘 크는지.

반가와할 얼굴을 하나하나 짚어가는데 시름이 잔뜩 끼인 그 집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지고 그들이 비낀다.

(아 참, 그랬었지.)

순간 어깨를 내리누르는 책임감과 그간에 찾아오지 못한 자책감으로 내 다리는 천근같이 무거웠다.

한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사이의 의가 그닥 좋지 못했던것이다.

아들이 여름철에 놀러 왔을 때 사건 우리 근처 처녀인데 결혼을 두고 어머니가 틀렸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에 며느리를 자기 손으로 맞으려고 버르던 참인데 처녀를 만나보더니 첫눈에 마음이 안갔다.

리유란 다른것이 아니였다.

첫인사말에 정이 멀어졌던것이다.

일본에서 수십년을 살아왔어도 서먹서먹한 일본말이 첫인사말에 튀어나왔기때문이었다.

근처에도 조선말을 잘하고 행실도 안전한 처녀들이 수태 많은데 하필이면 조선말도 한마디 모르는 일본녀자같은것을 데리고왔냐는것이였다.

조선말을 모를진대 부모들의 사람됨을 알수 있고 말을 모르면 조선풍습도 모를것이니 남의 종자가 다된것인줄로 알았다.

하기야 처녀들이 조선말을 잘 안다치면 총련사

람들일것이지만 그래도 자기 집 며느리만은 조선 말을 아는 똑똑한 조선처녀를 맞아들이리라고 마음먹고있었다.

아들이 의논하러 왔을적에도 나는 어머니의 성미를 잘 알고있었기에 좀 계름직했었다. 하지만 원체 본인들끼리 좋아서 죽느니사느니 하는걸 매정스레 떼어놓을수도 없었다.

본인들이 좋아하니 아무튼 데려다놓고 가르치자고 여러번 어머니를 설득시켜 혼사를 치르었다. 애초에 내키지 않았던 혼처였기에 그후의 생활에서 두사람간에는 쌍곡선이 그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년을 못넘겨서 옥신각신이 자주 벌어졌다.

어머니는 남편이 살았을적엔 마을에서도 어른집대접을 받았는데 남편을 잃자 어디서 사람도 덜된것이 들어와서 근심을 끼치고 집안을 식은구들장같이 만든다고 꾸념과 신세한탄을 하였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가 봉건적이고 자기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준다고 말끝마다 대꾸를 했다.

신식이요, 류행이요 하면서 로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일본사회의 더러운 독소가 우리 동포의 가정에도 미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지만 나는 그 해독성을 새삼스레 느꼈다.

죽으라면 죽는체, 싫어도 좋은체하며 자기보다 부모를 더 섬기는것을 제탄에 도리로 여겨온 어머니로서는 말끝마다 대꾸를 하는것에는 진저리가 났다. 그러니 사이는 더 험악해지기마련이다.

시어머니가 좋게 타일러도 며느리에게는 잔소리로밖에 안들리고 며느리가 잘하려고 해도 시어머니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럴때면 아들은 뺨 집을 나가서 전화로 나의 구원을 바라군하였다.

전화기를 들고 나는 내대로 괜히 투덜거리며 고함을 친다.

《제가 좋아서 데리고 사는 녀편네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사내대장부가 또 우는 소리가. 가뜩이나 외로우실텐데 젊은 사람들한테 구박까지 받으면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 섭섭하겠나. 정신을 좀 똑똑히 차리게, 정신을.》

나는 의례 어머니편을 들게 된다.

그러면서도 나는 두번에 한번쯤은 우정 찾아가기도 하고 불려내기도 하였다.

차근차근 깨우쳐주기도 하고 점잖게 꾸짖어도 보고 또 어떤 편 씩 걸어치우라고 울러메기도 한다. 그러고나면 한동안 잠잠했다가 또 몇달이 못가서 전화가 왔다.

나는 집앞에 서서 잠시 안의 기척을 엿들었다.

잠잠했다.

(그간에 화해가 됐을까.)

하기는 이 몇해동안 아들의 우는 소리를 못들었으니 풀려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반가움과 걱정이 엉켜서 내 심중은 자못 복잡했다.

그러나저러나 도적고양이모양으로 문앞에 오래 서있을수도 없었다.

나는 갈마드는 잡념을 뿌리치고 웃음을 지으며 제집 문을 들어서듯이 대범하게 들어갔다.

《제십니까?》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루에 올라가서 미닫이를 열었다.

《어머니.》

《아니 이게 누군고.》

상우에다 무슨 책을 펴놓고 보던 어머니는 그제야 돋보기를 벗어들며 반색을 한다.

《그간 안녕하셨습니다.》

《아이구, 자네가 오는구나. 자, 어서 이리와 앉게.》

어머니는 엉거주춤 일어나 절을 하는 나의 손을 끌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미안합니다.》

《원 별소리 다 한다. 그래 웃집 어르신네는 다 편안하신가.》

어머니는 얼굴 가득 웃음을 담고 나의 얼굴을 훑는다.

《원, 사람도 온다고 기별이나 하고 올게지. 하기사 자네는 늘 불쑥 나타나더라만.》

어머니는 나의 버릇이 생각키우는지 꾸지람과 반가움을 섞어서 말하였다. 웃는 얼굴을 보니 나도 은근히 기뻐다.

《저녁을 못먹었겠구나.》

《차간에서 먹었습니다.》

《어디 가만있자, 보자.》

만류를 했으나 정주간으로 나갔다. 이윽고 물쫓는 소리가 나더니 인차 들어왔다.

《제집 정주간도 인제는 어디에 무엇이 붙었는지 통 모르겠구나. 어서 넥타이랑 풀고 세수나 하게. 온통 땀이 났구나.》

나는 안해를 시켜 새벽시장에서 사가지고온것을 내놓고 얼굴을 씻었다.

《웬걸 해마다 잊지도 않고 이러느냐. 와주는정만 해도 고마운데...》

정주간은 알뜰하고 정갈하여 주인의 살뜰한 마음씨가 느껴졌다.

세수를 하고있는데 어머니의 전화거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시오, 거기 부분회장이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전화통앞에서 어머니는 수화기를 든채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보였다.

《아, 아가 집에 손님이 왔다. 얼른 오너라.》

대화는 짧막하게 끝났다.

《요새는 밤낮 없단다.》

혼자말처럼 중얼거리고는 가볍게 혀를 찼다.

분명 머느리를 두고 하는 말일것이지만 지난 시기와 같은 짜증이 섞여있지 않았다. 은근한 목소리에서 오히려 자식을 부르는 다정한 어머니의 따스한 정이 찰찰 흐르는것을 나는 감촉할수 있었다.

그러나 부분회장이라고 불러올 사람이 이 집에 있을리 없었다. 그렇다고 아들내외간외에는 손님이 왔다고 급히 부를만한 사람도 따로 없을것이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부분회장이라니 누구니까?》

어머니는 의아해하는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아까부터 연해 짓던 푸 웃음을 띠우는것이었다.

그리고보니 보다가 둔 그 책은 잡지 《조국》이었다.

나는 급히 방을 휘둘러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셨다.

벽에 걸려있는 달력이며 텔레비우에 얹힌 인형들이며가 다 눈에 익은 우리것이었다.

알른알른 정기가 돌도록 닦은 세간들이며 인형 밑에 깔 반치개들을 흰실로 뜬 주인의 마음씨가 전에없이 정겹게 안겨왔다.

나는 새로운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그전에 동생더러 상공회모임이나 우리 대회에도 나가고 조선동포들과도 사귀어야 한다고 일러온터이기에 그간에 좀 생각을 고쳤는가고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입을 빙글썩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자네들이 밤낮 교생을 하는데 우리라고 장 그대로 있겠나.》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나는 여간 반갑지 않았다.

이 집에도 인제는 해빛이 드는가싶으니 나도 한결 마음이 놓였다.

우는 소리만 자꾸 하고 내 말은 귀전으로 흘러버리던 동생도 드디어 제발로 서게 됐구나. 나는 그제야 안도의 숨이 나왔다.

《동생이 언제부터 분회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어머니는 또 상긋이 웃으며 곁에 누워자는 손자애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개가 아니고 이 애 예미가 한단다.》하고 계속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틀림없이 머느리라고 했다. 거기에는 자랑마저 섞여있었다.

조선말 한마디도 모르고 걸핏하면 티각태각하며 나가니 들어오니 하던 머느리가 부분회장을 한다는데는 곧이 들리지 않았다.

더우기 놀란것은 그 무슨 《원썬》처럼 대하던 머느리를 인제는 자랑까지 하고 아들보다 더 머느리의 편을 드는것이였다.

입을 딱 벌리고 뻗해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는 《왜 그리 놀라나.》하고 편잔을 하였다.

틀림없이 반가운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급작스레 달라진 사실앞에 그제 입이 벌어질수밖에 없었다.

《그전같은 생활에 비하면야... 자네들 하는 일이 참 옳네 옳아.》

나는 또 놀랐다.

내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 집 어머니인가.

내가 그전부터 잘 알고있는분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전번에 왔을 때만 하여도 내가 하는 일을 두고 헛고생이라면서 아버지를 돌봐드리라고 했었다.

머느리하고도 의가 좋지 않아서 그런 사람올 괜히 중매했다고 나를 고깝게도 생각하던 어머니였다.

바로 그러던 사람한테서 이렇게 치하를 받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찌된 영문일까.)

내가 얼떨떨해서 궁리를 하는데 문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늦어서 미안합니다.》

청맑은 머느리의 목소리였다.

대뜸 내 귀를 치는것은 조선말이라는것과 어머니의 말을 빌리면 《코뚜레 벗은 송아지》같은 머느리한테서 전화를 건지 몇분 안된것 같은데 《미안하다》는 말이였다. 또 그 말은 아무런 허식도 꾸밈도 없는 진정에서 우러나온 말이였다.

《아 아주버님 오셨습니까.》

머느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제까지 듣지 못한 반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앉아서 공손히 인사를 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데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새 잘 지냈습니까.》

나도 엉겁결에 부산스레 자리를 고쳐앉으며 인사를 했다.

여러번 만났지만 이때처럼 인사차림을 하는 것을 못 본 나는 당황하기까지 하였다.

나는 감전된 사람처럼 온 정신이 얼떨떨해졌다. 이러고있는 나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산모는 좀 먹더냐?》

《언니가 억지로 먹였습니다.》

《에미가 국을 많이 먹어야 젖이 붓지.》

《몸이 난다고 어디 먹으려 하는가요뉘. 참 신식도 탈입니다.》

듣자니까 갓 해산한 댁에 갔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아직 젊은 사람이 신식맛을 하는데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참, 언니가 이걸 줍디다.》

종이로 덮여있는 접시를 어머니에게 보이고 그 는 부엌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자주 나누어준다고 했다. 그 《언니》가 누구라는 말도 없이.

머느리는 자그마한 상에 찬 맥주와 안주를 가져왔다. 거기에는 아까 얻어온것까지 차려졌다.

《더우실텐데 우선 시원한걸 한잔 드세요.》

내 잔에 남실남실 맥주를 따라놓고 어머니에게는 보리차물을 따라다.

나는 그의 말이 하도 신기하게 들리길래 멍하니 그의 입술만 보았다.

그는 여전히 레사롭게 맑은 눈을 깜짝거리며 이야기를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주신 축하문교시를 받들고 돌아다니기때문에 집을 자주 비웁니다.》

(축하문교시를 받들고?)

그의 말에서는 집을 비운다는 미안한 마음보다 흥성거리는 분회사업에 대한 긍지와 만족감 같은것이 풍겼다.

《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을 분회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주인노릇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으나 거기엔 이름 못할 강한 힘이 맥박치고있었다. 동시에 그 말은 나의 가슴팍을 쿵쿵 소리가 나게 치는것이였다.

총련분회열성자 제13차대회앞으로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교시는 나의 범속한 표현으로서도 우리의 총련조직에 날개를 달아주신것 같았다. 교시를 접수하자 일꾼들은 물론이거니와 분회의 동포들도 막 일어섰다.

분회마다 동포가 사는 곳곳에서 움실움실 새로운 움이 트고있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켜

야 한다.》

《주인인 우리가 제구실을 해야 한다. 조국통일을 우리 손으로 해야지 누가 가져다주겠는가.》

분회에서 이러니 지부일꾼들은 말그대로 달리고 뛰는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하지만 이 집에서조차 이럴줄은 정녕 몰랐었다. 나는 확실히 당황했다.

그 말은 나의 온 정신을 송두리채 쏠리게 하는 말이였다.

나는 이 집에서 보낸 몇분간의 사이에 우리 총련사업의 발전속도를 재삼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동포들앞에서 일을 한다는 내자신이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볼줄 몰랐던것이나 아닐가 하는 근심까지 생기는것이였다.

임버릇처럼 현실은 변화발전한다고 외워왔고 또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왔으나 오늘처럼 그 말이 내 가슴에 묵직하게 안겨온 때는 없었다.

그렇진대 내가 아직 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나쁜 경향을 완전히 가시지 못했다는것일가. 내가 사업하는 곳곳에서 그런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죄여들었다.

《우리라고 장 그러고있겠나.》

어머니가 하던 말처럼 많이도 변했다.

나는 가쁜숨을 몰아쉬며 이 집의 변화를 더 정확히 보려고 마음먹었다.

여기에는 반드시 커다란 힘이 작용했을것이고 내가 모르는 무슨 굉장한 사연이 있을것 같았다.

나는 녀 나간 사람모양으로 채워주는 잔을 연거퍼 비우기만 하였다.

누구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든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이 스며들어 씨를 뿌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것은 더없이 기쁘고 감탄할 일이다.

나는 감동과 의심으로 복잡해진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았다.

어떤 능란한 수완으로 《얼음장》같은 이 가정을 녹이였고 사상과 리념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수령님을 우리러 주체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을가. 나는 한편 호기심이 부쩍 났다.

여기에는 내가 꼭 배워야 할 사업의 묘리가 있을것 같았다.

상을 물려놓고 서로 가정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건강과 사업에 대해 피차에 주고받는 그 반갑고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가자 내 마음은 아까부터 머리를 쳐든 그 생각으로 달렸다.

밤이 이슬하여 어머니는 자는 손자를 안고 옷

방으로 올라갔다.

《잠자리를 봐드려야지 않겠소.》

《아주버님도 참.》

시아머니가 주무시려는데 그냥 앉아있는 머느리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으나 초저녁에 이미 이불을 펴놓았다는것이다.

나는 공연한 걱정을 한셈이다.

그러니 내 머리속에는 그전날과 달리 용의주도하고 침착한 가정주부를 똑똑히 못보고 삼년전의 생각이 고집스레 박혀있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아까부터 대화에 자주 나오던 《언니》라는 사람이 이곳 녀맹분회장이라는것을 알았고 그의 힘이 이 집에 뻗쳐졌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옳지, 그랬구나.)

《저에겐 친정어머니같아요. 아니 친정어머님인들...》

어떤 뜻인지 모르나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얼굴을 살짝 붉히는것이였다.

《새상에 어머니보다 좋은게 뭐겠소.》

말을 하고보니 너무나 평범한 말이어서 나도 얼굴을 붉히였다.

《그 언니 친정부모님도 못해준걸 저에게 주었어요.》

《부모가 못해준 일이라니?》

나는 몰라보게 달라진 그를 보고 대강 짐작을 할수 있었으나 되물었다.

《조선사람으로 살게 된것이지요.》

(아하, 참으로 달라졌구나.)

사람이 자기의 존재가치와 자기가 차지한 위치를 알게 된다는것은 크게 성장했다는것을 말할수 있지 않을까.

사실 내앞에 있는 이 사람은 시집살이의 재미도 못보고 얼굴에 어두운 시름을 잔뜩 지고 만날적마다 쿨쩍거리던 몇해전의 그가 아니였다.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내고 조직일을 본다는 내가 진작 옳게 돌봐주지 못하고 애젊은 속을 썩이게 했던 처사에 대한 자책감이 심장을 파고든다. 그럴수록 이처럼 새사람으로 피어나게 해준 녀맹분회장에 대한 고마운 정이 가슴을 가득 메웠다.

당장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싶었다. 나는 그 녀맹분회장을 만나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 듣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가령 그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없이 말하려고 할것인가. 설혹 이야기하더라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웅심깊은 속을 단 몇마디의 말로써는 알아낼수 없

을것이였다.

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셈치고 머느리를 졸랐다.

머느리의 생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분회장의 사업을 배우려는 심산에서였다.

머느리 역시 분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필경 자기의 과거사가 나오게 될것이고 그러면 자기의 흉도 덧붙어나올것이기때문에 말하기 어려울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닌게아니라 그는 부끄러운듯 한참 망설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것인가.

나는 말없이 침을 꿀꺽 삼키고 귀를 강구였다.

그는 벽의 한곳을 이윽도록 보다가 큰 결심을 한듯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는 나를 쳐다보고 생긋이 웃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뜨직뜨직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놓았다

...제가 언니를 알게 된것은 꼭 삼년전이였어요.

아주버님이 전번 다녀가신 그해 가을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언니가 분회장이란것도 모르고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리 어리석었던가 해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면 혼자 웃습니다...

그는 참으로 우스운듯이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얼굴이 발기우려해서 웃었다. 그러고나서 또 한참 주뭇주뭇하더니 이윽고 정색을 해서 말을 시작하였다.

...그날도 하도 속이 답답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달음으로 강둑에 가서 쪼크리고 앉아 실컷 울었지요.

얼마나 울고있었던지 강둑에서 밤마다 마라손련습을 하는 사람, 바람쐬려 나오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꼬리를 물고 달리던 자동차의 소음도 뜸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울어야 하는가.)

전 시집온것마저 후회가 됩디다.

... ..

그는 이야기를 그치더니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아 저런, 얼마나 애를 태웠으면 저럴가.)

하소할곳없이 혼자 아픈 가슴을 안고 모태졌을 그의 모습이 보이는것 같았다.

나는 가슴이 몹시 저렸다. 그를 보기가 민망해서 담배만 피웠다.

잠시 그러고있다가 그는 무엇을 뿌리치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젖더니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하였다.

... 《울고나니 마음이 풀립니까.》 하는 녀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지 않아요.

《에구머니.》

저는 와플 놀라서 돌아보았지요.

언니가 글썽 웃고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에게 눈물을 보인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남이야 울든지 웃든지 참견을 하느냐고 토라져서 돌아서버렸답니다.

그 언닌 잠시 말이 없더니 저의 태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잠잠한 어조로 《좀 앉읍시다.》 하며 팔을 끝었습니다.

《새벽이 이런데서 울기만 해서야 되겠어요. 운다고 일이 절로 되는 법은 없지 않아요.》

여전히 웃는 얼굴로 저를 빠끔히 들여다보잖겠습니까.

알고보니 제가 집을 나올 때부터 따라왔더랬어요.

분회장언닌 우리 집에서 옥신각신하는걸 죄다 알고 그간에 몹시 안타까와했답니다.

걱정을 해서 가끔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어디 받아줍니까.

《우리는 총련이 아닙니다.》 하면서말이에요.

그때는 놈들이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들고 막 떠들어대면서 민단동포집을 찾아다니던 때였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끝이들었했어요. 전 그때 총련이나 민단이 뭔지도 모르고있었구요.

랭대를 받으면서도 분회장언닌 그후에도 여러번 왔습니다.

이웃에 살면서 서로 알고 가까이 지내자면서요.

《어른들은 알고지내니 걱정마이소.》

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이미 놈들한테서 들은 말이 있는데다가 또 젊은 사람들이 들떠 돌아다니면서 가뜩이나 마음에 안드는 머느리에게 이상한 바람을 불어넣을가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하지만 언닌 삶은 얼굴을 한번도 보이지 않고 웃음까지 띄우고있었답니다.

그후 저는 길가에서 만났적에도 어머니가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한가지 리유로 저쪽에서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모른척하고 다녔지요.

아마 언닌 젊은이가 인사성이 어찌 그리도 없는가 해서 저를 고깝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언니가 우정 찾아오던길인데 집앞에 이르니 제가 문을 차고 나가더라나요. 아무래도 미심쩍어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니앞에서 한참동안 추태를 보일수밖에요.

《울고싶을 때에는 울기도 해야지요. 하지만 슬프고 분하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우리들이 고생하신 분들한테 배울점이 더 많지 않을까요.》

머리를 수그리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쓴다면 어찌 충돌이 생기겠어요.

어머니와 안해사이에 끼여 어느쪽편을 들수도 없어, 난처해할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제부터 새살림을 꾸려야 할 사람이 눈물만 흘리면서 긴긴세월 살아가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하여 새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을까요.》

분회장언닌의 말을 들으니 어쩐지 자꾸 눈물이 납니다.

처음엔 남앞에서 가정의 허물을 드러낼것이 부끄러워 울었지만 나중에는 언니의 말이 너그럽고 고마와서 눈물이 자꾸 납니다.

남앞이라는것도 잊어버리고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 뒤에 언니하고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일부러 그렇게 맞춘것이였지요.

저자거리에서 이것저것 고르다가 보면 언니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한테 다가와서 무엇을 사는가, 어머니는 어떤것을 즐기는가, 료리는 어떻게 하는가 묻기도 하고 같이 팔라주면서 만드는 법도 귀뜸해주었습니다.

《가정주부는 가족들의 식성을 잘 알아야 해요.》 하면서.

처음엔 성가신감도 없지 않았지만 들은대로 해보니 역시 잘됩니다.

어떤 때는 같은 찬거리를 사가지고 가서 어느새 만들었는지 자기는 이렇게 만드니까 어른들이 맛있게 잡숫더라고 하면서 뒤문으로 살짝 들이밀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고마와서 체면도 없이 반군하였어요.

언니가 만든것은 일본사람같이 살아온 우리 친정에서는 못먹어본 맛이였어요.

그런 반찬을 내놓는 날이면 어머니도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럴 때면 전 림치불문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분회장언닌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많은것을 깨우쳐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솜씨는 어떤 료리학교에서 배울게 아니라 온갖 민족적수모와 빈곤속에서 익혀 온 맛이예요. 특히 인간이하의 생활고에서 어

쩌다가 식량을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버리지 않게 궁리를 해서 음식을 장만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보니 짝이는데가 있었어요.

입에도 맞지 않는것을 내놓았다가 남으면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 언짢았겠습니까. 그레놓고서도 저는 마음편하게 지냈던거예요. 참...

...그는 후회가 되는듯 어줍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끊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오던 반찬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움직여놓았는가.

나의 눈에는 무심히 보던 음식 한가지를 두고도 세심한 신경을 돌려 짧은 아낙네를 이끌어준 마음씨 좋은 분회장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바로 이것이로구나.)

큰것에만 매달리고 사업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나에게 보여준 좋은 경험이고 채찍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의가 좋아졌겠구만.》

나의 물음에 그는 상긋이 웃더니만 도리질을 하였다.

《더 큰 고리가 있었답니다.》

(더 큰 고리?)

곰곰히 생각해보았으나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 말이였어요.》

(아하 그렇지.) 나는 그제서야 수궁이 되었다.

... ...

《우리 말을 모르니 나이 많은분과 정이 통하겠어요. 말은 곧 민족이라고 하는데, 새댁도 조선말을 배우도록 합시다.》

분회장언니 여태 못배운걸 한탄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배우자면서 꾸짖지 않아요.

사실 전 시집온후 한마디도 조선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제 사이의 간격이 말을 할줄 모르는 데서 생긴것이라는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찢렁했어요.

분회장은 말을 모르면 조선사람이 아니라고까지 하지 않겠어요. 전 정말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배우려 하니 무엇부터 배워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울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선 하루에 한마디씩 배우기로 하고 배우면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배운 첫마디가 어떤 말이겠어요.

어린애들이 맨처음 배우고 쓰는 《어머니》라는 말이였다면 끝이 들립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집와서 아이어머니가 된 후에야 저는 이 말을 처음 배웠답니다.

《오까상》이라는 말밖에 모르고 일본인처럼 살아온 저의 입에서는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디다.

아주버님도 제가 맨처음 시어머니앞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오까상》이라고 하던것을 기억하시지요. 호호호...

...그는 어이가 없었던지 얼굴을 발갱게 하면서 웃었다. 마치 그때의 자기의 잘못을 웃음으로 씻어버리려는듯이.

하지만 그 웃음이 나에게서는 더없이 아픈 지적이었다.

(왜 미리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 가르치지 못했는가.)

나는 모닥불을 뒤집어쓴듯이 얼굴이 화끈했다.

(생전처음 그 말을 하는 그의 심증은 어떠했을까. 귀에 선 말을 따듯한 정을 담아 가장 가깝고 친근한 사람에게 하려 하니 얼마나 어색했겠는가.

나는 참으로 면구해서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저는 속으로 여러번 외워보기도 하고 남몰래 소리를 내어 《어머니》하고 불러도 봤어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앞에서 부르자하니 소리는 어느새 목구멍으로 잦아들고말지 않겠어요. 여러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분회장언니한테서 툭툭히 꾸지람을 들었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무슨 말부터 가르치겠어요. 자기의 옛처지와 결별을 해야 하지 않아요. 조선사람티를 안느라고 숨을 죽이면서 살아온 결과가 어떤것이였어요. 시어머니인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제부터 새출발인데 주저할게 뭘니까.》

그 말을 들으니 저의 가슴도 몹시 아프고 쓰러졌습디다.

저는 그후 버르다가 용기를 내어 《어머니》하고 불렀습니다.

그러고나니 무어라고 할가요. 꼭 십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것 같고 몸이 날아갈듯 개운해 집디다.

처음엔 어머니도 놀라시는것 같습니다.

두번 세번 부르니까 귀에 익어지는것 같고 어찌보면 만족해하는것 같았어요.

... ...

《어머니.》

내 귀에는 너무나 익숙된 말이였다.

이 말을 언제부터 쓰고 불렀는지 내자신도 기억을 못하고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곤난할 때나 불편할 때 《어머니》하고 한번 부르면 모든 감정이 그속에 다

용해되어버린다.

한마디의 어휘로 취급하기에는 거기에 포함된 뜻이 너무도 컸다.

이 한마디의 단어가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꼬여진 매듭을 풀고 인정이 오가게 한 동맥의 역할을 놀았다는것을 알았을 때 나는 새삼스레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럴수록 진작 이 말 한마디를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누르는것이였다.

나의 이런 심중을 알리 없는 그는 여전히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다음부터는 《반찬》, 《아침》, 《저녁》, 《밥》, 《국》…하고 일상시 쓰는 말부터 하나씩 배웠어요.

글을 모르니 앵무새같이 언니한테 들은대로 외울수밖에 없지 않아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허꼬부라진 소리를 잘 알아들을수 없었던것 같아요. 하지만 자꾸 쓰려고 애를 쓰는걸 보고선 듣기 안되었던지 고쳐주지 않았어요.

한 달포나 이렇게 배운후에 분회장이 성인학교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왔답니다.

처음엔 쓴외 보듯이 하던 어머니도 제가 분회장한테서 말공부하는것을 알고 그전같이는 대하지 않았답니다.

《이제부터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능기오. 하지만 본인이 배우려고 애를 쓰나본데 잘 가르쳐주시오.》

또 그전같이 분회장에게 퇴박을 주면 어찌할가 하고 간이 콩알만해서 엇듣고있던 나는 그 말을 들으니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집디다.

… … …

그는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서 그런지 눈을 연신 깜박거리더니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발음이 정확하다고는 말할수 없으나 생활용어는 다 조선말이고 어른들한테서 동냥글을 얻어들었는지 사투리까지 섞이니 웬만한 의사표현에는 막히지 않는상싶었다.

나도 성인학교를 더러 지도해봤지만 이처럼 뻘리 느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가 말을 배우는것도 썩 뻘랐지만 이 집의 변화가 과연 며느리의 성인학교수강에만 원인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피륙 들었다.

나는 분회위원들의 열성에 못이겨 젊은 사람들을 성인학교에는 내보내지만 말만 배우고 다른것은 배우지 말라고 하는 가정들을 더러 보았기때문이다.

이 집도 그런 축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또 혹시 잘못 듣지나 않았는가. 중요한 대목을 빠뜨리지나 않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연이 있었을가.

나는 나대로 이모저모 공리를 해봤다.

그러는데 그는 또 아까 그대로 웃는 얼굴을 지었다.

…제가 무용을 하게 된게 큰 계기가 되었어요.

《무용?》

나는 얼핏 우리 지방에도 자주 오는 가무단과 해마다 한번씩 와서는 만관중의 심장에 흥분과 감동의 세찬 파도를 일으켜 놓는 금강산가극단의 화려한 무대를 련상했다.

하늘에 참으로 선녀가 있다면 그런 무용수들에게 비기겠는가.

나는 천생에 그런 무용수로 타고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무용을 어찌 이런 아주머니들이 할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얼른 말뜻을 알아차릴수가 없었다.

이러고있는 내 꼴이 우스웠던지 그는 나를 한참 보고있다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아주버님도 역시 믿지 못하시는구만요.

그렇구말구요. 제자신이 조선춤을 배우고 출몰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인데요뭘…

어느 하루는 좀 다른 공부를 하자고 하는 분회장을 따라 수강생 넷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우리조선초급학교 문화실로 갔더랬습니다.

저는 이곳에 조선학교가 있다는것도 몰랐었어요.

가보니 큼직한 거울앞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처녀들이 춤련습을 하고있었어요.

《그럼 시작해봅시다.》하고 분회장이 말하자 그 처녀들이 두줄로 나란히 서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합디다.

흥이 절로 나는 음악에 맞추어 미소를 함뻍 담고 춤추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 세상 사람들같이 안보였어요.

팔을 자주 움직이는가 하면 다리를 자주 놀리는 동작, 그러다가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온몸을 쉽없이 움직이는 무용을 보고 전 그만 훌쩍 반해버렸어요.

저는 그때 생전처음으로 조선무용이란것을 보았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활랑거리고 코등이 찌릿해집디다.

한 동작이 끝나면 또 새로운 동작이 나오고 련

달아 별의별 춤이 꼬리를 물고 따라나오는데 전 그때마다 영 판 사람들이 나오는것 같아서 눈도 깜박하지 않고 보고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슴이 두근거립디다. 입을 벌리면 눈물이 확 터질것 같았어요.

처녀들의 춤이 끝나자 이번에는 지부무용소조 아주머니들이 똑같은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전 다시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분회장언니도 들어있었답니다. 늘 가정일에 파묻혀서 가족들의 뒤바라지를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 그래서 더 늙어보이던 그들이 무용을 하니 영영 판 사람으로 보이질 않겠어요. 다 사십 오십에 가까운 사람들이였지만 저의 눈에는 나이가 나지 않는것 같았어요.

저는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다 있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분회장언니 미리 일을 짜놓고 가무단동무들을 불러서 저희들에게 보인것 이랍니다.

그 자리에서 무용을 배우기로 정했답니다.

나이는 아주머니들도 하는데 왜 하고싶은 마음이 안나겠어요.

무용을 시작하면서 저와 같은 문맹자들을 더 많이 데려왔습니다.

요사이는 그때보다 곱절로 늘어났구요.

한시간은 말을 배우고 다음 한시간은 무용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러나 정작 배우려 드니 젊다고 생각했던 몸도 잘 움직이지를 않았고 곧 될상같은 동작도 마음대로 안됩니다.

팔동작에 신경을 쓰면 다리는 면대를 보고있고 다리에 신경을 줌 쓰면 팔은 놓고있거든요.

동작이 마음대로 잘 안되니 땀을 흘리면서 가르치는 가무단동무 보기가 쑥스럽고 계면쩍이 어설픈 웃음이 자꾸 나오더니 나중에는 울고싶어졌어요.

그럴적마다 분회장언니 더 꾸짖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무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언니 더 요구성을 높이는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만한 동작을 익히는게 힘들다고 울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은 이를 악물고 연습을 했어요.

땀을 짹짹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나면 일상시 안하면 움직임이여서 그런지 온몸이 노곤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분회장언니 저희들을 둘러앉혀놓고 타이르지요.

《나이가 많은 어머니들이 어째서 무용을 하고 어떤 심정으로 춤을 추는가를 생각해보세요.》

분회장의 말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다고 눈물을 흘리지만 저 어머니들은 가슴속에 맺힌 피멍을 짜낸다는것이였어요.

《나라가 없을 땐 학교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고 사람취급을 못받았어요. 그러니 배우고 싶은것도 못배우고 하고싶은 일도 못하고 목숨만 붙어있었지 죽은거나 다름없었지요.

재능과 소질이 있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고 희망인들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저 아주머니들은 조국이 있고 총련조직이 있어 때는 늦었지만 무용을 함으로써 허무하게 흘러보낸 한스러운 평생을 위로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춤을 춤으로써 해방된 녀성의 기쁨을 맛보고 잃어버린 청춘을 마음속에서라도 찾자고 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들은 무용을 취미거리로 배우는것도 아니고 따라서 무용을 핑계로 일을 쉬는게 아니라 더 많이 하고 더 잘한답니다.》

분회장자신을 두고도 바로 그랬어요.

시집온후에는 토목일을 하는 집이라 여라문명되는 일꾼들의 밥을 짓고 뒤바라지를 해야 하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쁜분이랍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워 분회장사업을 하고있답니다.

무용을 배우면서도 가정일에 대해서는 한번도 압박에 난적이 없고 일을 더 많이 한답니다.

저는 분회장언니앞에서 머리를 들수 없었어요.

먹기 위해서 하는 고역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배우는것마저 힘들어했던 자신을 뉘우치지 않을수 없었어요.

무용동작을 두고서도 분회장은 많이 가르쳐주었어요.

연습을 해가면 또 힘들다는 생각이 머리를 쳐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의례 분회장의 꾸지람이 따랐어요. 하지만 어떤지 분회장언니의 꾸중이 싫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하여 무용을 배우는게 아니예요. 여태까지 자기자신도 모르는사이에 끼이고쌍인 더러운 생각과 때를 벗어버리고 조선민족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배우는거예요. 우리들이 배우는 동작 하나하나로 조선민족의 밝은 정신으로 몸가짐한다는것을 명심합시다.》

그 말이 저의 심장을 어떻게나 파고드는지 그 날 밤에는 잠을 이룰수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한 일년쯤 배우고나니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기본동작도 대강 다 배울수 있었습니다.

올해 7월 30일에는 큰 무대에까지 나갔습니다.

우리 녀성들의 명절날이었거든요.

무용련습은 더 바빴어요.

녀맹분회장은 그 바쁜 날에도 무용소조원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시어머니들을 대회에 꼭 나가자고 다짐을 받아놓았답니다.

저는 뜻깊은 명절날에 무용을 하게 된것이 어찌나 기뻐던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맨먼저 대회장으로 갔더랬습니다.

전 아직 그런 행복한 날을 보낸적이 없었습니다.

녀성이 해방되었다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집에 박혀있을 때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단 룡칠분의 짧은 춤이었으나 그것은 저의 평생에 체험해보지 못한 가장 고귀한 순간이고 근 삼십년간의 생활의 맺음이면서 새로운 출발, 재생의 무대였습니다.

춤추는 그 순간 저는 참말로 해방이 되었구나 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용하는 어머니들의 눈과 눈, 심장과 심장이 주고받는 말은 오직 한마디뿐이었어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에서 저희들은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하여 주신 수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말도 채 마치기전에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면서 어깨를 들먹거렸다.

나도 호주머니를 뒤적이었다.

우리는 한참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이 행복한 순간을 서투른 말로써 깨뜨리기가 저어되었다. 아니 어떤 말로써도 복받쳐오르는 이 격정을 표현할수 없었다.

시간은 한정없이 흘렀다.

이윽고 눈물 섞인 소리로 그는 이야기끝을 간단히 맺었다.

...돌아오는 버스칸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분회장에게 먼저 말을 건넸답니다.

《녀맹분회장, 고맙습니다. 주책머리없이 애를 태운 이 늙은걸 용서하이소.》

어머니는 오늘까지 박정하게 대했던것을 사과하였답니다.

.....

이야기를 마치고 그는 호— 하고 가벼운 한숨을 쉬었다.

이야기는 마쳤으나 그 여운이 내 마음속에 끝

없는 파문을 일으켜놓았다.

삼년전까지는 이 세상의 고생을 자기혼자 맡아 하는듯한 이 사람이 지금은 어린애와 같이 천진스러운 정도로 자기자랑을 한다. 듣는 내 마음까지 밝아지고 새로운 밝고 청신한 정신으로 승화되는것 같았다.

자정이 될무렵에야 이 집 아들이 돌아왔다.

상공회에서 하는 성인학교를 필한후 새로 점방을 차린 동포상공인의 개점축하모임에 참가하는 바람에 늦어졌다는것이였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반가운 상봉을 하였다.

나는 흔들리는 차에 몸을 내맡기고 차창밖에 눈길을 던졌다.

늘 즐겨보던 전야의 풍경도 눈에 비치지를 않았다.

다만 내가 어른이랍시고 꾸짖고 훈계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옹계 세우려고 했던 한 가정, 응당 가까이 지내는 고향사람으로서, 일군으로서 내가 책임을 졌어야 할 이 가정에 해빛이 들게 하여 주고 커다란 불씨를 지펴준 미지의 그 분회장의 모습이 얼른거릴뿐이다. 어데서인가 틀림없이 만난듯한 그 얼굴이.

녀맹분회장을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으나 만나지는 않았다.

단 하나의 신념,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하려는 뜨거운 심장만을 안고 살며 일하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것 같았다.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는 그 어떤 묘리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불같은 심장, 이것외에 더 무엇이 필요할것인가.

내 눈앞에는 식을줄 모르는 정열과 지혜를 안고 동포들이 사는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는 무수한 그 분회장이 나타난다.

《주인!》

내가 사업하는 지역에도 활기찬 주인들의 얼굴들이 많이 보인다. 날더러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오라고 재촉한다.

차창너머로 전주들이 편뜻편뜻 물러간다. 마치 나의 낡은 생각을 날려보내듯이.

그렇다! 그 사람들의 힘을 똑똑히 보고 그들과 힘을 합쳐 본때있게 일을 하자.

나의 온몸에서 새로운 힘이 부쩍부쩍 솟구쳤다.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의 탐구

김흥섭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을 탐구하고 그를 훌륭히 형상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로동계급의 전형을 형상할 과업은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하고 그에 복무하는 무산계급문학이 발생한후 계속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것이지만 현시기 특히 영예롭고 중대한것으로 우리 문학앞에 나르고있다.

그것을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혁명문학의 본성적요구와 관련되어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인간학에서는 로동계급의 문학으로서의 그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물형상창조에서 그 중심에 로동계급을 내세워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우리 문학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열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과 새 생활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우리 문학은 새 생활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인 로동계급을 전형화하여 그것을 통해 인민대중을 당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하는 자기의 무거운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로동계급은 현시기 시대정신의 체현자이며 시대의 가장 선진적인 계급으로 시대의 주도적흐름의 앞장에서 다른 계급을 령도하면서 새 생활을 창조하고있다.

항일혁명문학의 뿌리에서 자라난 우리의 주체적혁명문학은 로동계급의 전형창조에서 자랑스런 창작적성과를 이룩하여왔으며 특히 최근시기 장, 중편소설분야에서 빛나는 창작경험들을 축적하였다.

장편소설들인 《평양시간》, 《생명수》를 비롯하여 《로동가정》 그리고 중편소설들인 《불바람》, 《강물은 한곳으로》에 형상된 로동계급의 전형들은 시대의 본보기로 되고있으며 주체형의 인간의 참된 구감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색하고 살며 일하고 투쟁할것인가를 생동하게 가르쳐주

고있으며 전형화의 창작적기교를 훌륭히 배워주고있다.

우리 소설가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서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을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재현하는데서 커다란 창작적성과들을 거두었다. 소설가들이 공장과 건설장들에 찾아가서 특별히 관심을 돌린것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공장이나 농촌에 내려가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새형의 인간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잘 연구하는것입니다.》

우리 소설가들은 3대혁명이 심화발전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어 가고있는 벅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새형의 인간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성격을 심도있게 탐구하였으며 조선로동계급의 전형을 생동한 대서사시적인 묘사의 화폭속에 담아냈다.

오늘 우리의 소설문학이 로동계급의 전형화에서 거둔 중요한 창작적성과는 무엇보다 로동계급의 계급적본질을 심오히 일반화하고 그를 생동한 개정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전형적인 생활이란 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하고있는 생활이라고 가르치고있다.

전형은 계급적본질이 반영된 성격형상이다. 계급적본질은 전형의 기본징표로 된다. 그것은 인간성격이 사회계급적처지에 의하여 규정되며 인간성격의 본질적특질이 계급성에 있기때문이다.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성격에서 규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계급적본질이다.

전형은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체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혁명성, 문화성을 깊이있게 일반화하여야 로동계급의 전형이 될수 있으며 그를 생동한 개성으로 보여주어야 참으로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이 진실하게 형상될수 있다.

장편소설 《로동가정》은 가정혁명화와 로동생활에서 발현되는 광록이의 조직적관념과 조직생활을 보편성이 있으면서도 개성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있다.

오랜 로동자인 중심주인공 광록은 삼석이가 자유주의를 극복하도록 교양주어달라고 사로청조직에 의거도 하고 자기 가정의 결함을 당조직에 찾아가 심각히 자기비판도 하며 로동생활에서 조직

성과 규률성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긴다.

80고령인 촌보로인도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부대인 로동계급다운 맛이 난다. 순옥이가 출근시간이 늦어지는데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나무라는 하나의 세부묘사를 통해서도 그의 본질적인 성격적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인물들의 계급적본질을 독특한 얼굴로 보여주고있다.

촌보로인은 오랜 광산로동자로서 대가 굳으나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녀들에게 의견이 있으면 조용히 타이르고있다. 순옥이나 성숙이, 두석이나 삼석에 대한 그의 교양과정이 그러하다.

오랜 《쇠돌집안》의 기둥인 광록이도 똑똑한 성미나 속이 깊고 온순하다. 순옥이, 삼석이가 파오를 범하였을 때 자책감에 모대기는 그의 내면세계는 얼마나 깊은가. 그러나 두석이가 로동계급을 모욕하였을 때는 로동계급다운 그 본성이 날카롭게 드러나 책상을 치며 《버럭덩이》같은 자식이라고 불호령을 내린다. 자식에 대한 광록이의 사랑은 어루만지고 잔정을 베푸는데서가 아니라 요구성을 끝없이 높이는데서 독특하게 나타나고있다. 삼석이가 위험한 벼랑턱에서 일하는것을 보고 광록은 내려오라고 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아들에 대한 광록이의 속깊은 사랑이 있다.

소설은 로동계급에게 고유한 혁명성과 문화성도 그의 조직성을 보여주는것처럼 그렇게 잘 개성화하여 생활의 모양대로 보여주고있다.

《로동가정》에서 《쇠돌집안》사람들은 온화하면서도 얼마나 품위있는 문화생활을 하고있는것인가.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을 옳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와 갈등조직에서 로동계급의 위치와 역할을 정당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로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과정이며 로동계급은 령도계급으로서 다른 계급과 계층을 로동계급화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심화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는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며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된다.

우리 소설문학은 이런 현실적요구를 시대의 높이에서 옳게 구현하고있다.

《로동가정》의 촌보와 광록은 자기 계급의 위치와 역할, 계급적근본을 잊지 않고 그를 가장 영예롭게 고수하고있는 오랜 로동계급의 전형들이다.

그들이야말로 한생을 로동계급의 본색대로 변색을 모르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로동가정》에서는 오랜 로동계급의 권위를 응

당한 높이에서 그리고있으며 정희의 가정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와 역할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것을 제일 가슴아파하는것이 오랜 로동계급들이다. 그러기에 삼석이가 광부의 이름을 걸고 자유주의를 부렸을 때 광부의 영예를 도적질했다고 광록이는 그리도 노하는것이다. 촌보는 언제나 로동계급의 근본을 잊지 말라고 자녀들을 깨우쳐주며 자신은 늘쌍파거와의 대조속에서 생활하고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본질을 진실하게 묘사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위치와 역할을 정당하게 보여주는것을 통하여 벽천 현실속에서 새롭게 발현되고있는 그들의 전형적성격을 깊이 탐구하고 세련된 창작적기교로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우리 소설문학의 화폭속에 각각된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소설문학에 반영된 우리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여 우러러모시고있으며 수령님의 교시를 신념화하고 그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있으며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도록 후대들을 이끌어나가고있다.

광록은 자기 가정의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찾고 쇠돌을 캐며 행복하게 산다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광록은 아버지수령님께서 기울여주시는 은정에서 자기와 자기 자식들, 온 나라 로동계급의 운명을 보고있다. 그의 온 넋을 틀어잡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생각뿐이다. 광록은 작품의 해결부분에서 《쇠돌집안》의 곡절많은 지난날의 생활을 총화지으면서 두석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로동계급의 충성심을 안구 이 쇠돌산의 영원한 주인이 되자. 나두, 너두, 한석이두, 삼석이두 모두가 주인이 되자...》

참으로 광록이의 일생의 념원은 자기를 나라의 만아들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에 대를 이어 보답하려는 그 끝을 모르는 충성심이다.

소설문학에서 탐구된 우리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은 또한 그의 영웅성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자기의 영웅적인 정신세계와 위훈으로 하여 세인을 경탄시키고있으며 력사에 전례없는 영웅성을 발휘하고있다.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의 앞장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하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의 시대적성격은 웅당 영웅적성격으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전형적성격은 또한 영웅성으로 빛나야 할것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사회주의제

도하에서 마음껏 자기의 창조적활동을 하고있는 우리 노동계급의 영웅성은 한두사람의 노동자들 속에서 나타나고있는것이 아니라 수천수만의 노동자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대중적영웅주의이다.

주인공을 비롯한 중요인물들을 통한 영웅성의 탐구와 대중적영웅주의의 구현, 여기에 영웅적조선노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의 진면모를 재현하는데서 우리 장, 중편 소설문학이 거둔 창작적성과의 하나가 있다.

광록의 성격은 주로 가정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묘사되고있으나 범산개발을 위한 투쟁에서 발현되는 높은 정신세계와 영웅적위훈을 깊이 보여준 것으로 하여 영웅적노동계급의 도도한 기상을 훌륭히 형상할수 있었다.

우리 노동계급은 누구나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있으며 로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빛내이고 사회주의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조국통일과 주체위업의 완성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사회주의공업의 나라로 되고 3대기술혁명이 빛나게 수행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노동생활을 묘사하는것도 시대적높이에서 진실하게 그럴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소설들은 기술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그 과정에서 발현되는 노동계급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춘보는 집에 앉아서 적당한 하루를 소일하고있는 로인이 아니다. 새벽이면 공원청소를 맡아서 하고 낮이면 광구로 올라가서 대형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산정길을 손질하는 《도로보수공》이 되기도 하고 광구분창고 앞마당을 쓰는 《청소부》가 되는가 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감시원》, 《초소장》이 되기도 하며 광산일군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기도 한다. 로동은 춘보로인의 생명이며 녀이다. 로동하지 않고 산다는것은 그에게 있어서 두손과 녀를 잃는다는것을 의미한다.

광록의 인생철학은 《사람은 한평생 손에서 일을 놓지 말아야 한다. 손에서 일을 놓으면 손이 편안해지고 손이 편안해지면 안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행복이 눈을 거쳐 사람들속으로 들어오는것이 아니라 오직 쉬지 않고 일하는 손을 거쳐서 얻어지는때문이고 죽음이라는것도 역시 사람의 손이 게을러지는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는것이다.

광록은 일을 잘하기 위하여 55살나이에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며 전문학교공부를 시작한다. 그는

로동을 끝없이 신성시하고 오로지 일만을 아는 일꾼이다. 너무 무리하여 목이 부어 말을 못하면 서도 숨어서 일하며 범산개발을 위해 자기의 밤을 바친다.

참으로 노동계급은 일하는 맛, 로동의 진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광록의 성격은 현대적기술수단에 의한 범산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부각됨으로써 기술혁명의 시대에 로동하는 우리 노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의 높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소설문학은 정당하게도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문제가 해결되고 기술로동을 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노동계급의 로동생활을 진실하게 전형화하고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노동속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고있는 노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보여주고있을뿐만아니라 조선노동계급에게 고유한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다양한 각도에서 폭넓게 전형화하고있다.

우리 장, 중편소설문학의 화폭속에 담겨진 노동계급의 전형들은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의 본보기이다. 그것은 주로 그들의 고결하고 풍부한 정신도덕적품모를 통하여 나타나고있다.

《로동가정》에서 자녀교양에서 나타난 결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춘보, 광록, 보패의 겸손성, 두석이를 비롯한 기술자들을 고무하여 끝내 대발파를 성공하도록 밀어주는 광록이의 강毅한 의지, 주인다운 자각과 자력갱생의 정신, 광부의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한 그들은 후더운 인간애도 가지고있다.

참으로 력사에 튼튼한 우리 노동계급의 아름답고 고상한 전형적성격의 화랑이 소설문학의 화폭우에 찬란히 펼쳐지고있다.

최근년간 우리의 장, 중편소설문학은 진실로 의의있는 노동계급의 전형들을 수많은 창조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있다.

춘보, 광록이 등 우리 노동계급의 예술적전형들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전진하는 우리 시대, 3대혁명의 시대를 빛나게 보여주면서 문학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보충하고있으며 인민들에 대한 긍정감화교양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노동계급의 력사적위업에 복무하는 우리 소설문학은 노동계급의 전형창조와 전형적성격탐구에서 이룩한 고귀한 창작적경험을 공고발전시키면서 더욱 참신하고 의의깊은 노동계급의 전형을 더 많이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슬고개집 딸

차 승 철

미산읍에서 사는 사람 치고 군소비조합상점 판매원인 선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그마한 키에 살결이 희얌은 이 처녀는 언제나 사람들의 청을 끌었다. 웃음이 남실거리는 가늘사한 눈매며 동그스름한 아래턱과 말을 할 때면 한쪽으로 약간 쏠리군하는 작은 입모습까지도 사람들에게는 퍼그나 귀엽게 보였다.

읍으로 뻗은 신작로를 따라 바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이숙이는 예쁘고 착실한 선희를 생각하고 있었다. 읍에서 십리가량 떨어진 오리말에서 사는 그는 선희가 있는 소비조합상점에 새로 들어왔다는 옥양목을 사러 가는길이었다.

올가을에 성례를 치르게 될 시동생에게 줄 이부자리감이었다. 서른고개를 갓 넘긴 이숙이의 걸음은 눈에 뜨일만큼 활기로왔다. 혈색좋은 갈숨한 얼굴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살림을 거느린 주부로서의 즐거움이 여울쳤다. 하긴 그럴만도 했다. 토지개혁때 받은 논 이천정과 밭 이틀갈이는 근면한 실농군인 이숙이 내외에게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게딱지같은 오막살이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마루가 달린 여섯간짜리 돌기와집을 세웠으며 올봄에는 선희의 알선으로 자개가 박힌 새 이불장과 라지오까지 장만했다. 거기에다 시동생을 장가들이는 경사가 겹친것이다. 읍거리가 가까와올수록 이숙이의 걸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오늘은 장날이었다. 검푸른 벼포기들이 아지를 치며 우뚝우뚝 자라는 논벌가운데로 곧추 뻗은 신작로는 장군들로 뒤덮이었다. 우시장에 아침 마수거리 황소홍정을 가는듯한 농민들이 막걸리에 거나하게 취해서 지나가다가 하면 칸칸마다에서 빨간 변두들이 얼씬거리는 닭장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는 닭장사령감도 있었다.

《모두다 1949~1950년 2개년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에로!》라는 길다란 표어가 가로 걸린 다리목을 지난 이숙이는 읍거리에 들어섰다. 머리에 썼던 무명수건을 벗어두고 얼굴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거리를 누벼가는 이숙이의 눈앞에는 눈결같이 하얀 옥양목필만이 어른거렸다. 자칫 걸음이 늦어서 오래전부터 별러오던 그 귀한것을 못사고 놓쳐버릴것 같은 조바심이 앞서기도 하였다.

소비조합상점은 읍거리 중심의 네거리결에 자리 잡고있었다. 그 집은 일제때 《화신》상점이

틀고있었던 이층집이었는데 큼직한 유리미닫이가 활짝 열려진 출입문으로는 사람들이 연신 나들고있었다. 이숙이가 치마자락을 여며잡고 상점안에 사분히 들어섰을 때 선희는 매대앞에서 물건을 파느라고 한창 분주했다. 이숙이는 남실거리는 웃음을 담고 손님들의 물음에 상냥한 대답을 주곤하는 그 모습을 보는것만으로도 조급했던 마음이 저으기 능처졌다.

《아지미, 수고해요.》

베적삼을 입은 중늙은이에게 도배지마리를 내주던 선희는 이숙이의 목소리에 얼핏 고개를 돌리었다.

《아이, 아주머니.》

유리진렬장에 한손을 얹은채 미끄러지듯 다가온 선희는 이숙이의 토실토실한 손목을 담쑥 잡았다.

《집에서랑 모두 편안하세요?》

《잘 있지 않구.》

자기를 반겨주는 선희를 대하는 이숙이는 망량 즐거웠다. 필경 선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곰살궂게 굴겠지만 자기에게만 남달리 살뜰한것으로 느껴졌던것이다. 일곱살때부터 남의 집에서 부엌데기노릇을 해오면서 눈치가 여물대로 여문 자기라고 믿어오는 이숙이로서는 선희를 그렇게 보는것이 결코 चे나름의 짐작이라고만 생각지 않았다. 그만큼 이숙이를 맞아주는 선희에게서는 살뜰한 정이 안겨왔던것이다.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선희의 물음을 받고야 이숙이는 매대안을 넘보았다.

《옥양목이 들어왔다기에.》

순간 선희는 딱한 기색을 지었다.

《야, 금시 다 나갔는데.》

제쪽에서 먼저 미안해하는바람에 이숙이가 다 음말을 고르지 못하는데 선희는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뭇에 쓸거나요?》

《저, 시동생 잔치에 쓰려구.》

그 대답에 선희는 얼굴을 붉히는듯하더니 인차 정색을 했다.

《잔치가 언제게요?》

《아직 멀기는 해. 가을쯤, 그렇지만 미리 마련해두어야겠기에.》

처녀는 철쭉 켜 손으로 턱을 고이고 뭔가 잠시 생각하더니 매대뒤로 사라졌다. 이숙이는 선희가 안으로 들어간것은 필시 옥양목때문일거라고 기대하며 조용히 기다렸다. 선희는 곧 매대로 나왔다.

《수고스러운대로 한번 더 걸음을 하셔야겠어요.》

《천만 준다면 열번이라두...》

《다음 일요일날 다시 내려오세요.》

《정말?》

《정말 아니구요.》

랑패로 여겼던 일이 그렇게 쉽사리 풀린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눈이 동그래지는 이숙이에 선희는 낮게 속삭였다.

《꼭 오셔야 해요. 내놓았다가 드릴테니.》

이숙이는 선희의 말이 틀림없을거라고 믿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상점문을 나섰다. 옥양목을 금시 손에 넣기라도 한듯 마음이 폭 놓이었다. 그만큼 이숙이는 선희의 약속을 믿었다.

이숙이가 선희를 처음 알게 된것은 첫 선거가 있던 1946년 가을이었다. 군에서 파견된 선거위원으로 오리말에 내려와있던 선희는 저녁마다 열리는 마을의 성인학교에 자주 찾아오곤했다. 낮 놓고 《ㄱ》로부터 우리 글을 배워가던 마을사람들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바드는 첫 선거에 대해서 와 세상형편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는 처녀선거위원과 인차 친숙해갔다. 이숙이도 선희와 가까워졌다. 속이 여물면서도 레절바른 이 처녀가 멀지 않은 송전리에서 솟구이를 하며 가난하게 살던 《술고개집》딸이며 읍제사공장에서 녀직공으로 일하다가 새로 생긴 소비조합상점의 판매원이 되었다는것과 것처럼 쳐다보이는 처녀의 《지식》이 할아버지앞에서 모래목판을 종이삼아 배운거라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무관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고보니 여기 사람들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운듯 홍조가 어린 얼굴로 떠듬떠듬 말하는 선희의 서툰 연설이 이전에 마을 공회당에 사흘거리로 나타나던 멧쟁이 《주의자》들의 목고대높은 《웅변》보다 몇십배의 감화력을 가지고 귀에 들어오는것이였다.

푸르스름한 달빛과 온 마을을 부드럽게 감싼 어느 가을밤, 이숙이와 선희는 성인학교 교실에 단 둘이 앉아있었다. 그들은 맨앞줄에 놓인 이숙이 책상에 팔굽을 나란히 고이고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글 배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좀 어렵지만 재미가 나요.》

《호호호, 그래서 밤늦도록 혼자...》

책상에 놓인 학습장을 한장한장 번져보던 선희는 방금 이숙이가 써놓은 글줄에 눈길을 모두었다. 《술선》이라는 단어로 지은 짧은글이였다.

《너도나도 힘을 모아 새 조선 건설에 술선 이바지합시다.》

이숙이는 획이 고르지 못한 제 글을 남에게 보이는것이 쑥스러웠지만 제생각을 또박또박 옮겨놓은 글자들이 선희의 입에서 노래처럼 읽혀지는것이 어찌나 고맙고 신기한지 몰랐다. 제가 쓴 글이 남의 목소리로 이렇게 류창하게 울리는것을 처음 들어보는 이숙이였던것이다.

글에서 눈을 떼 선희는 무슨 말을 할듯말듯하면서도 아무 소리없이 이숙이를 말끄러미 마주보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도 무슨 큰일을 한 언니를 대하는 동생과 같은 정다운것이였다.

고요히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적을 애무하듯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리인 동리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꿀꺽듯말듯 처량하게 울려오는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선희는 나직이 뇌이였다.

《누군지 목청이 굵구만요.》

《목청은 고운데 너무 청승맞지 않아요.》

《청승스러운게 싫은가보지요?》

《진저리가 나요. 궁상맞게 뭐가 그립다는거예요? 노래두 참.》

짜증 섞인 이숙이의 에 선희는 방그레 웃음을 지었다.

《왜 웃나요?》

《아주머니 말이 재미 있어서요. 그 색각이 좋아요. 제 살던 옛 고향을 그리워나 하면 뭘하겠어요. 누구나가 잘살 새 나라를 세워야지요 뭐. 두고 보세요. 어버이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꽃동산으로 되는가를, 그때에는 이 오리말도 몰라보게 될거예요.》

성인학교를 나선 그들은 마을길을 조용히 걸었다. 구름한점 없이 말쑥한 밤하늘에는 하현달을 둘러싼 못별들이 저마끔 재롱을 부리듯 깜빡이고 있었다. 이숙이는 그 별무리에 얼굴을 맞대기라도 하려는듯 고개를 젖혔다.

제일 가까와보이는 별에 눈길이 끌리느라면 어느 별이 더 가까와보인다.

다음엔 또 다른 별이... 이숙이는 전에없이 자기를 유혹하는 별세계에 날아오른듯한 기분에 휩싸여 남의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엔 나같은것도 때를 벗고 살게 될가?》
《때를 벗다뿐이겠어요. 지금보다 더 젊어질거예요. 그러구.》

《...?!》

《더 예뻐지구.》

《아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나는 그렇다 치구
아지민 더 큰일을 말아하겠지?》

《호호호... 그때도 판매원이지요 뭐.》

《만날 그 일만 하겠어?》

《그 일이 어때서요.》

어깨를 스치는 키버들가지를 살며시 풀어넘긴
선희는 나직이 물었다.

《아주머니도 물건을 사실 때에는 기쁘겠지요?》

《기쁘지 않구.》

솔직한 이숙이의 대답에 선희는 유쾌해졌다.

《누구나 집에 없던걸 상점에서 사들일 때에는
아주머니처럼 즐거울거예요. 그러니 판매원은 사
람들의 기쁜 얼굴을 아주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보게 되지요 뭐. 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보
는 그 일이 제일 좋아요.》

달밖은 그 밤에 한 선희의 말은 빈소리가 아니
였다. 그때로부터 해와 달이 여러번 바뀌는동안
오리말은 새 기와집이 줄지어 들어앉은 오붓한
마을로 되었으며 이숙이네 살림도 기름기가 돌도
록 퍼이였다. 《촌바우》로 불리우던 동네 청년들
은 촌때를 벗은 《신식》청년으로 되었으며 남의
집 풀머슴을 하던 목동아이들이 아는것이 많은
중학생이 되어 대처바람을 몰아왔다. 거리와 마을
은 새삶의 생기에 넘치고 사람들은 명랑하고 활
기로와졌으며 들판은 기름져가는데 많은 젊은
이들이 자기의 희망에 따라 새 일터와 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술고개집》팔 선희는 소
비조합상점의 자그마한 매대를 여전히 지키고 서
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변함없는 웃음으로 맞이하
군했다...

제생각에 잠겨 발부리를 굽어보며 걷던 이숙이
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다.

아래마을의 새독집머느리가 신신당부하던 부탁
을 깜박 잊고 그냥 왔던것이다. 잠시 망설이던 이
숙이는 다시 소비조합상점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한것이 거의 가까와오는 상점은 퍼그나 조용했
다. 선희는 매대에 찾아온 어떤 청년과 한창 이야
기를 나누고있었다. 먼발치에서 그들의 대화가 끝
나기를 기다리는 이숙이에게는 정이 쏟아지게 소
곤거리리는 수박색양복차림의 청년과 선희사이가
보통 가깝지 않게 보이였다.

(저렇게 살뜰하니 왜 총각들이 따르지 않겠어.
이제는 시집갈 나이도 되었지 뭐. 처녀나이 스물넷
이 작은가. 아이 하나는 밀졌는걸...)

이숙이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슬며시 밖
으로 나왔다. 별로 하는 일없이 장마당을 한바퀴
돌고나서 다시 상점에 와보니 선희는 없고 나이
가 지숙한 점장아바이가 매대에 서있었다.

사유를 듣고난 점장은 선희가 점심을 먹으려
갔으니 상점뒤에 가서 만나라고 친절히 알려주었
다. 사람좋은 그의 얼굴에는 선희를 이렇게 찾아
오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매우 반가운 손님이라는
호의가 어려있었다.

상점뒤의 널직한 안마당에는 공장에서 금시 나
온듯한 보습날이며 제초기, 상자에 넣은 각가지
상품이 쌓여있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곳에 함부로 들어섰다는 조
심스런 생각이 들며 잠시 머뭇거리는데 창고에서
새 가마들을 들어내던 선희가 마주왔다.

《어떻게 또 오셨어요?》

《새독집 수돌이 엄마가 부탁하던걸 깜박 잊어
서...》

《그래요?》

《다른게 아니예요. 요먼저 우리 동네에 이동판
매를 나와서 팔아준 책가방 있지 않아?》

선희는 잠시 기억을 더듬는듯하더니 생각이 난
다는듯 고개를 까딱거렸다.

《학생아이들 멜가방말이지요?》

《옳아, 토끼그림이 붙은 파란 멜가방말이야. 그
걸 사준 날부터 수돌이가 학교도 잘 가구 공부도
씩 잘한대요. 심술만 자꾸 부려 속을 태우던 애가
그렇게 썸이 드니 먹는게 살루 간다누만. 내려가
면 판매원아지미를 꼭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전
해달라구 몇번이나 외우던데.》

《참 아주머니두, 그거야 내가 받을 인산가요 뭐.
난 또 무슨 큰 부탁이나 받으셨다구...》

《크지 않구요. 글썄 수돌이녀석이 잘 때에도 그
가방을 안고 잔대요.》

이숙이는 전에없이 수다스러워진 자신이 좀 놀
람기는 했으나 지금 자기가 남의 부탁만이 아닌
절실한 말을 터놓고있다는것으로 하여 즐거워졌
다.

《아이 고 깜찍한것!》

선희는 그 응석반이의 귀여운 모습이 금시 비
쳐오는듯 눈을 빛내이며 밝게 웃었다. 이숙이에게
는 선희의 그 미소가 더없이 소중했다. 새독집머
느리의 부탁을 제때에 전한것이 얼마나 다행스러
운 일인가. 자칫하면 선희의 얼굴에 밝게 피어나
고있는 저 미소를 놓쳐버릴뻔했다고 생각하니 못
할짓을 할뻔한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려지는것이였
다. 선희가 이런 제 속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듯
얼굴이 달아오른 이숙이는 선희의 일을 거들어주
기 시작했다.

선희는 이숙이를 굳이 말리지 않았다.

선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자는 속대인지 알지도 못한채 가마들을 부지런히 옮겨놓던 이숙이는 닭알만한 동그란 참돌로 가마굽을 암팡스레 문대고있는 선희를 의아쩍게 여겨보았다.

《아니 그런거야 사가는 집 아낙네들이 어련히 안할라구.》

선희는 코등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살짝 문대며 응석투로 대꾸했다.

《더 말할게 있겠어요. 거울같이 길들일거예요. 하지만...》

마당에는 굵도리와 뚜껑에 굵보가 진 가마가 몇개 놓여있었다. 창고에서 험한것으로만 골라 내온것 같았다. 이숙이는 선희가 하는대로 돌로 가마굽을 문대기 시작했다. 만만치 않았다. 한잠도 못가서 손목이 나른해지며 땀발이 내뿜었다. 하나 선희는 여전히 극성스럽게 일손을 놀리고있다. 두손을 엇바꾸어가며 쉬임없이 가마굽을 문대는 처녀의 무릎에는 은가루같은 쇠밥이 뽕양게 앉았다.

이런 선희의 수고를 말해주듯 저쪽 담장밑에는 매끈하게 다스려진 밭가마들이 번쩍거리는 광택을 내며 주련이 놓여있었다.

그것들을 둘러보던 이숙이의 눈길은 무심중 선희의 손으로 옮겨졌다. 매대앞에 서있는 판매원의 손치고는 너무도 거칠었다. 깐깐스레 쓰다듬은 덕에 희맑은 살갗은 바탕을 잃지 않았으나 마디진 손가락과 자르래한 흠집들이 어쩔수없이 드러났다.

(얼마나 일을 했으면 처녀손이 저렇게 되었을가.)

봄눈이 많이 왔던 올해 초봄에 상품을 싣고오던 자동차가 도중에서 눈에 갇히우게 되자 소등바리로 그것을 실어날랐다는 선희와 공장에 상품을 가지러 가면 물건 하나라도 더 받아오려고 로동자들과 함께 몸 적시고 일한다는 선희가 떠올랐다. 한낮의 땡볕에 파리빛으로 달아오른 선희의 얼굴엔 피곤이 실리였으나 정기도는 눈에는 즐거움이 어려있었다. 은연중 두 녀인의 눈길이 마주쳤다.

《아이 참, 왜 그렇게 찬찬히 보시나요?》

《아니 그저.》

선희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푹푹 찍어내며 이숙이를 눈치지 마주보았다.

이숙이는 다정하면서도 속깊은 마음에 느껴지는 처녀의 눈매에서 이런 속삭임을 읽었다.

(아주머니는 제가 괜한 수고를 한다고 걱정하셨지요. 그러실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마들은 새로 일떠선 공장에서 우리 로동자들의 손으로 만든거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든 이 가마를 아주머니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안게 하고싶어서 그래요.)

이숙이는 또다시 선희와 나란히 일손을 잡았다. 아까보다는 훨씬 손익어져서 잠깐동안에 술뚜껑 하나를 번쩍거리도록 다스려놓았다. 한참 일을 하던 이숙이는 아까 선희와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청년이 생각났다. 한것은 이렇게 깨끗하고 착실한 선희를 남다른 행복이 기다리고있을거라는 녀성다운 예감에서였다.

이숙이는 선희의 눈치를 슬쩍 살펴보고나서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한가지 물어보자구.》

《뭔데요?》

《아주 중한거야.》

《호호호... 물어보세요.》

《약혼을 했나?》

얼굴을 활짝 붉히며 부끄러워할줄 알았던 선희는 뜻밖에도 태연했다.

《안했어요. 어디 좋은 남자가 있나요?》

이숙이는 판전을 부리지 말라는듯 입술을 비죽이 내밀었다.

《누가 모를줄 알구. 아까 찾아왔던 수박색양복차림의...》

선희는 이숙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발기우리하게 달아올랐다.

《아니예요, 그렇게 아니예요.》

《내 눈은 속이지 못해요.》

《정말이라는데두요. 민주선전실에 쓸 종이때문에 왔던걸 가지구...》

부끄러움을 타는 선희의 대답은 벌써 자신없이 울렸다. 이런 선희를 끌려주고싶어진 이숙이는 지긋게 물었다.

《사람이 잘 생겼던데, 집이 어디예요?》

《모른다는데두요.》

무릅없으면서도 집요한 이숙이앞에서 야속함을 금치 못하는 처녀의 살눈섭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이숙이는 선희가 청년을 사랑하고있음을 알았다. 얼마나 좋은 때인가! 아니다, 때가 좋아서만이 아니다. 그 청년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희로서는 저렇게 행복이 찾아드는것이 너무도 웅당한 일이 아닌가! 뒤이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토록 가까운 선희의 진정을 자기만이 류별나게 받아오는것으로 생각해오던 자신이 썩 어리석게 여겨졌다. 어찌보면 시샘이 섞인듯도 한 서운함이 갈마들기도 했으나 그럴수록 선희가 더욱 친근하게 돋보이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자기 이숙이라는 녀자도 저 선희처럼 사람들에게 깨끗한 무엇을 심어주며 일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싶었다. 날씬한 허리를 갇신대며

대우낸 가마들을 옮겨놓던 선희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인민주권 받들고 나가는 녀성들아
우리 힘에 조국터전 날마다 건설된다
.....

선희는 노래를 썩 잘 부르지 못했으나 은은한 그 목소리에서는 듣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절절한 감정과 호소가 울리었다.

남들앞에서 노래를 불러본적이 극히 적은 이숙이였으나 마을의 녀맹원들이 즐겨부르곤하는 그 노래를 나직이 따라불렀다.

.....
씩씩하게 뭉치자 장군님 두리에
찬란한 우리 조국 완전독립 위하여
.....

음정이 다르면서도 부드럽게 합쳐진 그들의 노래는 햇빛이 한껏 흘러넘치는 여름하늘에 고즈넉이 퍼져갔다. 노래에 심취된 선희와 이숙이는 상점 뒤문가에 나선 점장아바이가 대견스러운 웃음을 담고 고개를 끄덕이는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 ×

집에 돌아온 이숙이는 일요일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남편과 처음 만날적에 이불때기는 고사하고 밥 한그릇 변변히 지어놓지 못하고 머리를 얹은 이숙이는 아이 둘을 낳고사는 오늘까지도 억이 막혀 눈물을 짜던 그날의 설움을 잊지 못하고있었다. 하기에 시동생의 잔치를 남이 보란듯이 번듯하게 차려서 가슴에 맺힌 쓰라린 그 추억을 지워버리려고 별러오는 이숙이였다. 이런 이숙이에게 있어서 선희와 약속을 한 그 옥양목은 한갓 천필이 아니라 나날이 늘어나는 행복의 한 갈피이기도 했다. 이숙이는 남편과 함께 논판에서 두벌 김을 매다가도 기쁜 얼굴로 자기를 맞아줄 선희의 손에 들려있을 하얀 옥양목필을 그려보곤 했다.

드디어 약속한 일요일이 왔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조반차비를 한창 서두는데 책상우에 놓인 라디오가 뜻밖에도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미제와 리승만역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보도였다.

단란하던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얼굴이 근엄해졌다. 낮빛이 날카로워진 청년들이 어디론가 바빠 뛰여다녔고 늙은이들과 아낙네들은 토방이나 집모퉁이에 모여서 심상치않게 수군거렸다. 식전에 밖으로 나간 남편과 시동생은

밥을 갇혀낸 가마가 싸늘하게 식을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남쪽으로 뻗은 신작로로는 군인들을 가득 태운 자동차들과 육중한 포를 끈 견인차들의 행렬이 질풍같이 흘러갔다. 난생처음 보는 생소한 그 흐름을 지켜보는 이숙이는 어떤 판세상에 들어선듯 이름모할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러면서 선희와의 약속은 퍼그나 오래전에 있는 남의 일처럼 어렴풋하게 기억되는것이였다. 이숙이는 자기의 가정과 마을 그리고 온 나라에 어렵고 엄숙한 시기가 닥쳐왔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제부터는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გადა듬게 되는것이였다.

전쟁이 일어난지 나흘째 되던 날 바다쪽에서 날아들어온 적의 첫 함재기편대가 읍거리 중심에 나팔탄과 폭탄을 퍼부었다. 바로 그날 이숙이 남편과 시동생은 마을청년들과 함께 전선으로 떠났다. 그들을 동구밖까지 배려주고 돌아오던 이숙이는 선희도 인민군대에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숙이는 군복입은 선희의 릉름한 모습을 그려보려고 애썼지만 아련하고 상냥스러운 판매원인 선희의 날씬한 자태만이 어려울뿐이였다.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나날은 흘렀다.

이숙이는 불타버린 집터에 자그마한 반토굴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다. 전쟁전엔 소여물을 줄 때마다 대갈질을 할가봐 몹시 겁나하던 검정황소를 손탁에 후려잡은 이숙이는 일손이 결딴 후방가족으로 소문이 나서 마을에 갇무어진 소거리반의 반장이 되였다. 이숙이는 달밝은 밤, 잔등에 위장을 한 검정소를 앞세우고 논갈이를 할때면 전선에서 싸우고있을 남편과 함께 선희를 자주 생각하곤했다. 폭격에 끊어진 길을 손질하거나 항공감시근무를 설 때면 지나가는 행군대렬속에 혹시 선희가 섞여있나 해서 살펴보곤했으나 매번 헛물을 켰다. 한번은 뒤모습이 선희와 신통히도 같은 어떤 녀성 군인에게 달려가 대바람 손목을 잡았다가 무안을 당한적도 있었다. 그때 이숙이는 선희를 이렇게 찾는것은 당초에 부질없는짓이라고 단정했다.

남편의 편지나 마을에 주둔해있던 군대들에게서 얻어배운 발은 군사지식으로 미루어볼 때 선희와 같이 똑똑하고 착실한 처녀는 어느 야전병원에서 간호원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허연 장령아바이들 곁에서 무전수나 서기를 할거라고 판단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세번째 설이 다가오는 12월의 어느날, 이숙이는 군량쌀을 길마에 얹은 검정소를 끌고 전선으로 떠났다. 낮이면 길가의 마을에서 쉬고 밤이면 갈길을 재촉하곤하던 전선원호대

는 사흘만에야 전선을 코앞에 둔 학천강가에 이르렀다.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뒤웅성내기》새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울씨년스러운 밤이었다. 사나운 바람은 어느것이 강이고 길인지 가려볼수 없게 눈보라를 들썩우는데 미제침략군의 야간폭격기들은 조명탄을 대낮처럼 걸어놓고 눈먼 폭탄질을 해냈다. 다리목은 흐르던 물목이 막힌듯 군대들과 자동차로 붐비었다.

《폭격에 다리가 끊어진걸 방금 고쳤답데.》

《공병친구들이 목욕을 한바탕 잘했겠는걸. 이 추운날에... 빨리 건너야 할게 아닌가.》

《도착한 순서대로 뿔뿔군. 도하직일관이 보통 엄격하지 않아. 한시간은 기다려야 할거네.》

운수차운전사들인듯한 군인들의 말을 듣고있는 이숙이는 웅글은 포성이 울리는 강건너편에 시선을 던졌다. 밤하늘을 찌는 탐조등줄기들이 수없이 엇갈리고 피빛 화염이 피어오르는 그곳에 가면 남편과 시동생을 꼭 만날것 같았다. 소잔등에 덧엮었던 여물가마니를 풀어내린 이숙이는 쿵을 넣어 삶은 소먹이를 소의 코앞에 쏟아주었다. 허연 코김을 내뿜으며 여물을 어썩어썩 먹어대는 검정소를 이윽히 지켜보느라니 손발이 사정없이 시려왔다. 이숙이는 참다못해 길마를 얹은 소잔등에 손을 찢어넣었다. 손끝이 훈훈해났다. 따스한 그 촉감을 느끼느라니 토지분여를 받은 이듬해 초봄, 눈덮인 논판에 두엄을 내던 때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그날은 물러가는 겨울이 모지름을 쓰는 맵짠 날이었다. 하지만 제땅에서 제 농사를 짓는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른 이숙이부부는 눈무지를 파헤치고 두엄을 열싸게 실어냈다. 이숙이는 한참 걸이대질을 하다가도 맵짠 바람에 시려드는 속을 어찌지 못해 남편 몰래 주물러 녹이군했다. 그것을 어느결에 띄어본 남편은 제가 끼고있던 두툼한 병어리장갑을 말없이 던져주었었다. 행복하기만 하던 그때의 추억을 더듬는 이숙이의 얼굴엔 처녀같은 수집은 미소가 피어났다.

(맹추갈으니, 그날 추위는 오늘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도 그이의 턱을 대고 엄살을 부렸으니 참, 그때부터 추위를 견디여내는 버릇을 굳혔으면 이렇게 소잔등신세를 지지 않을는지 몰라.)

소가 여물을 말끔히 먹었을 때 원호대책임자아바이가 나타났다.

《떠나자구, 우리가 건널 차레야.》

《벌써요?》

《도하직일관에게 직발 들이댔지. 우리 군량바리를 먼저 건느게 해달라구.》

로인은 이렇게 빨리 건느게 된것이 제덕인줄 알라는듯 신이 나서 섬겨댔다. 길마의 배띠를 줄

라 매고난 이숙이는 소고삐를 잡고 다리목으로 향했다. 새로 고쳐놓은 나지막한 가설교는 자동차한대가 겨우 다닐만큼 폭이 좁았는데 도하직일관의 지휘에 따라 자동차들이 행군대렬이 정연하게 들어서고있었다.

《요다음차레야, 잠깐 기다리자구.》

로인결에 멈추어선 이숙이는 가까운 강언덕우에 서있는 도하직일관에게 눈이 끌렸다. 어두워서 얼굴은 푹푹히 가려볼수 없었으나 녀성군인이라는게 대뜸 알렸다. 어떤 군인이 외투자락을 펴리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뭐라고 졸라댔다. 그러자 쟁쟁한 녀자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박격포 다음에 건네준다고 몇번이나 말했어요. 못들었나요?》

《듣지 못했는데-》

《못들었다구요. 귀를 그렇게 감싸고있으니 남의 말이 들릴게 뭐야요. 귀덮개를 좀 올리라요.》

부드러우면서도 놀려대는듯한 그 말에 가까이 서있던 군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과연 녀성군인은 큰소리를 칠만도 했다. 추위따위는 아랑곳없다는듯 몸을 곧추 펴고 서있는 그의 머리우에는 귀덮개를 접어올린 군모가 단정히 씌어져있었으며 작은 수첩과 신호기발을 든 량손에는 수갑도 끼지 않고있었다.

《아이, 저러다가 손과 귀를 다 얼구겠네.》

속이 알싸해난 이숙이가 제 혼자 혀를 끝끝 차는데 또다시 나타난 적기가 조명탄을 달아놓았다. 창백하고 예리한 불빛에 드러난 녀성군인의 얼굴을 다시 찬찬히 쳐다보던 이숙이는 《아!》하고 낮게 소리쳤다. 녀성군인이 뜻밖에도 선회가 아닌가. 도도룩한 이마와 가늘사한 눈매, 둥그스름한 아래턱, 틀림없는 선회였다.

(한데 그렇게 굵던 살결과 목소리가 왜 저렇게 거칠어졌을가?)

주위의 산봉우리에 배치된 고사포들이 적기를 겨누어 불을 뿜는것과 동시에 다리 먼거리에 폭탄이 떨어지며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산산이 부서진 얼음조각들과 파편이 살기편 소리를 내며 날아왔다. 소와 함께 길옆의 폭탄웅덩이에 은폐했던 이숙이는 적기가 달아난 다음에야 길우에 올라섰다. 선회는 그때까지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하를 지휘하고있었다.

《원호대, 빨리 건너라요. 빨리... 다음은 박격포 중대... 다리앞으로!》

라선형 연기피리를 늘이며 서서히 스러져가는 조명탄불빛이 선회의 자태를 뚜렷이 드러냈다. 빛을 뿜으며 재빨리 움직이는 눈초리와 포연에 그슬은 불깃한 얼굴, 어깨에 멘 따발총과 침착하게 울리는 명확한 목소리, 뜻하지 않은곳에서 머리속

에 그러오던바와는 너무도 다른 선회를 보게 된 이숙이는 좀 어리둥절했으나 더없이 반가웠다. 소고뻘을 소잔등에 얹어놓은 이숙이는 선회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에 질린듯 무춤 멈춰섰다. 선회가 자기를 즉시 알아볼수 있을가 하는 위구가 앞섰던것이다.

(왜 이렇게 못나게 굴가. 꼭 만나야 해!)

결불사이없이 달려가려던 이숙이는 책임자로인의 고함소리에 다시금 멈춰섰다.

《어딜 가나 빨리 건느자구!》

벌써 원호대의 마지막 소등바리가 다리에 들어서고있었다. 어쩔수없이 발길을 돌려 대렬을 따라서는 이숙이는 선회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선회, 돌아올 때는 꼭 만나야!!)

...원호대에서 돌아온 이숙이는 군에 회의를 갔다오던길에 소비조합상점 점장을 만났다. 선회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사유를 듣고난 아버지는 얼굴에 아쉬워하는 빛을 지었다.

《꼭 만나보았어야 할걸. 얼마나 기뻐했을라구.》

이런 아버지를 보니 그토록 보고싶던 선회에게 말한마디 건네보지 못한채 헤여진게 눈물이 나도록 후회되었다. 돌아올 때는 꼭 찾아보려 했었는데 폭격에 심한 큰길 대신 지름길을 타고 오는통에 중시 만나지 못했다.

점장에게서 선회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집에 돌아온 이숙이는 그날밤 가물거리리는 상어기름등잔 불앞에서 선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난생처음 써보는 긴 편지였다. 남편에게 편지를 쓸 때에만 정히 꺼내쓰곤하는 16절백로지 두장에 깨알같이 박아쓴 글자가 빼곡이 찼다. 잊을수 없는 46년도의 그 가을날에 선회가 성인학교에서 배워준 글씨였다. 이숙이는 편지를 띄우고나서도 눈바람 사나운 다리목에서 만났던 선회를 자주 생각했다. 모판에 벼씨를 뿌리는 이른 봄날, 여우가 눈물을 흘린다는 새바람이 몸을 오싹거리게 할 때면 땀 뺀 눈보라속에서도 귀뉘개를 내리지 않던 선회를 그려보았으며 먼바로 내려쬐히는 썩썩기의 기총탄이 귀뿌리를 스칠 때에도 도하장의 선회를 본따서 적기를 맞받아 쏘아보곤했다. 그러던 어느날 우편통신원이 색다른 편지 한장을 가져왔다. 전쟁이 없는 별천지에서 날아온듯한 깨끗한 결봉에는 《류선회》라는 이름 석자가 정자로 씌여있었다.

이숙이는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가벼운 현훈증을 느끼며 결봉을 뜯었다.

《...보고싶은 이숙아주머니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반가이 받아보았어요. 저의 코앞에서 한참이나 지체했다는 아주머니를 왜 미처 못보았을가요. 아쉬운 그 마음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숙이는 이전이나 다름없이 사근사근한 선회의 목소리를 느끼며 다음 글줄을 더듬었다.

《...군복차림의 제가 낯설어보였다면서요? 군복은 입었지만 이전의 선회야 어딜 가겠나요. 하긴 군복이란 희한한것이기도 해요. 늙은 사람은 젊어 보이게 하구, 저같은 애송이들은 툴툴해지게 하거던요. 미국놈들을 무리로 쓸어넘히는 고지의 용사들도 이 군복을 입었으니까요. 저는 위대한신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전사로서 그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있는것이 더없이 자랑스롭습니다. 이럴수록 장군님의 은덕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행복에 웃음짓던 판매원시절을 생각한답니다. 별로 하는일 없던 이 〈술고개집〉 딸을 〈우리 판매원〉 이라고 사랑스럽게 불러주던 사람들이 가까운 어느곳에서 저와 함께 싸우고있으며 후방을 지켜서있다는 믿음으로 힘을 얻곤하는 저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느라니 아주머니의 모습과 함께 간혹 손님들을 섬섬하게 하던 일이 가슴아피 떠오릅니다. 싸움을 이기고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가깝고 살뜰한 판매원이 되겠어요...

자주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머지 않아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날까지 부디 몸조심하세요.

1953년 4월 ×일
류선회 올림》

편지를 세번이나 곱잡아 읽고난 이숙이는 선회가 있을 먼 남쪽하늘가를 지켜보았다.

포연서린 산발이 첩첩히 늘어선 그쪽 어디에서는 지심을 울리는 폭음이 우뢰처럼 울려왔다. 이숙이는 편지를 가슴에 살며시 얹은채 다심한 명상에 잠겨 오래도록 서있었다.

서로의 속을 무릅없이 풀어헤치곤하는 그들의 편지는 한달에 한번씩 어김없이 오고갔다.

그러던 어느날, 소비조합상점 점장이 이숙이네 집에 찾아왔다. 이숙이는 선회를 친딸처럼 여기던 아버지가 온것이 무척 반가우면서도 빈 걸음은 한발자국도 내짚지 않는다는 점장의 돌연한 출현이 저으기 의아스러웠다. 이숙이를 따라 방안에 들어온 아버지는 살아가는 형편을 이것저것 물어보고나서 들고온 꾸레미를 이숙이앞에 내놓았다. 아버지가 천천히 풀어헤치는 꾸레미를 덤덤히 굽어보던 이숙이는 흠칫 놀랐다. 그속에는 네겹으로 포개여 접은 새하얀 옥양목필이 들어있지 않은가. 싱긋한 새천내를 풍기는 눈결같이 흰 천필을 받쳐든 이숙이의 눈앞에는 까마득히 잊었던 그 일, 다음번 일요일에 꼭 오라고 하던 선회의 웃음띤 얼굴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것이였다.

《그 일요일날 옥양목이 들어오기는 했었지요.

선희는 군사동원부로 가기에 앞서 아주머니에게 줄 이불감 한몫을 꼭 내놓으라고 당부하던걸 다른 판매원이 몽땅 팔아버리지 않았겠소. 아마 전쟁이 터진통에 지내 덤벼쳤던 모양이요, 참.》

초저녁부터 나타난 적의 쌍발기가 저공으로 날아가며 란사하는 기관포소리가 귀따갑게 울려왔다. 문에 친 방공막을 여미여놓고난 점장은 담배를 피워물었다.

《아마 아주머니도 그 약속을 잊었을거우다. 나도 감감하게 잊었겠지요. 한테 선희는 먼저번 편지에다 이 옥양목 얘기를 적지 않았겠소. <판매원인 제가 실현못하고 떠난 그 약속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숙아주머니의 부탁을 꼭 해결해주시시오.> 라구. 그제서야 나는 정신이 펴쩍 들었소. 실속없고 덜통스러운 자신이 얼마나 용렬스러웠던지.》

아바이는 갈려나오는 목소리가 쑥스러운듯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성의껏 장만하느라고 했는데 마음에 들겠는지...》

이숙이는 천을 무릎우에 놓고 정히 쓰다듬느라니 밝게 웃음짓는 선희의 얼굴이 눈앞으로 마주왔다.

(선희, 고마와!)

이숙이의 눈귀에 맺혔던 이슬이 옥양목천우에 떨어지며 한점의 문양을 그리었다.

× ×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전선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좀 걸 늙은듯 하면서도 의젓해진 이숙이의 남편과 말수가 많아 지고 쾌활해진 시동생도 돌아왔다. 이숙이네 마을은 그리웠던 사람을 맞는 기쁨으로 매일 흥성거렸다. 전쟁의 시련은 가렬하면서도 능청스러운데가 있었다. 며칠전에는 삼년동안 내치 소식이 없어 부모들의 속을 태우게 하던 우물집아들이 혼장을 수두룩이 달고 나타나더니 오늘은 락동강에서 잘못했다는 풍문을 듣고 제사까지 지내준 새독집 수돌이 아버지가 병글거리며 돌아왔다.

이숙이는 선희를 만날 날을 조용히 기다렸다. 들일을 하거나 읍거리쪽을 다녀올 때면 건장을 땀 군복차림의 선희가 불쑥 나타나 《아주머니!》하고 달려올것만 같았다. 하나 선희는 산에 들어가있던 소비조합상점이 읍거리에 내려올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더우기 이숙이를 불안하게 하는것은 지난 7월초에 편지를 받아 본후로는 영소식이 없는것이였다...

마을어구에 몇대 남지 않은 백양나무가 황토색

락엽을 흘날리는 마가울의 어느날, 논에서 벼단을 날라들이던 이숙이는 뜻밖에도 선희가 전사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다. 꿈결에서처럼 울려온 그 말을 뜬소리라고 단정해버린 이숙이는 한달음으로 읍에 내려갔다.

봄철보다 훨씬 걸늙어보이는 점장아바이는 침중한 낮빛으로 두툼한 편지를 내놓았다. 곁봉에 적힌 군사우편함대호는 선희의것과 똑같았으나 발신인은 전혀 딴 이름이였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속지를 뽑아든 이숙이는 선희의 부대지휘관이 보낸 다음과 같은 사연을 읽었다.

...그날은 전승을 사흘 앞둔 날이였다.

전선에서 적들에 대한 최후 섬멸전이 벌어지는 것과 함께 학천강다리는 화선으로 달려가는 운수차들로 넘쳐났다. 《외나무다리》라는 군사부호로 불리우는 학천교의 사명을 잘 알고있는 적의 비행대는 우리 고사포들의 탄막을 뚫고 죽을내기로 다리에 덤벼들었다. 가렬한 전투로 짧은 여름밤이 빨리도 지새는 새벽녘에 학천교는 또 한차례의 폭격을 받았다. 끊어진 다리를 이어놓고 무수히 떨어진 시한탄을 제거하는데는 퍼그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통과신호와 함께 강역에 묻혀서있던 자동차들이 다리를 건느기 시작했다. 이무렵, 다리 한복판에서 다리복구작업을 지휘하던 공병장은 저쪽 다리어구의 첫번째 교각 언저리에서 시한탄을 안고 나오는 처녀 도하직일관을 발견했다. 선희였다. 공병들의 눈을 속이고 다리밑의 감탕속에 파묻혀있던 그 마지막 시한탄은 당장이라도 폭발할수 있는것이였다. 눈을 홉튼 공병장과 함께 여러 명의 군인들이 그쪽으로 총알같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오지 마세요. 물러서요!》

강변에 올라선 선희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다음 순간 공병장은 선희가 이미 다리가 피해를 받을수 있는 거리를 벗어났다는것을 판단하고 크게 소리쳤다.

《던지오. 빨리!》

그러나 선희는 시한탄을 그냥 안은채 강언덕쪽으로 한발자국 한발자국 멀어져갔다. 땀이 즐편한 얼굴에서 고집스럽게 반짝이는 눈매, 지그시 사려문 아래입술, 꾹꾹한듯하면서도 약간 비칠거리는 걸음새, 통털어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위훈적인 체취와 비장한 각오보다도 그 누가 만류해도 이 일만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소박한 성실성이 풍기였다. 마치도 선희는 누구에게랴없이 이렇게 말하는듯했다.

《더 멀리 가야 해요. 다리에서 한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처녀에게로 달려가던 공병장이 다시 소리쳤다.

《됐소. 빨리 던지라우, 선희!》

그가 처녀에게 거의 다가갔을 때 귀청을 멍멍하게 하는 거센 폭음이 일어났다.

선희가 강언덕아래로 필사적으로 내던진 시한탄이 몇고패 굴지 못하고 터진것이다. 폭풍에 쓰러졌던 공병장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을 때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선희는 군인들의 손에 떠받들리며 조용히 누워있었다. 급히 달려온 위생병이 구급치료를 끝냈을 때 선희는 살머시 눈을 떴다. 그는 자기를 근심스레 굽어보는 못시선들을 둘러보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일없습니다. 조금 다쳤어요.》

적자색 아침노을이 물든 다리우로는 방수포를 씌운 포차들과 운수차들이 려이어 지나갔다. 잠이 한껏 실린듯한 눈으로 그 철의 행렬을 조용히 지켜보는 선희의 얼굴엔 밝은 웃음이 서서히 피어났다.

피땀 화염을 헤치며 떠오른 아침해가 금빛 해살을 비쳐올 때 선희는 그 마지막 미소를 간직한 채 교묘히 눈을 감았다...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이숙이의 두 볼로는 수정같이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람 한점 없는 잠풍한 대기를 타고 배짱이의 울음소리가 가냘프게 울려왔다. 선물적인 유정한 그 음향이 차츰 멀어져가는속에 봄날의 시내물소리와 같이 다정한 선희의 속삭임이 울려왔다.

《아주머니, 뭘 그러세요. 내가 뭐 영영 가버렸나요?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 다정한 그 목소리, 밝은 그 얼굴!

걸다가는 멈춰서고 멈춰섰다가는 다시 걷군하는 이숙이의 머리우에서는 흐릿하게 보이는 별무리가 천천히 따라오며 반짝이고있었다...

이 겨울에 잡혀 첫눈이 내린 어느날 아침, 오리말에서 이십리가량 떨어진 송전리마을어구에 자그마한 보통이를 든 한 녀인이 나타났다. 동네사람들에게 길을 묻고난 그는 양지쪽 산턱에 자리잡은 외딴집으로 뻗은 언덕길을 올라갔다. 《술고개집》이라고 불리우는 선희네 집을 찾아가는 이숙이었다. 프락에서 빨래가지들을 손질하던 선희의 어머니가 이숙이를 맞았다. 신고개를 갓 넘겼음직한 어머니는 속이 깊고 대범했다. 이숙이가 자기 소개를 했을 때 어머니는 친딸을 맞이하듯 두손을 잡아 방안으로 이끌었다. 가장 가깝고 무간한 사이에 있기마련인 살뜰한 말마디가 얼마쯤 오갔을 때 이숙이는 무심중 옷방쪽에 고개를 돌렸다. 순간 옷몸을 솟구며 앉음새를 고쳤다. 거기에는 선희가 서있지 않는가! 도도룩한 이마밑에서 영채를 뽑는 가늘사한 눈매와 군모밑에서 흘

날리는 머리카락, 입에 호각을 물고 신호기발을 끝추 들어 어느 한곳을 가리키는 근엄한 자세, 분명 학천강의 도하직일관인 선희였다. 그 그림과 나란히 전쟁전에 찍은 《도모범상업일교회》기념사진이 걸려있었는데 이숙이는 그 단체사진에서 선희의 작은 얼굴을 첫눈에 찾아냈다. 어머니의 말마따나 사진찍는것을 그닥 달가와하지 않는 선희는 사람들에게 이끌리다싶이해서 사진기앞에 섰을것이다. 이숙이는 편안치 않은 몸가짐으로 한쪽 구석에 서있는 선희의 자그마한 모습과 큼직하게 그려진 선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농사일밖에 모르는 이숙이로서는 회화에 대해서 아는것이 너무도 적었으나 눈여겨 살필수록 그림이 썩 썩 원치 않아보이었다. 이숙이가 알고있는 선희는 저렇게 무뚝뚝하고 엄엄하지 않았었다. 입은 열지 않고도 얼굴과 몸짓으로 많은것을 이야기할줄 아는 다감하고 영민한 처녀였다. 하지만 이숙이는 선희를 저만큼이라도 그려낼 사람이 여간 고맙지 않았다. 아마도 저 그림은 선희와 아주 가깝던 어느 누구가 나처럼 선희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이《술고개집》에 찾아왔을 많은 사람들중의 누가 그렸을것이다.

뒤이어 선희를 아끼고 사랑하던 수많은 얼굴들이 하나의 군상을 이루며 펼쳐지는것과 함께 선희와 처음 만나던 인상깊은 가을밤이며 밥가마를 닦으며 부르던 선희의 맑은 노래소리, 불비속을 뚫고 날아왔던 뜨거운 편지구절들이 귀전에 랑랑히 울려오는것이였다. 그것은 파스한 봄날에도 설한풍 몰아치는 겨울에도 변함없이 솟아흐르는 샘물처럼 정가로운것이였다.

그렇다, 선희는 살아있다. 평화롭던 날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행복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기에 준엄한 날에 그 행복을 목숨바쳐 지킬줄 안 선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받드는 사람의 진정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빛을 낸다는 고귀한 진리를 소문없이 보여준 선희는 한낱 《술고개집》딸만이 아닌 조국의 딸로 영생할것이다!

굳어진듯이 사진과 그림에 눈을 주고있던 이숙이는 어머니가 곁에 와서 나란히 앉는것도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 선희가 저런 시늉이나 해보았는지?》

이숙이는 어머니를 조용히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엄숙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요. 내 눈으로도 푹푹히 보았어요.》

이숙이가 어머니의 손을 살머시 부여잡는데 문창호지로 숨새여드는 금빛해살이 선희의 모습을 어루만지듯 비쳐주고있었다.

풍년가을을 앞당기는 마음들

박효준

옛날부터 농사는 인간생활에서 근본이라 했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해당될뿐 아니라 더욱더한 무게와 절박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속에 되살아나고있다. 이상기후라는 기이한 현상에 거대한 파괴력을 가지고 세계를 휩쓸고있다. 북극지대에 얼음산이 불어나 봄에도 늦추위가 계속되는가 하면 여름내 비 한방울 오지 않는 왕가물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있다. 엄청난 무데기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때아닌 눈이 내려 농작물을 녹여버리는 일도 많다. 이와 같은 피해로 하여 오늘 세계도처에서는 수억만의 인구가 식량난에 허덕이고있으며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형편에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현상이 빚어내는 이와 같은 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식량에 대한 근심걱정이란 말조차도 모르며 우리모두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는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주체농법의 생활력, 뚜렷이 증명하여줍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흉년이 계속되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장성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응당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농법이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해마다 만풍년의 가을을 맞이하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날을 따라 더욱 꽃피어나고있다. 행복한 오늘의 이 생활을 더욱 공고한것으로 하기 위해 우리 당은 계속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견지하고있으며 당의 현명한 령도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협동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창조적 노력과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오랜 출장길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이런 사실을 더더욱 깊이 느끼게 된 나의 가슴은 소년시절처럼 마냥 설렘였다. 내가 지금 살고있는 농촌마을은 나에게 두번째고향이라고도 할수 있을만큼 정이 들고 살기 좋은곳이다. 온 마을이 친형제나 다름없는 무던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학교와 문화회관, 규모있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들이며 그 트랙마다에 키높이 자라오른 과일나무를 그리고 잉어떼가 헤엄치는 양어장도 가물이면 황금파도가 물결치는 마을앞벌도 그 모든것에 나는 정이 들었다.

구역소재지에서 내린 나는 뺄스를 기다릴 필요없이 20리가까이 되는 길을 걸어가리라고 마음먹었다. 정이 들고 눈에 익은 지름길을 밟아보고싶어서였다.

하늘이 맑고 바람기도 없는 좋은 날씨다. 소재지거리를 벗어나면서부터 구수한 흙냄새와 두엄내가 물씬물씬 풍겼다.

(벌써 봄차비를 하는것인가?…)

나는 들길의 그윽한 정서에 취하면서 절기가 빠른것에 놀랐다. 경칩이 아직 며칠 남아있으니 절기로는 봄갈이가 이르다. 옛날에는 춘분을 지나서야 두엄낼 차비를 한다고들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이 활짝 꽃피어 생활에 보람을 느낀 우리 협동농장원들은 자기네를 오늘의 행복으로 이끌어준 크나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철을 앞당겨 만풍의 전야를 가꾸고있는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논벌로는 련결차를 단 트랙토르들이 분주히 달려가고 어느새 벌써 방풍장을 쳐놓은 포전들에서는 모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친다. 한해전까지만 하여도 포전정리를 하느라 불도젤들이 부르릉거리던 여기에 지금은 하나같이 네귀 번듯한 규격포전들이 들어앉았다. 논갈이는 말할것 없고 모내기도 김매기도 가을걷이도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다 하려는 우리 당의 방침이 관철되어 이와 같은 전변이 이루어졌다.

나는 문득 저만큼에 바라보이는 한 포전을 향해 두령길로 접어들었다. 그 이름이 우리 마을 사람들의 포전이라고 짐작해서다.

《하, 이거 작가선생이 오시는군요.》

사람들의 움직임에 눈이 팔려 걸어가는데 누군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나는 얼마간 두리번거리서야 그를 찾아내었다. 한마을에 사는 작업반장 동무였다.

《아니, 벌써 땅이 녹았습니까? 모판을 만들 때는…》

나도 반기면서 걸음을 다그쳤다. 많은 사람들이 저저마다 제나름의 인사를 한다. 하나같이 비닐장화에 삽이며 걸이대를 잡기도 하고 가래질을 하던 그들은 모두 눈에 익은 마을사람들이다. 모판은 거의 형태들이 되어가는데 파헤쳐진 기름진 흙에서는 흰김이 문문 피어오르고 들레에는 짙은 부식퇴비가 놀랄만큼 무둑무둑하니 쌓였다.

랭상모판은 논보다도 양지바른 밭이 더 좋지 않느냐는 나의 물음에 자기네는 그런 알맞춤한

밭이 많지를 못해 이렇게 논에도 모판을 만드는 데 관리만 잘하면 논모판도 좋다고 한다.

잠시 숨을 돌린 농장원들은 다시 일손을 다그친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나자 작업반장도 잡고있던 삽을 논판에 박아놓고 뒤를 따른다. 탈곡장에 벼종자를 널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봐주어야 한다고 한다.

《올해는 농사차비를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앞당기는것만 같군요...》

나는 느낀것을 언지시 비쳐보았다.

《글쎄요, 거 무어라고 말할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벌써 봄씨봄일 기일같은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때 할만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풍년가을을 앞당기는 일이라 할가...》

작업반장은 이렇게 말하여 작업반의 형편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주체농법의 우월성이 모든 농장원들에게도 유감없이 체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말은 일을 알심있게 해낸다는것이다. 그들은 올해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그 차비를 하였노라고 했다. 하고보면 그는 일에 다몰리어 찢쩍 매고 돌아가는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전망성있게 내다보면서 여유있게 해나가고있다는걸 느끼게 했다. 그는 또한 자기네 작업반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는데 그의 어조에는 자기 사람들에게 대한 자랑이 넘쳐나고있었다.

우리는 어느덧 탈곡장으로 쓰는 작업반실 앞마당에 당도하였다.

원하게 넓은 마당에는 멍석을 주런이 깔아놓고 벼종자를 널어놓았는데 누런 벼알들이 껌데기가 터질만큼 충실하였다. 이렇게 한차례씩 거풍을 시킨 다음 종자처리장으로 보내어 싹을 틔운다는것이다.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가마를 걸어놓고 두녀성농장원이 활창대를 삶고있었다. 회초리를 삶아야만 틀에다 끼워 규격대로 휘울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들의 일숨씨를 지켜보는 나의 머리에는 불현듯 지난날이 상기되였다. 랑상모를 처음 도입하던 정전직후에는 보통 종이에 송란유를 먹여서 모판틀종이로 썼었다. 그때야 술장을 따다 기름을 짜서 모판틀종이를 만드는게 얼마나 품이 들고 힘들었던가? 그러던게 비닐박막이 도입되더니 이제는 활창대마저도 이처럼 규격식으로 만들어쓰게까지 되였다. 우리 당의 과학농법, 기계농법이 작업 종류와 공정마다 전변을 가져오게 한것이다. 나는 새삼스럽게 뜨거워지는 마음을 안고 저편을 바라보았다.

수로뚝앞에는 집체같은 두엄더미가 주런이 쌓여졌는데 한쪽을 털어낸 더미옆에는 두엄적재기가 꺾둑하니 서있다. 지붕이 덩그런 탈곡장의 쿡

크리트바닥에 트랙토르를 들여세우고 비료를 부리고 있다.

《마침 정거장에 린비료가 도착해서 그것을 실어 들여옵니다.》

무슨 비료냐는 나의 물음에 분조장이 흐뭇한듯 대답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린비료가 아직 오지 않아 걱정하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걸릴것이 없다는것이다. 올해에 또 벼는 정당 500키로, 강냉이는 한톤이상 더 낼 자신이 있다고 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지난해에 강냉이를 더 낼수도 있었는데 이삭비료를 생육조건에 맞게 좀 더 과학적으로 치지 못해 손실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수확을 높이는데 ...》

그는 이렇게 회고담이라도 하듯 지난해 이야기를 하였다. 혈색좋은 그의 덩그런 얼굴에는 올농사에 대한 결의와 함께 확고한 신심이 넘쳐나고있었다.

아까 반장이 하던 말과 농장원들의 알심있는 일숨씨를 미루어보면 분조장의 결심이 결코 뜸소리가 아니라는것을 느끼게 했다.

지금 온 나라의 모든 농장원들은 주체농법 요구대로만 하면 만풍년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생활을 통해 철석같이 믿고있다. 그러기에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였고 온몸에서 생기와 열정이 넘쳐나고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주체의 길을 따라 드팀없는 자욱을 내딛고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황금나락이 물결치는 가을을 보는듯만싶어 마음이 더없이 기뻐다.

정녕 이들은 올해 950만톤 알곡고지를 높이 쌓아올리리라

나는 려행의 피로도 잊고 마을로 향하였다. 학교앞 신작로에 나서자 저편 모퉁이에서 련결차를 단 트랙토르들이 연해연방 달려나온다, 역에 와닿는다는 린비료를 실어오기 위해 떠나는것이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배려에 만풍년의 가을로 보답하기 위하여 봄을 앞당기는 사람들의 밝고 희망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세계 수억만사람들이 이상기후의 후과로 식량난에 허덕이고있는데 오직 우리 나라만이 해마다 만풍년의 가을을 맞이하고있으니 우리 어찌 이 나라에 태여났음을 자랑스레 여기지 않으랴!

트랙토르들의 대렬은 계속 나의 옆을 기운차게 지나쳐간다. 풍년봄을 앞당기는 로력전선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기계화초병들이 눈부신 래일을 향해 기운차게 달리고있다.

나는 이 부지런하고 다정한 사람들과 한마을에서 같이 사는 나자신을 무척 기쁘게 여기면서 집으로 향하였다.

빛나는 새세대

— 개천군 근위1급 룡진협동농장 담배작업반 청년분조원들에 대한 이야기 —

조승찬

그들은 모두 열여덟, 열아홉의 꽃나들이였다. 변성기를 갓 벗어나기 시작한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애된 모습이 어디라없이 다문히 어려있었다.

무슨 말을 물으려면 공연히 얼굴부터 활짝 붉히는 어질고 순박하기만한 그들은 좀체로 자기 자랑을 몰랐다.

룡진협동농장 담배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이 바로 이런 처녀들이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 집단진출하여 생소한 담배농사를 잘하여 어버이수령님께 크나큰 기관과 만족을 드리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영광을 지닌 복받은 처녀가 바로 이곳 반장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발전의 선진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세대들입니다.》

세세대, 보통사람들이 한생을 거쳐서도 가닿지 못한 영광의 높이에 스무살 꽃나이에 올라선 축복받은 새세대, 그들의 삶이 어찌하여 이토록 빛나는것인가!

1. 그들이 택한 길

고등중학교 졸업반에 이르자 그들모두는 자꾸 부르는 가슴을 금할수 없었다.

아지랑이 피어나는 언덕을 바라봐도 가슴이 설레었고 푸른 하늘에 솟아오르는 꽃구름을 봐도 마음이 이상해졌다.

공연한 일이 아니었다. 꿈과 미래를 두고 생각하고 결심해야 할 졸업기가 닥쳐온것이다.

이맘때 그들은 동무들끼리 모여앉아 자주 미래를 두고 속삭였다. 그리고는 스스로 곧잘 이렇게 묻곤하였다.

《장차 어디로 갈가?》

행복한 질문이었다.

무엇이나 마음먹으면 가닿을수 있는 찬란한 미래가 손저어 부르고있는 그들의 앞길이었다.

누군가는 후대교육을 책임진 교원이 되리란 꿈을 키웠고 또 누구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의사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보았으며 어떤 동무는 전문예술인으로 자라날 래일을 두고 가슴을 울렁거렸다.

어렸을 때부터 체육에 남다른 취미를 가졌던 김순화 역시 그러했다. 그는 세계무대에 진출하여 모든 강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영예를 떨친 이름있는 체육인들의 대오속에서 래일의 자기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 모든 래일이 당장이고 울것만 같아 그들은 무척 즐겁기만 했다.

별다른 일을 보고도 까르르 웃게 되었고 걸을 걸어도 쿵쿵 뛰어나야 성이 차군했다.

하지만 천진란만한 소년시절의 들뜬 마음은 오래 가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 양덕군은하리 청년분조원들의 기특한 소행이 신문에 소개되자 전국이 들썩해졌다. 원래 체육부문으로 진출하려던 생각을 품고있던 순화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기의 꿈과 미래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스스로 돌이켜보게 한 충격적인 사변이었다.

이날밤 순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화의 눈앞엔 왜서인지 은하리 청년분조원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고향땅을 지켜 락원의 꽃을 피우는 그들이 둔우보이면 보일수록 그들이 택한 길이 천백번 옳다는것을 심장은 웨치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나서자란 룡진땅을 새삼스럽게 둘러보았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력사적인 사적이 깃든 땅이었다.

양지바른 산기슭마다 즐비하게 늘어선 문화주택, 들마다 오고가는 수십대의 트랙토르, 저녁이면 텔레비존으로 온 나라를 구경하는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변모한 룡진리의 오늘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는 얼마나 뜨거운것이었던가.

이 복받은 땅에서 18년을 살아온 순화였건만 고향이 오늘처럼 귀중하게 느껴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산기슭의 마을, 흐르는 조룡강, 내가의 버들숲, 결코 그것만이 고향의 전부는 아니었던것이다.

그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앞에는 오래도록 선채 움직일줄 모르는 한 학생이 있었다. 순화였다. 그러나 그가 무엇때문에 이곳에 그토록 오래도록 뿌리를 내린듯 서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며칠후 학교에서 은하리청년분조원들에 대한 신문기사를 가지고 실효모임을 할 때 순화는 맨 처음 일어나 룡진협동농장에 나갈 결심을 토론하였다.

조직은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더우기 그를 기쁘게 한것은 자기와 같은 결심을 한 동무들이 결코 한둘이 아니란 사실이었다.

거기에는 사범대학을 지망했던 강기화도 의학대학에 가려던 강금란이도 예술인으로 되려던 류봉순의 얼굴도 보였다. 당의 부름에 청춘을 바치리란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로 이어진 동무들의 그 결심을 보자 순화는 눈물이 날만큼 기뻐고 그들을 얼싸안고 불이라도 비벼주고싶었다.

그의 얼굴엔 다시금 고운 웃음이 피어났다. 그러나 그 미소는 천진한 시절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것이었다.

2. 한치의 드림도 없이

담배작업반을 맡게 되자 순화는 처음 당황해졌다.

생소한 담배농사인데다 학교시절부터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끌어본 경험이 없는 그였다. 아름답찬 과업을 맡은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여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을까.)

오직 이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담배모 이식이 끝난 포전을 돌아보던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무리 보아도 평당포기수가 모자라는 것이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모줄을 놓고 눈금에 맞춰 담배모를 심었는데 어떻게 되어 평당포기수가 모자라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말을 듣고 분조원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허—모줄이 늘어났구나!》

같이 일하던 리아바이의 허차는 소리였다.

《네?!》

처녀들은 와뜰 놀랐다.

모줄이 물에 젖으면서 늘어난 것이었다. 바야흐로 낱은 저물어 끝안엔 이미 어둠이 내리고있었다. 하루일을 마치고 마을로 들어오는 농장원들의 모습이 저멀리로 보였다.

《어찌겠니, 날도 이미 저물었는데...》

어깨가 처져 서있는 청년분조원들을 둘러보며 아바이가 하는 소리였다.

《안돼요. 아바이, 우리는 이대로는 넘길수 없어요.》

순화의 얼굴엔 결연한 빛이 어렸다. 동무들이 이에 적극 호응해나섰다. 단 한포기라도 주체농법

의 요구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티없이 맑은 충성심이 날게 한 응당한 행동이었다.

중천에 솟아 조각달이 점차 생기를 띠고 그들의 일손을 빠끔히 내려다보고있었다.

이마에 선평선뚝 내뚫은 땀을 흠치며 담배모보식을 하는 순화의 마음은 착잡해졌다.

(난 왜 이런것을 타산하지 못했을까. 이건 초보적인 상식이 아닌가.)

그는 자기가 반장구실을 제대로 못해 동무들을 공연히 수고시키는것만 같아 죄스럽기 짝이 없었다. 저 모줄을 그냥 둔다면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이럴 때였다.

《반장동무!》

분조장 리성숙이 이랑앞에 서있었다.

《?!》

《모자를 해와야겠어.》

《모자를?...》

《모자가 없이는 래일 또 이래야 될거야.》

《웁아, 한시도 미뤄서는 안돼.》

그러고보니 그의 뒤에 또 두 처녀가 서있었다. 강금란, 리춘희동무였다. 그들은 당장 산으로 떠날 차비였다.

《이 밤중으로?》

《래일은 늦잖아.》

성숙의 어조는 단호하였다. 학교때 어쩌다 늦게 되면 세넷이 모여 집으로 데려다주던 성숙이었다. 그가 지금 어둠으로 뒤덮인 산속으로 모자로 쓸 나무를 하러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었다.

순화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순간 그의 눈앞엔 며칠전에 있는 일이 불쑥 떠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포전앞에 돌을 깔고 회칠을 하고났을 때였다. 조통강 물가에 나가 손발을 씻던 성숙이가 문득 이렇게 물었다.

《순화야!》

그는 둘이 있을 때면 너나들이로 이렇게 불렀다.

《응?》

《우리 포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 오실가?》

《글쎄... 아니, 오실거야!》

순화는 어째선지 그럴것만 같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정말?》

《응, 난 꼭 그렇게만 생각돼.》

《그래, 나도 꼭 오실것만 같아. 그날을 생각하면 힘든줄 모르겠어. 그저 자꾸만 일하고싶어.》

그의 열정어린 까만 눈에는 얼마나 황홀한 빛이 어려있었던가...

순화는 지금의 성숙의 어조에서 그날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눈굽이 뜨거워졌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응.》

둘이는 손을 굳게 잡았다. 그우에 강금란, 리춘희들의 뜨거운 손이 덧붙여졌다.

3. 리없이 깨끗한 마음들

담배농사에서 제일 품이 드는 계절은 수확기였다. 6월하순부터 따들이기 시작하면 늦가을까지 계속되는 이 시기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담배수확이 결정되곤한다.

수확기가 오자 청년분조원들은 어느때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긴장한 전투는 런일 계속되었다. 앞친데덮치는격으로 봄내 파랗게 개였던 하늘에선 며칠째 계속 비를 쏟았다.

밭목을 차게 흐르던 조롱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수로목밑까지 기여올라 왁살스럽게 소리질렀다.

강쪽은 대번에 두배나 더 늘어나 범람하였다.

《에그 어찌나? 우리 담배가 녹겠구나!》

소용돌이치는 시뻘건 물살앞에서 갈길이 막혀 버리게 되자 한 농장원어머니가 무릎을 치며 탄식하였다. 그것을 보는 청년분조원들의 가슴은 타는듯 안타까웠다. 다 익은 담배잎이 밧고랑에 수북이 떨어져 속절없이 썩을것을 생각하니 순화는 마음이 아팠다. 앞산에 눈이 하얗게 덮였던 그 계절부터 모를 붓고 봄, 여름내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담배포기였다.

그는 단호히 머리를 번쩍 들었다사나운 물살앞에서 주저앉았던 청년분조원들이 반장의 달라진 낫빛에 눈길을 모았다.

《저걸 구해야지 어떻게 하겠니?》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에 젖어 가늘게 빨리였다.

《우리가 이만한 난관에 몰려서서야 무슨 청년분조원들이겠니? 혁명의 새세대들이라고 말할수 있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포전에 오시는 날 강물 때문에 담배농사를 망쳤다고 보고드릴수는 없잖아.》

《옳아, 우리는 절대로 몰려서지 말아야 해.》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 현순실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러자 언제나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분조장 리성숙이 선뜻 나섰다. 분조원들이 모두 뒤따라 일어났다.

강기슭에 퍼져버리고 앉았던 박영실어머니가 그들의 심상찮은 거동에 하얗게 질려 손을 뻗어내려졌다.

《아니, 너희들이 정신이 있냐? 저 물살에 귀신 몰래 죽자구그래?》

《어머니, 우린 꼭 가야해요!》

《못간다 못가! 정 건느고싶거든 물이 켜 다음에 함께 가자.》

어머니는 뒤편이나 한 일이냐는듯 펄펄 뛰었다.

그렇수록 순화는 더욱 침착해서 절절한 목소리로 설복했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봄 여름내 정성껏 키운 담배가 그대로 썩는것이 가슴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저 강물을 바라 어떻게 건는단말이나?》

《우린 청년분조원들이 아니예요.》

《저 물살이 그걸 알아준다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지금 우릴 보고계실거예요!》

《!! ...》

어머니는 놀라운 눈길로 청년분조원들을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어린 처녀들의 가슴에 이렇게도 크고 장한 생각이 깃들어있을줄은 미처 몰랐다.

이때였다.

《반장동무, 동무들이 강을 건너요!》하는 누군가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순화는 번쩍 고개를 돌려 강쪽을 내다보았다. 초급단체위원장 현순실동무와 1분조장 리성숙이 허리치는 물살을 헤치며 강을 건너고있었다.

순화는 더 생각할 사이 없이 강으로 달려가 그들과 합세하였다. 뒤미처 따라선 분조원들이 서로 서로 어깨를 겹고 물살을 헤쳤다.

너무도 뜻밖에 벌어진 사태앞에서 넋을 잃고 놀란듯 서있던 녀인이 급기야 정신이 들어 소리소리 질렀다.

《아니 정신이 있냐? 어이구 이 일을 어쩔담. 거기 누가 없소?》

꼭 무슨 변이 날것 같아 소리치는 그의 말을 듣고 강냉이밭 물도랑을 찌던 농장원들이 여기서 숨이 턱에 닿아 달려왔다.

《무슨 일이요? 응?》

한꺼번에 물어대는 여러사람들의 질문에 녀인은 정신없이 중얼거렸다.

《글쎄, 저 철없는것들이...》

손을 들어 가리키던 녀인의 손이 우뚝 굳어졌다. 물에 함뿍 젖은 청년분조원들이 건너편 강쪽에 올라서서 손을 저으며 목청을 합쳐 소리치고 있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없어요.》

《아-니?! ...》

《철없는 애》들이 아니였다. 10여년전 담배농사를 지어온 녀인이었지만 일찌기 이런 일을 당해 보지 못했다.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어차피

백정굴 담배는 썩이는것으로 여겼고 그것이 피치 못할 일인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스무살 이전의 애어린 처녀들이 사나운 물살을 헤치고 강을 건너갔다.

《우린 청년분조원들이 아니예요!》

하던 반장의 말이 이 시각 새로운 의미로 다시금 떠올랐다.

청년분조원, 역시 자기들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였다. 그들앞에 어쩐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녀인은 치마폭을 감싸 허리에 질끈 동여맸다.

《아니, 어찌자구 그러시우?》

가례장부를 들고 달려왔던 농장원이 눈이 대번에 등그래서 물었다.

《보이지 않소. 저애들이, 나살이나 찬게 부끄러워 그러우.》

녀인은 왈살스럽게 불을 흔들며 사나운 강물속에 첨뿔 발을 들어놓았다.

이날밤이었다.

자리에 눕자 청년분조원들은 물에 젖은 숨처럼 노그라졌다. 그도 그럴것이 사나운 강물을 몇차례씩 오르내리며 담배잎을 따들인 그들은 누구나 지칠대로 지쳤다.

건조로를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누운 순화도 온몸이 나른해졌다. 피곤이 왈각 물려들면서 온몸이 그대로 땅속으로 잦아드는것 같았다. 하지만 순화는 인차 잠들수 없었다. 오늘밤 당번으로 지명된 동무들이 제때에 깨어나겠는지 의문스러웠다.

건어들이 담배를 제때에 말리지 못하면 허실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건조로에 들어간 담배는 새벽 세시에 꺼내야 했던것이다.

걱정스러웠던 순화는 잠간 눈을 붙였다가 소스라쳐 깨어났다. 잠간 눈을 붙인것 같았는데 시계는 벌써 세시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황급히 일어나 잠든 동무들을 깨우려던 순화는 무춤 손끝을 움츠리고말았다. 피곤에 물려 혼곤히 잠든 동무들을 보니 차마 깨울수가 없었다.

잠든 동무들을 이윽히 들여다보던 순화는 슬그머니 혼자 밖으로 나왔다. 그들에게 다문 얼마라도 시간을 주어 충분히 재우고싶었다.

홀로 나온 그를 보자 건조로 관리공인 리아바이가 의아해서 물었다.

《아니 혼잔가?》

《이제 나올거예요.》

순화는 차마 아바이에게 혼자만 나왔다고 실토할수 없었다. 아바이에는 모르겠다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건조로 문을 열어젖혔다.

《자, 어서 꺼내자구.》

로안에선 열기가 확 풍기었다. 둘이는 열오른

첫 담배광차를 힘겹게 끌어냈다. 본래 넷이서 하던것을 둘이서 뿔자니 여간만 힘겹게 앓았다. 했지만 순화는 기뻐다.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동무들을 위할수 있다는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를 일이었다.

둘이는 로에서 꺼낸 담배광차를 밀고 밖으로 나왔다. 돌림길에서 광차를 돌리던 그들은 그만 레루우에서 차를 떨구고말았다,

《젠장!》

리아바이의 증이난 소리였다.

둘이는 꿈꿨 갑자르며 광차를 들어올렸다. 했으나 무거운 담배광차는 궤도우에 제대로 오르지 않았다.

《이 애들이 안나오는가?》

《저... 아바이 다시한번 들어보지요.》

급해난 순화가 일른 이렇게 말하며 광차에 어깨를 들어밀었다. 그렇게 하기를 몇번, 갑자기 담배광차의 무게가 줄어들며 차바퀴가 궤도우에 쉽게 올라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광차 맞은편에서 동무들이 일어섰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1분조장 리성숙의 새파래진 목소리였다.

《우리만 피곤하고 반장동문 피곤하지 않아?》

《반장동문 옳지 않아.》

《우린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약속했지?》

현계순이와 김영옥이 불부는 소리로 나무랐다.

《!!!...》

순화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이런 동무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던가.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 기쁨을 구는것이 아니였다.

《그랬됐구만! 그런걸 난또...》

모든 사태를 깨닫자 리아바이가 저으기 감심한 낮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예요, 아바이! 야, 우리 동무들은 참...》

순화는 무엇이 아니라는지 뜻도 모르게 중얼거리다가 입을 다물어버렸다. 눈물이 왈각 쏟아져 나와 더는 말을 이을수 없었던것이다.

4. 영광의 날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감격의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뜻밖에 찾아왔다.

며칠째 내리던 비도 멎어버리고 썩은 유리알처럼 맑게 개인 청청한 하늘에서 눈부신 태양이 찬란히 비치던 지난해 8월, 개천지구를 현지도하하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이곳 청년분조원들의 담배포전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한포기의 담배를 가꾸고 하나의 조약돌을 포전

머리에 곱게 깎아놓으면서도 오로지 바랐던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자기들이 가꾸어놓은 충성의 담배포전에 한번 모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었던 만 정작 그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 순화는 얼른 믿어지지 않았다.

꼭 꿈을 꾸고있는것 같아 굳어진듯 서있던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다시금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수령님께서 오시다니?...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포전머리로 달려갔다.

수원들과 함께 담배포전을 돌아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급히 달려와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그를 보시자 환하게 웃으시며 ...청년담배 작업반 장동무로구만... 하시며 순화의 작은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수령님!...》

그는 목이 콧 메여와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이런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다정하게 웃으시며 나이는 몇살인가, 청년분조원들은 모두 몇명인가고 친근한 어조로 부드럽게 물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물으심에 순화는 어느덧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져 대답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몸소 담배포전에 들어서시여 굽게 자란 담배포기들을 일일이 만져보시며 잎당 무게는 얼마며 평당포기수는 얼마나 넣었는가. 현재 수확량과 앞으로 할수 있는 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는 거침없는 그의 대답에 매우 만족해 하시며 담배농사를 아주 잘 지었다고 분에 넘친 치하를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청년작업반 장동무와 함께 기념사진을 한장 찍자고 하시며 이 세상 비길데 없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순화는 너무 뜻밖의 말썸에 또다시 눈물이 북솟아올랐다. 자기가 했으면 무슨 일을 했으랴. 농촌에 진출하여 불과 다섯달, 했다면 오직 당의 호소에 청춘을 바치리란 마음뿐이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마음을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여 그 누구도 바랄수 없는 최상의 영예를 안겨주신것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곁에 꼭 붙어서서 사진을 찍던 그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사진을 찍고나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이제는 헤어지자고 하시면서 차에 오르실 때에야 순화는 정신이 편뜻 들어 정중히 허리굽혀 인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수령님, 안녕히 가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저멀리 산굽

인돌이를 돌아설 때에야 뒤늦게 전달을 받은 청년분조원들이 사람들속을 헤치고 달려왔다. 맨처음달려온 1분조장 리성숙이 순화의 손을 와락 끌어 안았다.

《순화야,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니? 응? 무슨 말씀을 하셨어?》

너무 다급한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와 순화는 어느것부터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그저 북받치는 감격만이 목구멍에 그득히 차올라 자기가 어떻게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올렸는가만 중얼거렸을뿐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포전을 보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말야?》

그제서야 동무들이 무슨 말을 묻는가를 깨달은 순화는 말문이 잡혀 감격에 멎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청년분조원들이 담배농사를 잘 지었다고 치하해주시면서 몸소 저 담배잎들을 만져보셨단다!》

《그게 정말이냐?》

《응.》

《야— 수령님!》

성숙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순화는 또다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자기를 열싸안고 돌아가던 동무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만져보신 담배포기들을 어루만지며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가에는 오래도록 이슬이 맺혀있었다.

× ×

지난해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진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이 담배 정당수확고를 두배나 높이고 충성을 담아 올려보낸 편지를 받아보시고 친히 회답편지와 함께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었다.

편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말없이 충성의 열정을 바쳐나가는 혁명적인 세대들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 사랑, 그 믿음을 받아안은 이곳 청년분조원들은 지금도 충성의 열정을 안고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올해 농사차비를 년초부터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속에 활짝 꽃피는 그들의 삶은 오늘도 빛나지만 래일은 더욱더 찬란히 빛날것이다.